

새국어생활

새국어생활

2015년 제25권 제1호 · 봄



국립국어원 2015-02-01

정간위 심의필 95-13-4-21

ISSN 1225-7168

새국어생활 Saegugeosaenghwal
제25권 제1호(2015년 봄) Vol. 196

인쇄일·발행일 2015년 3월 31일

펴낸이 민현식

편집위원 남길임 · 이광표 · 주세형 · 진정란 · 최경봉

기획·편집 이승재 · 김형배 · 윤혜선

제작 커뮤니케이션북스(주)

펴낸 곳 국립국어원(www.korean.go.kr)

주소 157-857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3동 827번지)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154, Geumnanghwa-ro, Gangseo-gu, Seoul, Korea

전화 (02) 2669-9775

전송 (02) 2669-9777

※ 정기 구독 신청 및 구독 소감, 견의 사항 등 문의

《새국어생활》 담당자 | (02) 2669-9719 | urimal365@korea.kr

차례

[특집] 국어 발음의 규범과 현실

국어의 표준 발음과 언어 현실 3
이진호

국어 교육과 발음 17
김봉국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방안 29
전나영

국어 발음 정책과 발음 교육의 방향 45
배주채

광복 70년, 우리말을 생각한다 63
유애리

지금 이 사람

함께 찾는 박물관, 다시 찾는 박물관으로

– 문영호 국립한글박물관장을 만나다 75

권창섭

문학 속 우리말

이상의 '절벽'과 백석의 '바람벽'

– 어느 벽은 절벽이 되고 어느 벽은 새벽이 된다 96

김승희

삶과 우리말

우리말 부라퀴가 되리라 104

고정욱

세계의 언어 사전: 프랑스

300년 전통의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 112

하영동

국립국어원 소식 129

[부록]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수정 내용 150

[특집]

국어 발음의 규범과 현실

국어의 표준 발음과 언어 현실

이진호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특집

1. 들어가며

국어의 발음은 다양하게 변이한다. 지역에 따라 모음의 수가 다르거나 같은 지역이라도 한 단어의 발음이 차이 나는 경우를 무수히 접할 수 있다. 가령 ‘쇠’라는 단어의 발음을 조사해 보면 ‘ㅅ’을 표기대로 [ㅅ]으로 발음하는 사람도 있지만 [ㅆ]으로 발음하는 사람도 있다. ‘쇠’의 ‘쇠’는 발음 양상이 더 다양해서 단모음 [ㅚ], 이중 모음 [ㅕ], 단모음 [ㅔ]로 발음하는 경우가 모두 존재한다.¹⁾ 그래서 하나의 단어 ‘쇠’에 대한 현실 발음은 ‘[쇠]’, ‘[쐬]’, ‘[쉐]’, ‘[췌]’, ‘[세]’, ‘[쎄]’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한 형태의 발음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례는 많이 찾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발음의 변이형 중 어느 하나를 표준 또는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이것을 흔히 ‘표준 발음’이라고 부른다. 국어에는 표준 발음을 규정한 별도의 어문 규정인 〈표준 발음법〉이 있다. 이에 따르면 국어의 표준 발음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전통성과 합리성을

1) 많은 사람들이 ‘ㅔ’와 ‘ㅐ’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중 모음 ‘ㅕ’나 단모음 ‘ㅔ’도 실제로는 여러 변이형이 있다.

고려하여 정한다.

‘쇠’의 표준 발음은 [쇠]이지만 [쉐]도 허용하고 있다. 단어의 첫머리에 놓인 ‘ㅅ’은 표기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모음 ‘ㅚ’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이중 모음 ‘궤’로 발음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표준 발음은 표기를 기반으로 하되 실제 발음을 충분히 감안하여 규정하고 있다.

때로는 현실 발음과 동떨어진 것이 표준 발음으로 정해지기도 한다. 가령 ‘한빛’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부르는 말 ‘한빛아’의 발음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비대] 또는 [한비새]라고 답을 한다. 그러나 표준 발음은 [한비채]이다. 국어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하면 앞말의 받침이 그대로 뒤 음절 초성으로 발음되어야 하는 원리가 있다.²⁾ 따라서 ‘한빛’에 조사 ‘아’가 결합한 ‘한빛아’는 [한비채]라고 발음하는 것이 옳다.

〈표준 발음법〉에서는 자음이나 모음의 목록, 기본적인 발음, 중요한 발음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어사전에는 각각의 표제항마다 발음 정보가 들어 있다. 그래서 〈표준 발음법〉과 국어사전만 찾아도 표준 발음이 무엇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에게 표준 발음이나 〈표준 발음법〉은 무관심 또는 불만의 대상일 뿐이다. 발음을 어떻게 하든 말만 통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무관심을, 자신의 발음이 표준 발음이 아니라는 데 불편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불만을 표명할 것이다.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의 괴리에서 오는

2) 이 원리를 흔히 ‘연음(連音)’이라고 부른다. 연음의 원리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인 조사나 어미, 접미사가 결합할 때 작용한다.

거부감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며, 이것이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먼저 현행 〈표준 발음법〉에 대해 간략히 개관한다. 3장에서는 〈표준 발음법〉에서 규정한 표준 발음이 현실 발음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인 사례로 검토한다. 4장에서는 현실 발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표기 오류의 문제를 다룬다.

2. 국어의 〈표준 발음법〉

국어의 표준 발음은 표준어 규정의 제2부인 〈표준 발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준 발음법〉은 총 7장 30개 조항에 걸쳐 구체적인 표준 발음을 수록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표준 발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표준 발음을 정하고 있지만, 국어처럼 성문화된 규정으로 〈표준 발음법〉을 가진 나라는 거의 없다. 언어 정책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나라들조차 〈표준 발음법〉은 따로 없고, 연극 무대의 발음이나 국어사전에 수록된 발음 정보 등을 표준 발음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영미권에서는 방송 언어의 발음을 표준으로 본다.

국어의 〈표준 발음법〉을 제외하면 북한의 〈문화어 발음법〉과 중국 동북 3성의 〈조선말 표준 발음법〉 정도를 표준 발음법으로 볼 수 있다. 둘 다 국외 사례이기는 하지만 모두 국어와 동일한 언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북한에서는 1950년대부터 〈조선어 철자법〉의 일부로서 표준 발음법을 규정했으며, 1960년대에 와서는 이것을 독립된 어문 규범으로 분리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문화어 발음법〉으로 명칭을 수정

했다. 중국 동북 3성의 〈조선말 표준 발음법〉은 1970년대에 만들어져서 1999년에는 《조선말 표준 발음법 사전》까지 간행되었다. 그런데 이 규정은 1960년대에 정해진 북한의 표준 발음법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큰 차이가 없다.³⁾

국어의 〈표준 발음법〉은 1988년에 공포되어 1989년부터 시행되었으니 북한이나 중국의 동북 3성에 비해서는 역사가 짧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래 〈표준 발음법〉을 정하려는 시도는 1968년부터 있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 중반에는 가안(假案)이 나오고 1970년대 후반에는 개정안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여론에 떠밀리거나 정치적 상황 때문에 표류하고, 거기에서 〈표준 발음법〉을 구체적으로 제정하는 기관까지 바뀌면서 이를 공포하기까지 약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처럼 오랜 기간 〈표준 발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표준 발음법〉의 성격도 상당히 변모했다. 초창기에는 된소리와 장음 문제에 가장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당시에는 어떤 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할지, 장음으로 할지 단음으로 할지의 문제가 가장 혼란스럽다고 보고, 이 두 부분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부분까지 함께 다루었다. 이러한 초기의 접근은 개별 단어를 중심으로 혼란스러운 발음을 정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나온 〈표준 발음법〉의 내용은 초기와는 상당히 달라졌다. 개별 단어의 혼란스러운 발음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국어 발음의 전반을 규정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적 발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그리하여 초창기의 〈표준 발음법〉이 개별

3) 북한의 〈문화어 발음법〉과 중국 동북 3성의 〈조선말 표준 발음법〉에 대해서는 이진호 (2012)에서 다룬 바 있다.

단어의 표준 발음을 모아 놓은 '자료집'의 형식이었다면, 최종적인 〈표준 발음법〉은 국어 발음의 중요 원칙을 담은 '규정집'의 형식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표준 발음법〉에 국어의 발음 원칙 또는 발음 현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표준 발음법〉의 성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표기와 발음이 불일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표준 발음을 규정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경우는 〈표준 발음법〉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몇몇 중요한 국어 음운 현상의 경우 그것이 반영된 대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은 〈표준 발음법〉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이 국어 발음의 모든 측면을 포괄할 수는 없다.

이를테면 용언 어간의 마지막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이라도 어떤 것은 〈표준 발음법〉에 나오지만 어떤 것은 나오지 않는다. '아는[야:는]'(알+는), '사는[사:는](살+는)' 등에서 보듯이 'ㄹ'로 끝나는 모든 용언 어간은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ㄹ'이 탈락하며, '낳은[나은]', '낳으니[나으니]'에서 보듯이 'ㅎ'으로 끝나는 모든 용언의 어간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 앞에서 'ㅎ'이 탈락한다. 이러한 두 가지 탈락 현상은 예외 없이 일어나지만 'ㄹ' 탈락은 〈표준 발음법〉에 나오지 않고 'ㅎ' 탈락만 〈표준 발음법〉에 나온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ㄹ' 탈락은 표기에 반영하고 'ㅎ' 탈락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만 〈표준 발음법〉에서 다루므로 〈표준 발음법〉이 국어의 모든 발음을 완전히 규정해 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표준 발음법〉이 학문적 입장에서 국어의 발음을 모두 규정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어 음운론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하면 된다. 표기대로 발음하면 되는 경우까지 굳이 포괄하여 내용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

요는 없다. 개별 단어의 발음을 알고 싶으면 국어사전을 찾고,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발음 원칙을 알고 싶으면 〈표준 발음법〉을 찾고, 국어 발음의 전반적인 원리와 원칙 등을 알고 싶으면 국어 음운론과 관련된 학술서를 찾으면 될 것이다.

3.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의 차이

〈표준 발음법〉에서 규정한 표준 발음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둘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표준 발음법〉에서 표준 발음의 대상으로 본 것은 대체로 1980년대 당시 서울의 토박이말을 구사하는 노년 층 화자들의 발음이었다는 점이다. 서울에 살고 표준어에 가까운 언어를 구사한다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세대별 또는 출신 지역별로 발음의 차이가 적지 않다. 따라서 〈표준 발음법〉을 정하던 당시에도 〈표준 발음법〉과 현실 발음은 차이가 없지 않았으며, 그로부터 약 한 세대에 해당하는 시간이 흐른 현재는 둘 사이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의 차이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이 중 대표적인 몇몇 경우를 살피기로 한다. 우선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단모음(單母音)의 수에서 찾을 수 있다. 표준 발음에서 원칙으로 하는 단모음의 수는 10개(ㅏ, ㅓ, ㅗ, ㅓ, ㅕ, ㅜ, ㅠ, ㅡ, ㅣ)이다. 이러한 10개의 단모음은 1980년대를 기준으로 하면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전남 서부권의 노년층 언어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ㅚ, ㅟ’는 단모음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려 이 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발음 현실을 고려하여

‘ㅚ, ㅟ’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장년층 이하의 세대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7개의 단모음만 발음하고 있다. 이것은 〈표준 발음법〉에서 허용하는 8개의 단모음 중 ‘ㅐ’와 ‘ㅔ’를 구분하지 못한 결과이다.⁴⁾ 현재 ‘ㅚ, ㅟ’를 단모음으로 발음하거나 ‘ㅐ’와 ‘ㅔ’를 구분하여 발음할 수 있는 화자는 전체 국민 중 소수에 불과하며 그것도 노년층에 국한된다. 방송 아나운서들의 발음에서도 모음은 〈표준 발음법〉을 그대로 지키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 따라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표준 발음법〉에서 규정하는 단모음을 온전하게 발음하는 한국인은 만나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중 모음의 발음도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차이 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특히 ‘ㅚ’의 발음이 그러하다. ‘ㅚ’의 현실 발음은 위낙 다양해서 〈표준 발음법〉에서도 여러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단어의 첫머리에 놓이는 ‘의’와 ‘희다, 씌어’와 같이 ‘ㅚ’ 앞에 초성이 있는 경우에 ‘ㅚ’는 각각 [ㅚ]와 [ㅣ]로만 발음해야 한다. 그 밖에는 현실 발음을 고려하여 [ㅚ] 이외의 발음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 발음은 여전히 표준 발음과는 동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의의’와 같은 단어는 표준 발음의 원칙은 [의의]이고 [의이]까지도 허용하지만 실제 발음에서는 [으이]로 발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주의(主義), 협의(協議)’와 같은 단어도 〈표준 발음법〉상의 원칙인 ‘[주의], [혀비]’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허용안인 ‘[주이], [혀비]’만이 쓰일 뿐이다.

자음은 주로 겹받침의 발음에서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의 차이가 드러난다. 예를 들어 ‘밟고, 넓다, 읽다’ 등과 같이 겹받침이 있는 말들은

4) 이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ㅐ’와 ‘ㅔ’를 구별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ㅐ’는 ‘아이’, ‘ㅔ’는 ‘어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흔하다.

표기상으로는 받침에 두 개의 자음이 있지만 발음상으로는 겹받침 중 어느 하나만 발음해야 한다. 이것은 국어 음절의 종성에서 두 개의 자음을 발음할 수 없다는 중요한 원리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서는 겹받침의 종류나 단어에 따라 겹받침 중 어떤 자음을 탈락 시킬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해 놓았다. 그에 따르면 ‘밟고’는 [밥:꼬], ‘넓다’는 [널따], ‘읽다’는 [익따]로 발음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 발음에서는 이렇게 발음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접할 수 있다. 겹받침을 발음할 때 〈표준 발음법〉에서 규정하는 그대로 정확히 발음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심이 될 정도로 현실 발음에서는 겹받침 중 탈락하는 자음에서 다양한 변이가 나타난다.⁵⁾ 이 때문에 국어와 관련된 시험에서는 겹받침의 표준 발음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이 종종 출제되기도 한다. 출제자 입장에서야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니까 출제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험을 치르는 입장에서는 〈표준 발음법〉을 기계적으로 외우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항이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 자체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⁶⁾

자음 동화에서도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가기) 싫니?’와 같이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니’가 붙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싫니’는 [실리]로 발음해야 한다. 이것은 ‘끓는, 닳는’을

5) 이것을 잘 보여 주는 사례가 ‘밟고’의 표준 발음이다. 〈표준 발음법〉을 정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밟고’의 표준 발음을 [밥:꼬]로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밥:꼬]로 수정을 했던 것이다.

6) 최근 각종 국어 시험에서 어문 규범 또는 문법과 관련된 문항들이 적지 않게 출제되고 있다. 그러나 지식을 기계적으로 외워야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도리어 어문 규범이나 문법에 대한 반감을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각각 [끌른]과 [달른]으로 발음하는 것과 동일한 자음 동화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싫니?’를 [실리]로 발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체로 ‘싫니’ 대신 ‘싫으니[시르니]’라고 발음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의문형 종결 어미는 ‘먹나?, 잡니?’ 등에서 보듯 그 형태가 ‘-니’이지, ‘-으니’가 아니기 때문이다.⁷⁾ 사람들은 [실리]와 같은 표준 발음이 어색하여 이것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으’를 더 넣어 [시르니]로 발음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례는 아주 많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표준 발음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그 어떤 나라의 어떤 어문 규범도 언어 현실과 정확히 부합하는 경우는 없다. 어문 규범은 언어의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언어가 바뀌는 대로 어문 규범을 바꾼다면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표준 발음법〉을 정하던 1980년대의 표준어에서도 이미 발음의 변이는 존재했다. 그 당시에도 이미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은 달랐으며 이러한 차이는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변화가 누적될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단순히 언어 현실과 규범의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합당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⁸⁾

7) ‘밥을 먹으니 배가 부르다.’에서와 같이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는 ‘-으나’이지만 이것은 의문의 종결 어미와는 다른 어미이다.

8) 다만 〈표준 발음법〉 자체의 내적인 완결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향후 수정해야 할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겹받침 ‘ㄹ’의 발음에 대해 〈표준 발음법〉 제10항에서는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두었지만 제18항이나 제23항에서는 [비]으로 발음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동일한 겹받침의 발음이 조항에 따라 다른 것은 앞으로 시정이 요구된다.

4. 발음과 표기 오류

발음은 한글 표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한글 맞춤법〉에는 표준 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경우가 아니면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면 된다. 이때의 발음은 당연히 표준 발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준 발음에서 허용하지 않는 현실 발음을 그대로 표기하면 오류를 낳는다. 실제 현실에서는 이런 사례가 자주 나타난다.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표기 실수는 대체로 발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식당 메뉴판을 보면 ‘찌개’로 써야 할 것을 ‘찌계’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ㅐ’를 ‘ㅔ’로 잘못 쓴 것이다. 반대로 ‘사례’를 ‘사래’로 쓰듯이 ‘ㅔ’를 ‘ㅐ’로 잘못 쓰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ㅐ’와 ‘ㅔ’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서로 혼동하는 것은 자주 쓰지 않는 말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이런 실수는 개개인의 글에서만이 아니고 텔레비전의 자막이나 심지어 공문서에서도 나타난다.

‘ㅐ’와 ‘ㅔ’를 혼동하여 잘못 쓰는 것은 국어의 현실 발음에서 ‘ㅐ’와 ‘ㅔ’가 서로 구분되지 않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앞에서도 언급 했듯이 〈표준 발음법〉에서는 ‘ㅐ’와 ‘ㅔ’를 별개의 단모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두 개의 모음은 이미 대다수 국민들의 발음에서 더 이상 구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명확히 각인된 단어가 아니면 ‘ㅐ’가 맞는지 ‘ㅔ’가 맞는지 혼동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구별하지 못하는 단모음을 표기에서는 일일이 구분해 놓았으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전부 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ㅐ’와 ‘ㅔ’의 구분과 관련된 것으로 ‘되’와 ‘돼’의 표기 혼란을 들 수 있

다. 텔레비전 자막이나 각종 매체에서 ‘돼서’라고 써야 할 것을 ‘되서’로 쓰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표준 발음대로라면 ‘돼서’와 ‘되서’는 발음이 구별되기 때문에 발음 나는 대로 적기만 해도 이 둘을 혼동할 염려는 없다. 그러나 현실 발음에서는 단모음 ‘ㅚ’를 이중 모음 ‘ㅕ’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으며, 나아가 ‘ㅕ’와 ‘ㅕ’마저 구분하지 못해 ‘되’로 적든 ‘돼’로 적든 발음이 동일한 상황에 이르는 것이다.⁹⁾ 그래서 발음만으로는 ‘되’와 ‘돼’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

한편 관형격 조사 ‘의’를 부사격 조사 ‘에’로 잘못 적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 이를테면 ‘한국의 명소’를 ‘한국에 명소’라고 쓴다든지, ‘서울의 야경’을 ‘서울에 야경’이라고 쓰는 것이다. 이것은 이중 모음 ‘ㅚ’의 발음과 관련된다. 〈표준 발음법〉에서는 조사 ‘의’에 대해 [–]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ㅔ]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 발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사 ‘의’를 [ㅔ]로 발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라고 적어야 하는 부분을 ‘에’라고 적는 실수가 빈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핀 사례들은 모두 현실 발음에 영향을 받아 생긴 표기 실수에 해당한다. 그런데 드물지만 표준 발음의 영향을 받아 잘못된 표기 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성인들조차 ‘치읓이, 히읗이’ 등으로 써야 하는데 ‘치웃이, 히웃이’ 등으로 적는 경우가 적지 않다. ‘치읓이, 히읗이’는 원래 연음이 적용되면 ‘[치으치], [히으히]’라고 해야 하지만 〈표준 발음법〉에서는 ‘[치으시], [히으시]’를 표준 발음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⁰⁾ 그리고 이러한 발음을 쫓아서 ‘치웃이, 히웃이’로 잘못 적는 결과

9) 이중 모음인 ‘ㅚ’와 ‘ㅕ’의 차이는 ‘ㅚ’의 경우 ‘ㅔ’로 끝나지만 ‘ㅕ’의 경우 ‘ㅐ’로 끝난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ㅐ’와 ‘ㅔ’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ㅚ’와 ‘ㅕ’도 구분하지 못한다. 마찬가지 이유 때문에 ‘ㅔ’와 ‘ㅐ’도 구분할 수 없다.

를 넣게 되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발음은 표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그래서 잘못된 발음이나 혼란스러운 발음을 하게 되면 표기 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드물기는 하지만 표준 발음을 따름으로써 생기는 표기 실수도 없지는 않다. 아무튼 국어에서는 발음과 표기를 서로 관련짓고 있기 때문에 표준 발음을 바꾸는 일은 단순한 발음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한글 맞춤법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 표준 발음을 현실 발음에 맞게 고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도 있다.

5. 나오며

이 글에서는 국어의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현실 발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이형 가운데 하나를 표준 발음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표준 발음은 현실 발음과 괴리가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언어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표기 오류 중에는 발음의 영향으로 생겨나는 것들이 적지 않음도 알 수 있었다.

과거에는 언어 사용의 다양성을 용인하기보다는 어느 한쪽으로 통일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인위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오히려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

10) 이처럼 연음에 대한 예외 규정은 ‘키읔이, 피읖이’ 등에도 적용된다. 1930년대에 간행된 학술지 『한글』 7권 8호에는 ‘키읔이, 피읖이, 히읗이’ 등의 발음에 대한 물음이 올라온 적이 있다. 당시 조선어학회 편집실에서는 본음을 밝혀 발음하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는 연음을 한다는 것이어서 현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히 사회의 다원화와 민주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런 경향이 더 거세어졌다. 최근 들어 복수 표준어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준 발음의 문제도 이런 측면을 무시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특히 표준 발음이 언어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그러하다. 물론 개별 단어 차원에서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것과 〈표준 발음법〉의 규정을 손질하여 복수 표준 발음을 인정하는 것은 동일한 무게감을 지니지는 않는다.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고, 너무 많은 복수 표준 발음을 허용할 경우 표준 발음의 존립에 대한 회의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비로소 변화하는 사회와 발음 현실에 맞는 〈표준 발음법〉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권인한(2000), 표준 발음, 『새국어생활』 10권 3호, 국립국어연구원, 153~160.
- 김봉국(2008), 음운론적 관점에서 본 '표준어 규정(제2부 표준 발음법)'의 문제점,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9권 1호, 원광대 인문학연구소, 151~174.
- 김선철(2004), 표준 발음법 분석과 대안, 『말소리』 50, 대한음성학회, 23~39.
- 민현식(1999),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 배주채(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 배주채(2006), 표준 발음법의 이상, 『어문연구』 34권 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69~92.
- 송철의(1993), 자음의 발음, 『새국어생활』 3권 1호, 국립국어연구원, 3~22.
- 송철의(1998), 표준 발음법, 『우리말 바로 알기』, 문화관광부, 61~81.
- 신승용(2003), 표준 발음의 실재와 표준 발음법 교육의 필요성-중등교육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1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97~116.
- 신지영(2006), 표준 발음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133~158.
- 이병근(1988), 표준 발음법 해설, 『표준어 규정 해설』, 국어연구소, 45~75.
- 이승재(1993), 모음의 발음, 『새국어생활』 3권 1호, 국립국어연구원, 23~38.
- 이진호(2009), 『국어 음운 교육 변천사』, 박이정.
- 이진호(2012), 『한국어의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 아카넷.
- 이현복(1989), 『한국어의 표준발음』, 교육과학사.
- 이호영(2000), 서울말과 표준 발음법, 『서울말 연구』 1, 박이정, 177~203.
- 최명옥(2004), 『국어 음운론』, 태학사.
- 최호철(2002), 남북한 통일 표준 발음법 시안,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국학자료원, 101~118.

국어 교육과 발음

김봉국

부산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특집

1. 들어가며

생물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를 거듭한다. 우리의 눈에 움직임이 없거나 변화 없이 고정된 듯 보이는 것들도 실상 그 속내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거침없는 움직임을 지향하며 변화해 간다.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만들어진 얼음은 봄이 되면 그대로 얼음으로 남아 있는 듯 보이지만 얼음 속에서는 벌써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바쁘다.

언어 또한 생물과 같아서 현재 상태에서 변화를 쉽게 느낄 수 있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언어 중 문자로 이루어진 표기는 고정되어 있어 표기에서는 변화를 감지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음성 또는 발음은 이미 변화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닭’의 표기와 표준 발음, 그리고 현실 발음은 [표 1]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닭’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한다면 ‘닭#’, 닭이, 닭을, 닭에, 닭으로’처럼 될 것이고, 표준 발음으로는 ‘[닭], [달기], [달글], [달게], [달그로]’가 된다. 하지만 표기 속에 감추어진 현실 발음을 고려한다면 ‘[닭#,

[표 1] '닭'의 표기와 발음

조사 표기, 발음	#1)	-이	-을	-에	-으로
실제 표기	닭	닭이	닭을	닭에	닭으로
표준 발음	닥	달기	달글	달게	달그로
현실 발음	닥	다기	다글	다게	다그로

[다기], [다글], [다게], [다그로]처럼 될 것이다. 즉 표기상으로는 기본형이 '닭'이지만 현실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본형은 이미 '닥'이라고 해야 한다. 드러난 표기에서는 기본형이 '닭'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문자로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표기 속에 감추어진 발음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기본형은 '닥'으로 변화가 이미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드러난 표기의 현실과 감추어진 발음의 현실이 갖는 괴리는 곧바로 국어 교육, 특히 발음 교육에서 어려움을 동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글은 국어 교육의 현장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표기와 표준 발음, 그리고 현실 발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대안을 발음 교육에 초점을 맞춰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표준국어대사전》과 <표준 발음법>

국어 교육의 현장에서는 현실 발음보다는 표준 발음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표준 발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알 필요가

1) #은 조사 결합 없이 단독으로 쓰이는 환경임을 말한다.

있다. 언중이 발음을 확인하고자 할 때 먼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표준국어대사전》이나 〈표준 발음법〉이다.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의 발음 정보나 〈표준 발음법〉의 규정이 표준 발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발음 정보가 미세한 음운론적인 환경까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언중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뿐더러, 〈표준 발음법〉의 규정 또한 현장 교사들이나 일반인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다.

언어 사용자들이 발음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표준국어대사전》이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의 발음 정보가 과연 수요자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전의 발음 정보와 관련하여 먼저 표제어 ‘맑다’를 찾으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맑다01 [막따]

활용 정보: 맑아, 맑으니, 맑고(말꼬), 맑지(막찌)

국어의 한 특징으로 조사와 어미가 발달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한다면 활용 정보와 발음 정보가 너무 간략하게 제시된 듯하다. 즉 ‘맑다, 맑고, 맑지’에 대한 활용 정보와 발음 정보만 제시되어 있어서, ‘맑니, 맑소’와 같이 자음으로 끝나는 어미가 결합한 활용 정보와 발음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런 점 때문에 《표준국어대사전》의 부족한 발음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표준 발음 사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표준 발음법〉은 전반적인 체계와 원리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구체적이고 미세한 발음 정보들은 ‘표준 발음 사전’에서 제시하

여 준다면 언어 사용자들의 발음 정보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표준 발음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표준 발음법〉의 규정에 대한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일선 학교 교사들은 〈표준 발음법〉에 대한 규정을 알고는 있다.²⁾ 그러나 규정 자체가 사례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규정에 있는 표준 발음 사례가 체계적이지 않아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몇 가지 있다. 겹받침의 발음, ‘명사 + 호격 조사’의 발음, 음의 길이, 단모음 ‘뇌, 귀’ 발음 등이 그것이다.

3. 겹받침의 발음

겹받침과 관련된 표준 발음은 특히 논란거리가 된다. 겹받침의 발음은 지역 방언마다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표준 발음이 현실 발음과는 많은 괴리를 보인다.

제11항 겹받침 ‘ㄻ, ㄻ, ㄻ’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닭[닭] 흙꽈[흑꽈] 맑다[막따] 늙지[늑찌] 삶[삼:]

젊다[젊:따] 읊고[읍꼬] 읊다[읍따]

2) 일부 초등학교 교사들은 이 규정이 있는지 모르거나, 알아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맑게[맑게] 물고[물꼬] 얹거네[얼이거네]

이 규정 중 ‘ㄹ’만 고려한다면 용언의 어간 끝소리가 ‘ㄹ’일 때 어미의 두음 ‘ㄱ’ 앞에서 ‘ㄱ’이 탈락하고, 그 외의 환경에서는 ‘ㄹ’ 중 ‘ㄹ’이 탈락한다. 이 규정을 표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그런데 [표 2]에 제시된 것과는 달리 현실 발음에서 보이는 ‘ㄹ’의 탈락 현상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다. 용언 어간의 끝소리가 겹받침이면 뒤따라오는 어미의 두음에 따라 탈락하는 자음이 다르다는 규정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쉽지 않다. 국어에서 어간 끝소리가 겹받침일 때 뒤따라오는 자음이 오는 경우 하나의 자음이 떨어진다는 규칙(자음군 단순화 규칙)이 있지만, 왜 ‘맑고’의 경우에만 탈락하는 자음이 ‘ㄱ’인지 학습자에게 이해시키기 쉽지 않다. 물론 현실 발음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궁색하게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표 2]에서 제시된 표준 발음이 모두 현실 발음이라고 언중이 인식할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이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표준 발음이 현실 발음과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식의 학습 외에는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이 달리 없는 점도 겹받침과 관련된 표준 발음이 안고 있는 숙제로 보인다.

[표 2] 겹받침 ‘ㄹ’의 발음

범주	체언					용언				
	닭					맑-				
단어	닭#	닭과	닭도	닭만	닭조차	맑고	맑다	맑지	맑니	맑소
표기	닭#	닭과	닭도	닭만	닭조차	맑고	맑다	맑지	맑니	맑소
표준 발음	닥	닭꽈	닭또	당만	닭쪼차	말꼬	막따	막찌	망니	막쏘
탈락 자음	ㄹ	ㄹ	ㄹ	ㄹ	ㄹ	ㄱ	ㄹ	ㄹ	ㄹ	ㄹ

표준 발음이 현실 발음과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교육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겹받침 중 탈락하는 자음을 어느 한쪽으로 통일하는 방법, 아니면 어느 쪽이 탈락하든 상관없이 둘 다 인정하여 복수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복수 표준 발음을 인정하는 방법이 있다. 겹받침 중 탈락하는 자음을 어느 한쪽 방향으로 통일시키는 방안이나 어느 자음이 탈락하든 둘 다 인정하는 방안은 실제 언어생활에서 의미 전달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며 의사소통에도 큰 불편이 없어 보인다. 교육적인 관점에서는 학생들에게 겹받침 중 탈락하는 자음을 어느 한쪽 방향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가르치기 쉬울 수 있겠지만, 방언에 따라 탈락하는 자음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떤 형태로든 현실 발음과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 발음과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복수 표준 발음을 허용하는 방향일 것이다.

4. ‘명사 + 호객 조사’의 발음

표준 발음과 관련하여 현실 발음과 괴리를 많이 보여서 발음 교육을 어렵게 하는 사례 중에는 ‘명사 + 호객 조사’의 결합을 들 수 있다. 요즘에는 고유어로 된 이름을³⁾ 흔히 볼 수 있는데 ‘풀잎, 한빛’ 등이 그 예이

3) ‘김풀잎’이나 ‘이한빛’과 같은 인명을 흔히 ‘한글 이름’이라고 한다. ‘한글 이름’은 한글로 표기된 이름인데, ‘풀잎, 한빛, 로버트’ 모두 한글로 표기되었으므로 한글 이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언중은 한글 이름이라고 했을 때 ‘풀잎, 한빛’ 등을 떠올리지 ‘로버트’를 떠올리지는 않는다. 그 말은 언중이 인식하는 ‘한글 이름’은 결국 ‘고유어로 된 이름’을 의미하므로 ‘한글 이름’이라는 잘못된 표현보다는 ‘고유어 이름’이라는 적확한 표현을 쓸 필요가 있다.

다. 교육 현장에서 ‘명사 + 호격 조사’의 발음을 지도할 때, 어간 끝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뒤 음절로 넘어가는 연음 현상 때문에 ‘풀잎, 한빛’이라는 이름은 표준 발음으로 ‘풀잎애풀리파’ 또는 ‘한빛애한비채’라고 지도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발음하면 학습자들이 굉장히 어색해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경우를 종종 접하곤 한다. 학습자들은 오히려 ‘풀잎애플리비’나 ‘한빛애한비대’가 더 자연스럽다는 견해를 보이는데, 이러한 학습자의 인식과 태도는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의 괴리를 그대로 보여 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를 일반화하면 거센소리인 ‘ㅋ,ㅌ,ㅍ,ㅊ’ 등이 어간 끝소리로 와서 호격 조사와 결합할 때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에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 이름 외에는 호격 조사와 명사가 결합하는 예가 많지 않고, 특히 사람 이름은 끝소리가 거센소리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괴리는 익숙하지 않은 발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학 작품 속에서도 사물을 의인화하여 부를 때 ‘명사 + 호격 조사’의 발음이 등장하기도 한다. ‘풀밭, 풀꽃’ 등을 의인화하여 부른다고 했을 때 교사가 이를 표준 발음인 ‘풀밭애풀바타’, 풀꽃애풀꼬채’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학생들이 웃거나 어색하게 생각할 것이다. 물론 이 어색함은 현실 발음에서 거의 쓰지 않고 작품에서만 실현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표준 발음이 작품 속에서 이 어휘가 지니는 고유한 맛과 느낌을 제대로 보여 주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명사 + 호격 조사’의 발음은 이전 표준 발음법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여지가 없었던 예이지만 현실 언어에서 그 쓰임새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라도 표준 발음을 예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실 발음을 존중하여 복수 표준 발음을 인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듯하다.

앞선 겹받침의 탈락은 의사소통에 큰 지장을 주지 않지만, ‘명사 + 호격 조사’의 발음은 훨씬 더 의사소통을 어색하게 만들며, 특히 문학 작품 속에서 ‘명사 + 호격 조사’를 발음할 때는 어휘가 갖는 맛과 느낌 그리고 문맥적인 의미를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 표준 발음의 허용이라는 유연한 자세가 더 요구된다.

5. 음의 길이

국어의 발음 교육에서 어려운 영역 중 하나가 장단음 문제이다. 현대 한국어의 방언을 고려하면 크게 음의 길이로 뜻이 구별되는 지역(음장 방언)과 음의 높낮이로 뜻이 구별되는 지역(성조 방언)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표준 발음법〉에서는 음의 길이만 인정하고 음의 높낮이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현실 발음에서는 음의 길이로 단어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점은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경상도나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는 음의 높낮이가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의 길이를 지도하는 것은 방언의 특성과 현실 발음을 고려하지 않은, 거의 무의미한 일처럼 느껴진다. 이런 지역의 학습자에게 음의 길이에 대해 지도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며, 지도한다고 해도 학습자에게는 단순 암기식 학습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암기한다고 해도 휘발성이 있어서 학습자는 금방 잊게 되므로 발음 교육에 의미를 두기도 어렵다.

이 점은 음의 길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표준 발음법〉의 규정과는 달리 현실 발음에서는 음의 길이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 길이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국어 역사의 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음의 길이로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언증이 많지 않고, 대부분은 장단이 좀 잘못되어도 문맥으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음의 길이는 중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 그리고 교육 관점에서도 음의 길이에 대한 지도는 단순 암기식 위주의 지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므로 의미가 거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표준 발음법〉에서 음의 길이에 대한 규정이 국어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니만큼 규정상으로는 언급을 하되 현실 발음의 실태를 보여 주고, 세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표준 발음 사전’으로 제공하면 된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는 규정을 너무 앞세워 맞고 틀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음의 길이가 국어 역사의 한 단면이고, 국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임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6. 단모음 ‘ㅚ, ㅟ’ 발음

〈표준 발음법〉 제4항에서는 단모음과 ‘ㅚ, ㅟ’의 발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4항 ‘ㅏ ㅓ ㅓ ㅓ ㅗ ㅚ ㅜ ㅟ ㅡ ㅡ’는 단모음(單母音)으로 발음한다.

[불임] ‘ㅚ, ㅟ’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표준 발음에서는 ‘ㅚ, ㅟ’를 단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뇌, 귀’가 단모음으로도, 이중 모음으로도 발음된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실제 언어 현실에서는 일부 방언권의 노년층 화자에게서만 단모음 ‘뇌, 귀’가 발음되며, 그 외에는 대부분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이러한 언어 현실로 ‘뇌, 귀’에 대한 발음 교육을 받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발음을 지도하는 교사들조차도 단모음 ‘뇌, 귀’를 들어 본 적이 없거나, 발음해 본 적이 없어서 단모음 ‘뇌, 귀’의 발음을 어려워한다. 따라서 표준 발음에서 ‘뇌, 귀’를 단모음이나 이중 모음으로 모두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중 모음으로만 인정해도 될 듯하다. 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뇌, 귀’의 구체적인 음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표준 발음을 정확히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귀’를 보자. 서울말에서 ‘귀’는 단모음 [ü]로 발음되기도 하지만 이중 모음 [wi]와 [ui]로 발음되기도 한다. 이희승(1955)에서는 단모음 [ü]와 이중 모음 [ui]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들이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이현복(1985)에서는 ‘뉘, 뒤, 귀, 쉬, 쥐, 휘다’와 같이 자음에 후행하는 ‘귀’는 [ui]로 발음되고, ‘위, 위장’과 같이 어두 음절의 초성이 없는 경우에는 ‘귀’가 [wi]로 발음되며, ‘들쥐, 날뛰다, 따귀’에서는 드물게 [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동일한 서울말에 대해서도 ‘귀’는 음운론적인 환경에 따라서 단모음 외에도 이중 모음 [ui] 또는 [wi]로 발음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개별 방언인 충청 방언에서는 ‘귀’가 하향 이중 모음 [uy]로 발음되기도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귀’는 국어에서 [ü], [wi], [ui], [uy]’의 네 가지 음가를 가진다.

이렇게 다양한 음가를 가짐에도 〈표준 발음법〉에서는 ‘귀’가 단모음 또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될 수 있다는 규정만 있다. 따라서 ‘귀’의 표준 발음을 명시하되 첫째, 〈표준 발음법〉에서 음성형을 정확히 명시하는

방안이 있고 둘째, 〈표준 발음법〉에서는 ‘귀’가 이중 모음으로 발음된다는 점만 명시하고, ‘표준 발음 사전’에서 ‘귀’의 음성형 중 [wi], [ui], [uy] 등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정밀하게 명시하는 방안이 있다.

특집

7. 나오며

국어 교육에서 발음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발음 교육이 국어 교육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발음 교육의 현장은 끊이지 않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 이유는 드러난 표기와 표준 발음, 그리고 그 속에 흐르는 현실 발음의 괴리 때문이다. 규정이 있으되 그 규정이 반영된 표준 발음이 현실 발음과 동떨어져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규정이 현실 발음을 오히려 규제하고 얹매게 한다고 인식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 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이 둘의 관계가 아주 멀리 있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겹받침의 발음, ‘명사 + 호격 조사’의 발음, 음의 길이, 단모음 ‘뇌, 귀’ 발음의 문제는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서로 먼 곳에 자리 잡은 예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준 발음법〉의 체제를 재정비하고 이를 보완해 줄 ‘표준 발음 사전’의 편찬이 필요하다. 아울러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복수 표준 발음을 허용하는 방안도 이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참고문헌

- 김봉국(2008), 음운론적 관점에서 본 [표준어 규정(제2부 표준 발음법)]의 문제점,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9권 1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김성규(2012), 『표준 발음법 영향 평가』, 국립국어원.
- 이승왕(2007), 체언 어간말 격음 ㅌ,ㅊ의 실현양상과 지도방안,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복(1985), 모음 /위/의 소리값, 『말소리』 9권 10호, 대한음성학회.
- 이희승(1955), 『국어학개설』, 민중서관.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방안

전나영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교수

특집

1. 의사소통 능력과 발음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제2언어나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영역을 한국어 교육이라고 한다.¹⁾ 한국인, 즉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교육과 비교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은 교육 목표나 교육 내용, 교육 방법에서 국어 교육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에게 말을 잘한다는 평가를 할 때의 의미와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잘한다고 평가할 때의 의미는 다르다.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모든 언어 교육의 목표가 그렇듯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언어로 하는 의사소통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기능으로 실현되는데, 의사소통의 대부분은 음성 언어로²⁾ 실현되는 말하기와 듣기 기능으로 이루어진다. 일반 목적으로³⁾

1) 제2언어로서 한국어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처럼 한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환경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이며, 외국어로서 한국어는 한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환경이 아닌 국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이다.

2)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기능에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가 있으며, 이 중에서 쓰기와 읽기는 문자 언어로, 말하기와 듣기는 음성 언어로 이루어진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도 의사소통에서 말하기와 듣기 기능의 비중이 높은데, 특히 저급 학습자는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말하기와 듣기로 수행된다. 그러므로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로 말하고 들으려는 욕구가 높다. 한국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고 한국어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학습자는 자신의 한국어 능력에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낀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듣기에 비해 말하기를 부담스러워한다. 말하기는 학습자가 생산해야 하는 기능이고 듣기는 이해해야 하는 영역이므로 듣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말하기를 어렵게 느끼는 것이다.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은 언어적으로는 어휘력과 문법 능력에 따라 평가된다. 그러나 발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 학습자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에 대한 평가는 크게 차이가 난다. 아무리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문법을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발음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발음이라면 결코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없다. ‘신촌’으로 가자고 했는데 ‘시청’으로 간 택시 기사의 이야기나 ‘집안일이 많다’는 한국어 학습자의 말을 [지 바이리]로 들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한국 사람의 이야기는 한국어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실패한 예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자신의 발음을 한국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여러 번 되풀이해서 말을 해야 할 때 심한 좌절감을 느끼고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자신감을 잃는다.

3)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일반 목적 한국어 학습자와 특수 목적 한국어 학습자로 나뉜다. 특수 목적의 학습자는 한국에서 유학을 하려는 학문 목적 학습자와 한국 관련 회사에 취업을 하려는 직업 목적 학습자 등으로 나뉜다.

한국어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학습자는 말하기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기능 전반에 걸쳐 문제를 보인다. 한국어를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는 학습자는 대개 쓰기에서도 오류를 범한다. 어휘를 쓸 때 ‘공부’를 ‘곤부’로 잘못 쓰는 경우, ‘동생’을 [도새]와 같이 받침이 없는 것처럼 발음하면서 ‘도새가 있어요’와 같이 조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할까요’를 ‘하까요’와 같이 자신이 발음하는 대로 어미를 활용하는 경우 등은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하는 맞춤법 오류의 예이다. 또한 말할 때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는 학습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인지하는 능력도 뒤떨어지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뿐만 아니라 발음이 부정확한 학습자는 읽기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낭독할 때 발음에 오류가 있으면 읽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묵독을 할 때도 자신의 발음과 읽는 자료의 맞춤법이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 스스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처럼 발음의 문제는 말하기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모든 기능과 관련이 있으며,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

2. 교육 현장의 발음 교육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를 인지하고 이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의 문제는 한국어 교사들에게 무거운 숙제임이 틀림 없다.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발음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발음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한국어 숙달도별 발음 교육의 방법은 무엇인가 등 많은 과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

러나 교육 과정이나 교재 등에서 발음 교육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어 교육용 교재에서 발음을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학습자들이 한글을 배우는 단계에서 모음, 자음의 글자와 소리를 함께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현재 대학 소속의 한국어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출판되어 있는 통합 교재의 대부분은 의사소통 상황이나 주제, 기능에 따라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⁴⁾ 이러한 교재를 사용하는 수업은 대화 연습, 어휘 연습, 문법 연습, 기능별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발음 교육을 위한 별도의 시간을 계획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기능별 교재가 따로 출판되어 있는 기관은 읽기 기능 교재에 발음 교육 부분을 넣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은 초급 교재에 한하며 중급 이상의 교재에는 발음 교육 부분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림 1] 한국어 교재의 발음 연습 사례(초급 1)

읽어 봅시다[CD1 : 49]

- | | |
|--------------|-----------------------|
| • 맘형[마령] | 저는 맘형이어서 동생들을 잘 돋습니다. |
| • 깨끗하고[깨끄타고] | 이 식당은 깨끗하고 음식도 맛있습니다. |
| • 꽂하고[꼬타고] | 공원에는 꽂하고 나무가 많습니다. |
| • 좋다[조타] | 나는 한국 음식이 좋다. |
| • 싫대[실타] | 나는 매운 음식이 싫다. |

출처: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2007), 『연세한국어읽기1』, 연세대학교 출판부, 75쪽.

4) 예를 들면 『연세한국어1』(2007)의 경우 주제가 '날씨와 계절'이라면 '계절에 대해서 말하기, 오늘의 날씨 말하기, 날씨 비교해서 말하기, 계절 활동 소개하기'와 같은 기능을 중심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한국어 교재의 발음 연습 사례(초급 2)

읽어 봅시다[CD : 28]

거센 소리 4 / ㅎ / + / ㅈ / ⇒ / ㅊ /

- 많지[만치], 않지만[안치만] 차린 것은 많지 않지만 많이 드세요.
- 좋지[조치] 기분이 좋지 않은 리애를 보면 미안해집니다.
- 놓지[노치] 여기에 뜨거운 것을 놓지 마세요.
- 하얗지요[하야치요] 미선 씨는 피부가 참 하얗지요?
- 깊지요[실치요] 여러분은 시험이 깊지요?

특집

출처: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2010), 『연세한국어읽기2』, 연세대학교 출판부, 71쪽.

한국어 학습자들의 발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교사가 인지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학습자의 발음이 한국어 모국어 화자와 다르고 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지만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과제이다. 교사들은 직관적으로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찾을 수는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언어학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잘못된 발음을 지적하고 교사의 모범 발음을 따라 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교정하기 어렵다. 교사는 단순한 반복 연습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오류의 원인을 설명하고 오류 유형에 따라서 효과적인 연습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3. 학습자 발음 오류와 발음 교육의 내용

3.1. 모음

한국어 모음은 조음부의 위치, 입술의 모양,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⁵⁾ 분화된다. 단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ㅔ, ㅐ, ㅟ’의 분화 조건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허웅 1985:220).

[표 1] 한국어 단모음과 분화 조건

조음부 위치	혀의 앞		혀의 뒤	
입술의 모양	안 등근 소리	등근 소리	안 등근 소리	등근 소리
혀의 높낮이 높은 소리	ㅣ	ㅟ	ㅡ	ㅜ
중간 소리	ㅔ	ㅚ	ㅓ	ㅗ
낮은 소리	ㅐ		ㅏ	

학습자는 한국어 모음이 어떤 조건에서 분화되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발음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ㅏ’는 입술을 평평하게 하고 입을 벌려서 혀의 위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하고 혀의 뒤쪽에서 발음해야 한다. ‘ㅟ’는 입술을 동그랗게 한 상태에서 혀를 입천장 쪽으로 높이고 혀의

5) 입술의 모양은 입술을 동그랗게 하느냐 평평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등근 소리(원순음)와 안 등근 소리(평순음)로 나뉜다. 혀의 높낮이는 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입천장 쪽으로 높아지느냐 아래쪽으로 낮아지느냐에 따라 높은 소리(고모음), 중간 소리(중모음), 낮은 소리(저모음)로 분화된다. 조음부의 위치는 모음을 발음할 때 소리가 혀의 앞쪽에서 만들어지는지 뒤쪽에서 만들어지는지에 따라 앞에서 나는 소리(전설모음)와 뒤에서 나는 소리(후설모음)로 나뉜다.

앞쪽에서 발음해야 한다.

학습자가 모음의 분화 조건을 정확하게 지켜서 발음하지 못하면 잘못된 발음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학습자들의 모음 발음 오류를 살펴보면 이들 분화 조건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아서 다른 모음에 가깝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ㅏ’를 발음해야 하는데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서 중간 소리인 ‘ㅓ’에 가깝게 발음하거나, ‘ㅓ’를 발음할 때 입술을 평평하게 하지 않고 동그랗게 오므려 등근 소리인 ‘ㅗ’에 가깝게 잘못 발음한다. 혀의 뒤쪽에서 발음해야 하는 ‘ㅡ’를 앞쪽에서 발음하면 ‘ㅣ’처럼 들린다.

이러한 오류는 모음의 세 가지 분화 조건 중에서 두 가지는 공통적이 고 한 가지가 차이가 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두 모음의 조건이 크게 달라서 서로 확연히 차이를 보이는 모음보다는 두 모음이 비슷한 조건일 때 학습자가 혼동해서 잘못 발음하기 쉽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ㅓ’와 ‘ㅗ’는 모두 혀의 높낮이로는 중간 소리이며 혀의 뒤쪽에서 발음해야 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입술의 모양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한 가지 조건에서 차이를 보이는 모음을 발음할 때 교사와 학습자 모두 두 소리의 차이를 명확하게 발음해야 한다.

입술의 모양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로는 ‘거울[고울], 걱정[곡종], 공부[경부], 일본[일번], 그림[구림], 흐림[후리], 국제[극제], 축구[측구], 귀고리[기거리], 최선[체선]’과 같은 예가 있다. ‘ㅓ’와 ‘ㅗ’는 모두 중간 소리이며 혀의 뒤쪽에서 소리가 나지만 ‘ㅓ’는 안 등근 소리이고 ‘ㅗ’는 등근 소리이다. ‘ㅡ’와 ‘ㅓ’는 모두 높은 소리이며 혀의 뒤쪽에서 소리가 나지만 ‘ㅡ’는 안 등근 소리이고 ‘ㅓ’는 등근 소리이다. ‘ㅣ’와 ‘귀’, ‘ㅔ’와 ‘ㅚ’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발음하지 못하는 오류도 입술의 모양을 분명하게 해서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혀의 높낮이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로는 ‘나무[너무],

[표 2] 한국어 단모음 연습

연습 분화 조건	모음 연습		단어 연습	
입술의 모양	어/오	오/어	거기/고기	저금/조금
	으/우	우/으	그림/구름	쓰다/쑤다
	이/위	위/이	시다/쉬다	기린/귀리
	에/외	외/에	세다/쇠다	체면/최면
혀의 높낮이	아/어/으	으/어/아	나무/너무	마리/머리
	아/애/애/이	아/애/애/아	매주/메주	새우다/세우다
	오/우	우/오	오리/우리	호주/후추
	외/위	위/외	쇠다/쉬다	외박/위반
조음부 위치	아/으	으/이	기름/그림	흐리다/흐르다

더럽다드름다], 그러면[그르믄]과 같은 예가 있다. ‘ㅏ’와 ‘ㅓ’는 모두 안 등근 소리이고 혀의 뒤쪽에서 소리가 나지만 ‘ㅏ’는 입을 벌려서 혀의 위치가 낮은 소리이고 ‘ㅓ’는 혀의 위치가 입천장 쪽으로 올라간 중간 소리이다. ‘ㅓ’와 ‘ㅡ’는 모두 안 등근 소리이고 혀의 뒤쪽에서 소리가 나지만 ‘ㅓ’는 혀의 위치가 중간 소리이고 ‘ㅡ’는 혀의 위치가 입천장 쪽으로 올라간 높은 소리이다. ‘ㅔ’와 ‘ㅐ’, ‘ㅚ’와 ‘ㅟ’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발음하지 못하는 오류도 혀의 높낮이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생긴다.

조음부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로는 ‘음식[임식], 은행[인행]’과 같은 예가 있다. ‘ㅡ’와 ‘ㅣ’는 모두 안 등근 소리이고 혀의 위치가 입천장 쪽으로 올라간 높은 소리이지만 ‘ㅡ’는 혀의 뒤쪽에서 소리가 나오고 ‘ㅣ’는 혀의 앞쪽에서 소리가 난다. 혀의 뒤쪽에서 발음해야 하는 ‘ㅡ’를 혀의 앞쪽에서 발음하게 되면 ‘ㅣ’와 구분이 되지 않고 부정확한 발음이 되는 것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모음의 발음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각 모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모음

의 분화 조건에 따라 그 차이를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먼저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는 안 등근 소리와 등근 소리를 대립시켜 연습하고,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는 높은 소리, 중간 소리, 낮은 소리를 대립시켜서 연습해야 한다. 그리고 조음부의 위치에 따라서는 혀 앞쪽 소리와 혀 뒤쪽 소리를 대립시켜서 연습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한국어 모음은 입술의 모양, 혀의 높낮이, 조음부의 위치 등 모음이 분화되는 조건을 명확하게 지켜서 발음할 때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3.2. 자음

한국어 자음은 소리 내는 자리, 소리 내는 방법, 소리 내는 힘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진다.⁶⁾ 이러한 분화 조건을 제시하면 [표 3]과 같다(허옹 1985:223~224).

한국어 자음은 분화 조건에 따라서 19개로 나뉘며 이러한 분화 조건을 지켜서 발음할 때 의사소통에 혼동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면 ‘ㅂ’은 두 입술을 붙였다 떼면서 공기를 터뜨려서 발음해야 하고, ‘ㄷ’은 혀끝을 잇몸 뒤쪽에 붙였다가 떼면서 공기를 터뜨려서 발음해야 한다. ‘ㄱ’은 혀뿌리를 입천장에 붙였다가 떼면서 공기를 터뜨려서 발음해야 하고, ‘ㄴ’은 혀끝을 잇몸 뒤쪽에 붙였다가 코를 옮기면서 발음해야 한다. 교사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각각의 자음이 갖는 조건을 명확하게 인

6) 소리 내는 자리는 자음을 발음하는 위치에 따라서 두 입술소리(양순음), 잇몸소리(치조음), 입천장소리(구개음), 목청소리(성문음)로 나뉜다. 소리 내는 방법은 자음을 발음할 때 공기를 내보내는 방법에 따라서 터짐소리(파열음), 불같이소리(파찰음), 갈이소리(마찰음), 콧소리(비음), 흐름소리(유음)로 나뉜다. 소리 내는 힘은 자음을 발음할 때 내보내는 공기의 세기에 따라서 예사소리(평음), 된소리(경음), 거센소리(격음)로 나뉜다.

[표 3] 한국어 자음과 분화 조건

방법	힘	자리	입술소리	잇몸소리	입천장소리	목청소리
터짐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		
붙같이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ㅈ ㅉ ㅊ	
같이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ㅅ ㅆ			ㅎ
콧소리		ㅁ	ㄴ	ㅇ		
흐름소리			ㄹ			

지시키고 이러한 조건을 지켜서 발음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습자가 자음의 분화 조건을 지켜서 발음하지 못하면 잘못된 발음이 되고 이로써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다. 학습자들의 자음 발음 오류는 자음의 분화 조건 가운데 다른 조건은 같고 한 가지 조건이 다른 경우, 즉 공통점이 많은 자음 사이에서 발생한다.

첫소리로 쓰인 자음에서 잘못 발음하는 경우는 소리 내는 자리가 같고 소리 내는 방법이 달라 다른 소리로 분화되는 ‘ㄷ’과 ‘ㄹ’, ‘ㅅ’과 ‘ㅈ’이 있다. ‘바다’를 [바라]에 가깝게 혀를 굴려서 발음하는 오류가 그 예로, 이는 ‘ㄷ’을 발음할 때 혀끝을 잇몸 뒤쪽에 붙였다가 터뜨리면서 발음해야 한다는 것을 학습자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다’를 [지다]에 가깝게 혀바닥을 입천장에 붙여서 발음하는 오류는 ‘ㅅ’을 발음할 때 혀바닥과 입천장 사이를 좁혀서 마찰하여 발음하지 않고 혀바닥을 입천장에 붙였다가 떼면서 발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소리 내는 자리와 소리 내는 방법은 같지만 소리 내는 힘에서 차이

를 보이는 예사소리와 된소리, 거센소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잘못 발음하는 오류의 예는 아주 흔하다. 한국어 학습자들 중에는 ‘비다’와 ‘뼈다’와 ‘피다’를 구별해서 발음하지 못하고, ‘대다’와 ‘때다’, ‘따다’와 ‘타다’를 구별해서 발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다’와 ‘까다’, ‘사다’와 ‘싸다’, ‘지다’와 ‘찌다’와 ‘치다’를 정확하게 발음하기 어려워한다. 이들 자음은 소리 내는 힘으로 분화되지만 발음할 때 나오는 공기 힘의 차이를 학습자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는 것이다.

받침소리로 쓰인 자음은 첫소리로 쓰인 자음보다 오류의 예가 많다. 소리 내는 방법과 소리 내는 힘에서는 같지만 소리 내는 자리만 다른 ‘ㅂ, ㄷ, ㄱ’과 ‘ㅁ, ㄴ, ㅇ’은 다양한 오류를 보인다. 이는 각 자음의 소리 내는 자리를 정확하게 지켜서 발음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입구’를 [익꺼]와 같이 발음하는 것은 두 입술을 붙여서 ‘ㅂ’을 발음해야 하는데, 두 입술을 붙이지 않고 공기를 터뜨려서 잘못 발음하기 때문이다. ‘복잡’을 [본쩝]과 같이 발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혀끝이 잇몸에 닿지 않아야 하는 ‘ㄱ’을 ‘ㄷ’과 같이 혀끝을 잇몸에 댔다가 터뜨리면서 발음하기 때문이다. ‘강남’을 [간남]과 같이 발음하는 경우, ‘감동’을 [간동]과 같이 발음하는 경우도 ‘ㅇ’과 ‘ㅁ’의 소리 내는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이다. ‘문법’을 [뭄뻬]으로 발음하거나 ‘음식’을 [은식]과 비슷하게 발음하는 것도 모두 소리 내는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이다.

받침소리를 발음하면서 생기는 또 하나의 오류는 터짐소리 자음 ‘ㅂ, ㄷ, ㄱ’으로 끝날 때 이를 터뜨려서 마치 음절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발음하는 것이다. ‘수박’을 [수바그], ‘수첩’을 [수처브]와 같이 발음하는 것은 받침소리로 끝날 때 이를 터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을 지키지 않고 음절의 첫소리에 쓰인 자음처럼 터뜨려서 발음하기 때문이다. ‘맵다’를 [맵

브대에 가깝게 발음하는 것도 터뜨리지 않아야 하는 받침소리를 터뜨려서 발음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자음 발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각의 자음이 갖고 있는 분화 조건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러한 조건을 지켜서 발음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자음들 중에서 두 개의 조건은 같고 한 개의 조건이 다른 자음을 묶어서 연습하면 효과적이다. 학습자가 자음을 사이의 차이를 좀 더 명시적으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 한국어 자음 연습

분화 조건 \ 연습	첫소리 연습		받침소리 연습	
소리 내는 자리	바/다/사/자/가 빠/띠/싸/짜/까 피/티/카 마/나/아	바다/사자 빼다/띠다 필/띠/칼 매다/내다	밥/발/박 입/밀/부엌 감/간/강	입다/잇다/잇다 입/밀/부엌 감기/간장/강릉
소리 내는 방법	바/마 다/나/라 가/아	병/명 두부/누구 국/궁	갑/감 싣다/싣다 국/궁	갑시다/감사 닫다/달다 약국/양궁
소리 내는 힘 ⁷⁾	바/빠/파 다/띠/타 가/끼/카	바다/파다 딜/띠/탈 개다/끼다		

7) 소리 내는 힘으로 분화되는 자음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ㅋ’은 받침소리로 쓰이면 ‘ㅂ’, ‘ㄷ’, ‘ㄱ’으로 소리가 같아지므로 받침소리 연습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즉 ‘씹다’와 ‘싫다’의 ‘ㅂ’과 ‘ㅍ’은 모두 [ㅂ]으로 소리 나며, ‘듣다’와 ‘불다’의 ‘ㄷ’과 ‘ㅌ’은 모두 [ㄷ]으로 소리 난다.

3.3. 억양과 음운 변동

한국어 학습자들의 발음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어색한 것은 모음과 자음을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억양이 한국어 화자와 다르거나 음운 변동 규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어의 억양은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 서술문이나 감탄문은 문장의 끝을 내리고 의문문은 문장의 끝을 올린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들 중에는 문장의 끝을 올리고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절마다 억양을 올려서 발음하기 때문에 어색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를 [제가／↑한번／↑해 보겠습니다／!]와 같이 한 어절이 끝날 때마다 끝을 올려서 발음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는 [／↑제가／↑한번 해／↑보겠습니다]와 같이 어절을 시작할 때 억양을 올려서 발음 함으로써 마치 어절 앞에 강세를 준 것처럼 발음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학습자 모국어의 영향인 경우가 많으며,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억양의 특징을 설명하고 문장 단위로 연습을 시켜야 한다.

한국어 발음을 교육할 때 모음과 자음의 개별 발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발음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외에도 특정한 환경에서 발음이 변하는 규칙을 제시하고 이를 지켜서 발음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쓰는 대로 발음하지 않고 다른 소리로 바꿔서 발음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동 규칙을 지켜서 발음할 때 유창한 한국어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먹었어요'를 [머거씨요]로 발음하지 않고 [먹깻씨요]나 [먹걷어요]와 같이 발음한다거나 '할일'을 [할릴]로 발음하지 않고 [하릴]로 발음한다면 듣기에 어색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도 비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을 모두 외우도록 지도하기는 어려우며 말하기나 읽기 시간에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한국어를 가르치

는 교사는 어떤 환경에서 특정 모음이나 자음이 다른 발음으로 변하는지에 대한 음운 변동 규칙을 학습자에게 명시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단어나 문장의 예를 제시해야 한다. 〈표준 발음법〉의 ‘제5장 음의 동화, 제6장 경음화, 제7장 음의 첨가’ 부분은 한국어 음운 변동 규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이를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발음 교육을 위한 제안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모음과 자음을 잘못 발음하는 것은 학습자 모국어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어 모음과 자음 자체의 분화 조건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어머니’를 [오모니]와 같이 발음하는 학습자가 ‘오늘’을 발음할 때는 [어늘]에 가깝게 발음한다. 이는 학습자가 ‘ㅏ’와 ‘ㅓ’를 발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입술을 평평하게 해서 발음해야 하고 언제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서 발음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신문’을 [심문]이라고 발음하는 학습자가 ‘강남’을 [간남]처럼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학습자도 혀끝을 윗잇몸에 붙여서 발음해야 하는 ‘ㄴ’과 두 입술을 붙여서 발음해야 하는 ‘ㅁ’을 발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러한 조건을 지켜서 발음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는 대개 학습자가 특정 모음과 자음을 발음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각 모음과 자음을 발음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는지 명시적으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어 교사가 한국어 발음에 대한 전문

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오류를 예측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어 모음과 자음의 체계 안에서 어느 모음과 어느 자음이 쉽게 혼동될 수 있는지 예측하고 교육한다면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운영되는 교육 과정에는 학습자들의 발음 교육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교사가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인지하더라도 이를 교육할 기회가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음 교육을 위한 내용을 교재에 실어 교사가 발음 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하거나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찾고 이를 교정할 수 있는 특화된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

발음은 학습 초기에 습관화되고 화석화되므로 한국어 학습 초기 단계에서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 개별 모음과 자음의 차이를 인지하여 이를 발음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나아가 음운 변동이나 억양에서 생기는 오류를 교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어 발음은 말하기를 비롯한 모든 의사소통 기능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발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확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지영 외(2007),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1995), 『한국어 발음』, 연세대학교 출판부.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2007), 『연세한국어 읽기 1』, 연세대학교 출판부.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2007), 『연세한국어 1』, 연세대학교 출판부.
- 전나영(2008),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문제와 교수 방법, 『문법연구』 8, 한국문
법교육학회, 249~276.
- 허용·김선정(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교육론』, 박이정.
- 허웅(1985), 『국어 음운학 - 우리말 소리의 오늘·어제 -』, 샘문화사.
- 국립국어원 표준 발음법 <http://www.korean.go.kr>

국어 발음 정책과 발음 교육의 방향

배주채

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특집

1. 머리말

현재 사람들이 국어 발음에서 가장 난감해하는 문제는 규범과 현실의 괴리이다. 〈표준 발음법〉과 국어사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 발음이 실제로 사람들이 쓰고 있는 현실 발음과 어긋날 때가 많다. 문제를 더 구체화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생각해 보자.

- (1) 무릎에 변화가 있는 건 맞대.
- (2) 표준 발음: [무르페 변:화가 인는건 말때]

2015년 현재 문장 (1)을 (2)와 같이 표준 발음대로 발음하는 사람이 5천만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1%나 될지 의문이다. ‘발음하는’을 ‘발음할 수 있는’으로 바꾼다 해도 그 비율은 여전히 낮을 것이다. 수도권에 오래 살고 있는 중앙어(中央語) 화자의 대표적인 현실 발음 중 한 가지는(3) 과 같으리라고 생각된다. 같은 발음을 국제음성기호와 한글로 적는다.

(3) 현실 발음: [murube pjʌnwaga innʌŋgʌm matt'e]

[무르베 벼뇌가 인능검 말떼]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이렇게 어긋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국어 발음 정책과 발음 교육의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2. 음소 체계의 차이와 어형의 차이

(1)에 대해 제시한 표준 발음 (2)와 현실 발음 (3)은 대체로 같지만 세부에서 몇 군데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음소 체계의 차이이고 하나는 어형(語形), 즉 단어 형태의 차이이다.

(4)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의 차이

① 음소 체계의 차이

② 어형의 차이: 기본형의 차이, 음운 현상의 차이

표준어에서 ‘맞대’와 ‘맞데’는 의미도 다르고 발음도 다르다. 발음의 유일한 차이는 모음 [ㅔ]와 [ㅐ]이다. [ㅔ]([e])는 [ㅐ]([ɛ])보다 혀가 더 높다. [ㅔ]와 [ㅐ]는 각각 음소(音素)이다. 표준어의 음소 체계에는 [ㅔ]와 [ㅐ]가 모두 존재한다.

현실어에서는 ‘ㅔ’와 ‘ㅐ’의 발음이 똑같다. 그 발음은 [e]와 [ɛ]의 중간이지만 [e]에 더 가깝다. 대체로 그 발음을 한글로는 [ㅔ]로, 국제음성기호로는 [e]로 적는다. 따라서 현실어의 음소 체계에 [ㅔ]는 있지만 [ㅐ]는 없다. (3)에서 ‘맞대’를 [맏떼]로 발음한 것은 표준어와 현실어의 음소

체계의 차이에 말미암은 것이다.

한편 표준 발음 [무르페]의 [ㅍ]과 현실 발음 [무르베]의 [ㅂ]의 차이는 어형의 차이이다. [ㅍ]과 [ㅂ] 둘 다 표준어와 현실어에 음소로 존재하기 때문에 음소 체계의 차이가 아니다. 명사 '무릎'의 기본형이 표준어에서 [무릎]인 데 비해 현실어에서 [무릅]이기 때문에 생긴 차이이다.

표준 발음 [변: 화]와 현실 발음 [벼뇨]에서 [ㅎ]이 있고 없는 차이도 어형의 차이이다. 현실어에서는 [ㄴ] 뒤의 초성 [ㅎ]이 잘 탈락한다. 이것은 초성 ㅎ 탈락이라 부르는 음운 현상이다. [ㅎ]도 표준어와 현실어에 똑같이 음소로 존재한다. 같은 음운 현상이 현실어에는 적용되고 표준어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어형이 달라진 것이다.

표준 발음 [인는건]과 현실 발음 [인능검]의 차이도 음운 현상의 적용 여부에 따른 어형의 차이이다. [ㄴ]이 [ㄱ] 앞에서 [ㅇ]으로, [ㅁ] 앞에서 [ㅁ]으로 바뀌는 조음위치동화(調音位置同化)가 현실어에서는 일어나고 표준어에서는 일어나지 않아 어형이 달라졌다.

표준어에서는 음장(音長)의 구별이 중요하다. 어두 음절의 장모음과 단모음이 단어를 구별한다. '밤낮'의 '밤'은 단모음의 [밤]이고 '밤송이'의 '밤'은 장모음의 [밤:]이다. 이 두 '밤'은 순전히 음장이라는 음성적 요소로 구별되므로 음장은 일종의 음소이다. 표준어의 음소 체계에는 음장이 있고 현실어의 음소 체계에는 없다. 결국 표준 발음 [변: 화]와 현실 발음 [벼뇨]의 음장 차이는 음소 체계의 차이이다.¹⁾

1) 음장(장단)은 초분절음(超分節音)에 속한다. 국어의 초분절음으로 성조(聲調)도 있다. 경상 방언에는 음장 대신 성조가 있어서 모음이 높게 발음되는 '말'은 동물이고 낮게 발음되는 '말'은 언어이다. 중앙어의 현실 발음에는 음장도 없고 성조도 없다. 즉 단어를 구별해 주는 음성적 요소로서 자음, 모음과 같은 분절음(分節音)만 있고 초분절음은 없다.

3. 발음 능력의 선천성

(3)을 발음하는 현실어 화자가 노력해서 표준 발음 (2)를 발음할 수 있을까? 현실어 화자가 [무르페]를 [무르베]로 교정하는 것은 쉽다. [벼 놈]를 [변:화]로, [인능검]을 [인는건]으로 교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맏떼]를 [맏때]로 고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아무리 노력해도 [맏]를 정확히 발음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자신의 음소 체계에 없는 모음을 정확히 발음하는 것은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벽이다.

음소 체계는 어린 시절에 확립된다. 그 시기를 지나면 음소 체계를 바꾸는 것이 어렵다. 성인이 되어 배우는 외국어의 발음이 어려운 이유가 그 때문이다. 우선 새로운 모음의 학습은 매우 어렵다. 한국인의 대부분은 영어 'dim, hit, slip' 등의 모음 [ɪ]의 발음을 끝내 익히지 못하고 만다. 새로운 자음의 학습도 경우에 따라 상당히 어렵다. 한국인이 영어 자음 [f]는 조금만 연습하면 쉽게 익히는 듯 보이나 [ð], [ʒ]는 연습을 거듭해도 대부분 정확히 발음하지 못한다. 또 한국어를 아주 잘하면서도 [ㄱ], [ㅋ], [ㅋ]을 잘 발음하지 못하는 중국인이나 [ㄴ]와 [ㅌ]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일본인이 드물지 않다.

소수의 사람들은 어릴 때 습득하지 못한 외국어의 모음과 자음을 성인이 된 후 배워서 발음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은 뛰어난 발음 능력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소수이다. 그들은 뛰어난 가창력을 타고났다. 발음 능력과 가창력의 선천성은 비슷하다.

결국 천부적 발음 능력을 지닌 소수를 제외하면 음소 체계의 차이는 극복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사람들에게 [ㄱ]과 [ㅋ]의 구별을 열심히 익히도록 권장하는 것은 성

공할 수 없는 정책이자 국력의 낭비가 될 것이다.

표기 능력도 발음 능력처럼 선천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글씨를 잘 쓰는 능력은 발음 능력처럼 선천적이다. 그러나 맞춤법에 맞게 글자를 잘 선택해 쓰는 것은 타고난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노력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맞춤법을 교육하고 보급하는 것은 분명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반면에 표준 발음을 교육하고 보급하는 것은 발음 능력의 선천성 때문에 끝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4. 발음 학습의 난도

뛰어난 발음 능력을 타고나지 않은 보통의 현실어 화자가 노력으로 해 현실 발음과 차이 나는 표준 발음을 쉬이 익힐 수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표 1]에서 ‘출현의 범위’는 그러한 음성적 요소가 나타나는 범위를 뜻한다. 분절음, 초분절음, 음운 현상은 모든 단어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데 반해 기본형은 해당 단어에만 개별적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표 1] 음성적 요소들의 특성 비교

음성적 요소		예	출현의 범위	교정 가능성	예측 가능성	학습의 난도
음소 체계	분절음	[ㅔ]와 [ㅐ]를 구별함	보편적	낮음	없음	높음
	초분절음	음장을 구별함	보편적	보통	없음	높음
어형	음운 현상	조음위치동화를 적용 안 함	보편적	높음	있음	낮음
	기본형	기본형 [무릎]을 [무릎]으로 바꿈	개별적	높음	없음	보통

[ㅔ]와 [ㅐ]의 구별은 이 두 모음을 가진 모든 단어와 관련되고, 음장의 구별은 모든 단어의 첫음절 모음과 관련되며, 조음위치동화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조음위치동화가 일어날 환경을 가진 모든 단어와 관련된다. 반면에 기본형 [무릎]을 [무릎]으로 바꾸어 발음하는 것은 ‘무릎’이라는 명사에만 해당되는 문제이다.

‘교정 가능성’은 현실어 화자가 주어진 단어를 표준 발음대로 발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뜻한다. 3장에서 본 바와 같이 모음이나 자음과 같은 분절음은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나 음장과 같은 초분절음은 분절음보다 교정하기가 쉽다. 또 음운 현상과 기본형은 어형만 바꾸어 발음하면 되므로 교정 가능성이 높다.

‘예측 가능성’은 현실어 화자가 발음을 바꾸어야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예측할 수 있느냐를 뜻한다. 현실어 화자는 어떤 단어의 모음이 현실 발음에서 [ㅔ]일 때 그것이 표준 발음에서 [ㅔ]일지 [ㅐ]일지를 예측할 수 없다. 물론 그 단어의 표준 표기를 알면 그것으로 발음을 예측할 수 있다. 표준 표기를 모른다면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정해야 한다. 학생들이 ‘ㅔ’와 ‘ㅐ’의 맞춤법을 자주 틀리는 것은 현실 발음에서 그 예측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음장의 구별도 예측할 수 없다. 음장은 표기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꼼꼼없이 예측 불가능이다. 예를 들어 첫음절이 장모음인 단어와 단모음인 단어를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음장 구별에 관한 시험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다. 기본형도 예측할 수 없다. 반면에 음운 현상은 대부분 규칙적인 현상이므로 예측할 수 있다. 조음위치동화가 일어나는 환경을 익혀 두면 어떤 단어에서든지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부분을 찾아 낼 수 있다.²⁾

이제 발음 학습의 난도를 말할 수 있다. 분절음은 보편적으로 나타나

는 요소인데 어떤 단어에 출현할지 예측할 수 없고, 어떤 단어에 출현하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교정 가능성이 낮으므로 종합적으로 학습의 난도가 매우 높다. 초분절음은 분절음보다 교정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 외에는 사정이 다르지 않으므로 학습의 난도가 역시 높다.

음운 현상은 교정 가능성도 높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기 쉽다. 그러나 기본형은 사정이 좀 다르다. 현실어 화자가 표준어를 구사하려 할 때 단어의 기본형이 다르면 기본형을 외워야 한다. 경북 방언 화자는 '수끼'와 '맥지'의 표준어 '수수'와 '괜히'를, 전남 방언 화자는 '무시'와 '비민히'의 표준어 '무'와 '어련히'를 열심히 외워야 한다. 이와 같이 기본형은 예측 가능성이 없으므로 학습의 난도가 높을 수 있다. 그렇지만 기본형은 개별적으로 나타나 그 수가 제한적이고 교정이 쉽다. 그래서 학습의 난도는 보통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5. 발음과 표기의 차이

한글과 같은 표음 문자를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발음과 표기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 그러나 둘은 본질적으로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첫째, 발음은 유동적이고 표기는 고정적이다. '텔레비전'을 말할 때 사람에 따라, 또는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텔레비전], [테레비전], [테레비], [티브이], [티비] 등으로 발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반면에

2) 규칙이 복잡하거나 예외가 많은 음운 현상은 예측 가능성이 낮다.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가 규칙도 복잡하고 예외도 많아 [배주채(2013:260~265)] 예측 가능성이 낮은 예이다. 그러나 이런 음운 현상은 많지 않다.

글로 쓸 때는 ‘텔레비전’ 아니면 ‘TV’로 통일된다. 귀에 들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두드러지게 인식하는 인간의 심리 때문에 형태를 고정하려는 압력이 발음보다 표기에 더 많이 가해진다.

둘째, 발음은 순간적이고 표기는 지속적이다. 발음은 입에서 나와 귀에 들리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발음이 존재하는 시간은 아주 짧다. 반면에 한번 나타난 표기는 일부러 지우지 않는 이상 오래 유지된다.

셋째, 인쇄술의 발명 이후 표기는 손보다 기계로 실현하는 비중이 커졌지만 발음은 예나 지금이나 기계가 아닌 입으로 실현한다. 기계로 실현하는 표기는 글자 모양이 일정하고 또렷해서 인식에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반면에 입으로 실현하는 발음은 음가가 일정치 않고 모호할 때도 있어서 인식 장애를 일으키기 쉽다. 상대적으로 발음은 모호하고 표기는 명료하다.³⁾

발음의 유동성 · 순간성 · 모호성과 표기의 고정성 · 지속성 · 명료성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화할 때 표기는 늘 발음에 뒤진다. 그 시차가 심할 때는 영어처럼 몇 백 년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표기의 보수성’이라 부른다. 표기의 보수성을 고려하면 발음의 표준화보다 표기의 표준화가 훨씬 더 중대한 문제이다.⁴⁾ 또 표기가 표준화되면 발음의 표준화도 상당한 수준으로 저절로 이루어진다. 만약 인위적으로 발음의 표준화를 추진하려 한다면 표기와 조화가 깨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3) 발음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구어에 의한 소통이 가능한 것은 구어로 소통하는 상황에서 발음 이외의 다양한 정보가 의미 해석을 도와 발음의 모호성을 보완해 주기 때문이다.

4) 이 점은 이익섭(1983:14~15)에서 지적한 바 있다.

6. 국어 표준화의 역사

서양 문물의 유입과 열강의 침투로 전통 사회가 근대 사회로 급격히 재편되던 개화기에는 국어 표준화의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 일제 강점기 때 민간 학술 단체인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을 제정함으로써 표기의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을 발간하고 국어사전 편찬 작업을 시작함으로써 어휘의 표준화도 시작되었다. 해방 후에는 교육으로 표기와 어휘의 표준화가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이를 보완하는 작업은 〈한글 맞춤법〉(1988)과 〈표준어 규정〉(1988) 및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제 〈한글 맞춤법〉은 완전히 정착되어 한동안은 손볼 일이 없을 것이다. 한편 어휘의 표준화는 그 속성상 계속되어야 한다. 어휘 변화는 끝없이 일어나고 어휘의 표준화는 문제가 되는 단어에 대해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문법의 표준화는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⁵⁾ 문법의 표준화는 지식인들의 노력으로 저절로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어떤 문장이 표준적인 국어 문장인지 100%는 아닐지라도 대부분 명확하다. 표기와 어휘의 표준화가 주로 정책 표준화였다면 문법의 표준화는 자연 표준화였다.⁶⁾

발음의 표준화는 〈표준어 규정〉(1988)의 부록으로 발표된 〈표준 발

5) 학교 문법의 통일(1985년)은 문법론의 통일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문법의 통일은 아니다.

문법의 표준화는 문법론의 표준화가 아니다. 예를 들어 “을통불통한지 않은지”가 표준어인지 아닌지는 문법의 표준화에 관한 문제이고, “나는 여름이 좋다.”가 단문인지 복문인지는 문법론의 표준화에 관한 문제이다.

6) 정책 표준화와 자연 표준화의 구분은 이의섭(1983:8~9)을 따른 것이다.

음법>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표기나 어휘의 표준화와 동시에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어휘의 표준화로 어떤 단어의 형태가 정해지고 맞춤법에 따라 그 표기가 정해지면 그 단어의 발음은 대부분 저절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휘와 표기의 표준화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불투명한 일부는 발음의 표준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표준 발음법>이다. 예를 들어 ‘뒤’라는 표기만 가지고는 그 모음을 단순 모음으로 발음할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지 알 수가 없고, ‘맑고’를 [맡꼬]로 발음할지 [막꼬]로 발음할지 불분명하며, ‘낳은’과 ‘허용은’의 받침 ‘ㅎ’의 발음이 다른 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7. 표준어 정책의 방향

국어 표준화는 개항 이후 140여 년이 지나는 사이에 정책 표준화와 자연 표준화로 거의 달성되었다. 근대화를 앞당기기 위해 불가피했던 표준어 정책은 이제 변화할 때가 되었다. 표기는 그 보수성을 고려하여 정책 표준화를 유지한다고 해도 문법과 어휘의 표준화는 자연 표준화에 맡기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지금과 같이 교통·통신과 대중매체가 발달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는 대중이 스스로 표준 문법과 표준 어휘를 가꾸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⁷⁾

국어의 지나친 표준화는 국어의 동질화이자 획일화이다. 생물 종의

7) 어휘의 자연 표준화의 필요성은 안상순(2004)에서 잘 논의된 바 있다. 이상규 외(2008)에 실린 여러 글들도 국어의 정책 표준화보다 자연 표준화를 주장하고 있다.

다양성이 건강한 생태계의 보존에 필수이듯이 국어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어의 동질성보다 다양성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⁸⁾ 그렇다면 표준화가 지나쳐 국어를 단순하고 경직된 언어로 묶어 놓는 것을 오히려 경계해야 할 것이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달라지는 데에 따라 국어도 함께 살아 움직이며 진화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 우리가 국어 발전을 위해 할 일이다.

새 시대의 표준어는 따라야 할 규범이 아니라 참고할 기준이 되어야 한다. 표준어가 규범이라면 표준어가 아닌 말은 틀린 말이 된다. 표준어가 기준이라면 상황에 따라 소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준과 일치하거나, 기준에 가깝거나, 기준에서 다소 멀게 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표준어와 얼마나 가까웠느냐가 아니라 표준어와의 거리가 적당했느냐를 가지고 국어를 잘 사용한 것인지 평가하게 된다.

8. 발음 정책의 방향

표기와 어휘의 표준화에 따라 발음의 표준화도 거의 완성되었다. 이제는 발음이 서로 달라 소통이 어려운 문제는 미미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발음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질감을 느낄 수 있어서 발음의 표준화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질감이 나쁜 것 만은 아니다. 방언의 특징적 발음은 해당 방언 화자들끼리는 동질감을 느끼는 요인이 되고, 다른 방언 화자에게는 어느 방언 화자인지를 알려주는 사회적 지표가 되어 상대방의 정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8) 이상규 외(2008)에 실린 여러 글들이 이러한 정신을 지지하고 있다.

방언 간의 조그만 발음 차이는 소통을 방해하기보다는 돋는다. 따라서 국어 발음은 표준화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설령 표준어를 규범으로 강조하는 정책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발음의 유동성과 순간성, 모호성을 고려하면 발음에 대해서만은 지금까지보다 더 관대한 정책을 펴는 것이 옳다.

발음 정책을 이렇게 바꾼다면 현재의 〈표준 발음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표준 발음법〉 본문의 태도가 꼭 규범적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조항이 “～로 발음해야 한다.”가 아닌 “～로 발음한다.”와 같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기술적(記述的)이라고, 즉 있는 그대로를 보여 주는 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소수의 조항에 사용된 “허용한다.”나 “인정하지 않는다.”와 같은 표현은 규범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수정하면 〈표준 발음법〉은 기준이 되는 국어 발음을 기술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⁹⁾

〈표준 발음법〉을 국어 발음의 기준을 기술한 것으로 다듬는다 해도 그 세부 내용 중에는 여전히 수정할 것들이 있다. 우선 음소 체계의 변화를 돌이키기 어려운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

(5) 음소 체계의 변화를 돌이킬 수 없는 것

③ ‘ㅋ’를 [k]로 발음한다. 이에 따라 ‘ㅋ’는 [k]로 발음하고 ‘忾’는 [k]로 발음한다.

④ ‘ㄱ’를 이중 모음 [wi]로 발음한다.¹⁰⁾

9) 국어음운론에 관한 책들에서 〈표준 발음법〉을 인용하여 국어의 음소 체계나 음운 현상을 설명하기도 하는 것은 〈표준 발음법〉을 기술언어학적 연구의 결과물로 이해한 것이다.

10) 이중 모음 ‘ㄱ’의 음가는 [wi]가 아닌 [ti]이지만 음소는 /wi/이다.

⑤ ‘뇌’를 이중 모음 [ㄻ]로 발음한다.

⑥ 음장을 구별하지 않는다.

아직 표준 발음을 구사하는 일부 노년층은 (5)를 반대할 수도 있다. 이제까지 모범적인 표준어 화자로 인정받아 온 그들을 소외하지 않으려면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즉, 기존의 표준 발음과 (5)를 모두 가능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발음을 쉽게 하려는 현상도 규칙성이 있고 일반화되어 있으면 (6)과 같이 허용할 필요가 있다.

(6) 편의에 따른 발음

⑦ [ㄹ] 뒤의 [ㅔ]를 [ㅔ]로 발음할 수 있다.

⑧ 조음위치동화가 일어날 수 있다.

⑨ 모음, 비음, 유음 뒤 초성 ‘ㅎ’을 발음하지 않을 수 있다.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의 괴리가 심하기로는 외래어도 지지 않는다. 외래어의 표준 발음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나 외래어의 표기가 정해져 있는 이상 그 표기를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발음한 것을 표준 발음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발음이 현실 발음과 어긋나는 예들이 많다. 예를 들어 ‘파이팅(fighting), 카페(cafe), 사인(sign), 시너(thinner)’의 현실 발음은 ‘화이팅’, ‘까페’, ‘싸인’, ‘신너’이다. [파이팅]과 [카페]는 부 자연스럽게 들리고, [사인]은 ‘사인(死因)’으로, [시네]는 ‘신어(新語)’로 영락없이 오해하게 된다. 외래어의 발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고려해야 한다.

- (7) 외래어의 표기가 정해지면 발음도 정해진다. 그런데 외래어는 발음을 기준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외래어의 발음을 정하고 거기에 맞추어 표기를 정한다고 볼 수도 있다.
- (8) 외래어가 처음 들어올 때 그 표기와 발음이 어떻게 자리 잡느냐가 중요하다. 일단 자리 잡고 나면 그 형태가 원칙에 맞든 맞지 않든 고치기 어렵다.
- (9) 표기의 보수성을 감안하여 한번 정착한 표기를 수정하는 일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면 ‘카페, 파이팅, 사인, 시너’의 표기를 ‘까페, 화이팅, 싸인, 신나’처럼 발음에 맞추어 고치는 것은 개악이다. 1986년에 외래어 표기법의 개정에 따라 ‘빼이징’이 ‘베이징’으로 표기가 바뀌고 나서 1990년대까지도 그 발음은 [빼이징], [빼이징]이 우세했으나 지금은 [베이징]이 우세하다. 이에 비추어 생각하면 앞으로 대중의 현실 발음은 철자식 발음(spelling pronunciation)인 [카페], [파이팅], [사인], [시너] 쪽으로 기울어져 20~30년 후에는 일반화될 것이다. 이와 같이 표기와 어긋나 보이는 외래어 발음은 대부분 머지않아 표기를 따른 발음으로 통일될 것이다. 이것이 외래어 발음의 자연 표준화이다.

9. 발음 교육의 방향

발음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언급하려 한다. ‘2009 교육 과정’에 따르면 중학교 국어 과목에서 음소 체계와 음운 현상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¹¹⁾ 그래서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국어

의 음소 체계를 설명하는 단원이 있다. 한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서는¹²⁾ 음소의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표준어의 자음 음소 체계와 모음 음소 체계를 다루고 있다. 음소 체계와 관련해서는 음소의 분류, 음성학 용어, 음소 체계를 시각화한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음소 체계에 관한 이러한 내용은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공과목에서 가르친다.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과연 중학생의 인지 수준에 맞는지 의문이다.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 고모음과 중모음과 저모음, 파열음과 마찰음과 파찰음 등의 전문 용어를 중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공부하는지 궁금하다. 이해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을 위해 무작정 암기하는 학생이 대부분일 듯하다.¹³⁾

더 큰 문제는 교과서에 제시된 음소 체계가 표준어의 음소 체계라는 점이다. [ㅔ]는 [ㅐ]보다 혀가 높은 상태에서 발음한다고 되어 있으니 학생들은 그 사실을 외우게 될 것이다. 학생들이 이것을 외워 두었다가 시험 문제를 맞히면 학생과 교사가 모두 만족할 것이다. 이것은 좋은 교육이 아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모음을 발음하면서 음성 기관의 모양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 원리를 생각하여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다. 그러면 학생들이 사용하는 현실어, 그리고 학생들이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현실어를 대상으로 발음을 관찰하고 이해하

11) 교육 과정에서는 음소 체계와 음운 현상을 각각 ‘음운의 체계’와 ‘음운의 변동’으로 부른다.

12) 이삼형 외 『중학교 국어 1』(동아출판사)의 4단원 (2) 우리말의 소리(148~159쪽).

13) 교육 과정에는 음소 체계를 고등학교 국어 과목에서도 가르치도록 되어 있고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내용이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또 나온다. 한 번 배운 것을 상급 학년에서 다시 배우도록 교육 과정을 짠 것은 그만큼 음소 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에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비효율적인 편성임은 분명하다.

게 해야 한다.¹⁴⁾

음장의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단모음을 가진 단어와 장모음을 가진 단어를 일일이 외우게 하는 것이 지금의 교육이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발음에 관한 깨달음을 주지 못한다. 경상도의 학교라면 성조에 따라 단어가 구별되는 예를 학생이 스스로 찾아서 관찰하고 그 원리를 탐구해 깨달음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학생이 그러한 깨달음을 확장하면 표준어의 음장도 이해하고 외국어의 강세나 악센트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의 교과서로 배우는 학생들이 깨닫는 바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표준어의 음소 체계를 열심히 외우면서 표준이라는 규범과 자신이 사용하는 말의 현실이 어긋나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규범과 현실의 어긋남에 대한 깨달음은 나아가 사회에서 법과 현실이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 가치관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것은 아니함만 못한 교육이다.

우선 학생의 인지 수준에 맞는 교육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소 체계를 이해시키기 위해 음성학 전문 용어를 쏟아붓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이 처한 현실과 일치하는 교육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즉 학생의 현실 발음을 관찰하고 발음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종국에는 표준 발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교육 방법은 마땅히 발견적 방법이어야 한다. 즉 기존의 지식을 주고 암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경험하고 관찰한 사실에 대해

14) 표준어 음소 체계를 굳이 가르칠 때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대부분의 교사가 표준어 화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교사가 주의하지 않으면 '바담풍' 이야기가 재연되기 쉽다.

고민하고 토론하게 하여 학생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 내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기존의 지식이 지금의 현실에 들어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맞지 않다면 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자기 세대의 과제임을 인식할 수 있다.

발음 교육은 이론 교육이 아닌 실기 교육이어야 한다. 학생이 발음의 원리를 이해한 후에는 효과적인 소통에 기여하는 발성법과 발음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 훈련의 결과로 책을 낭독하거나 말을 할 때 좋은 발음에 의미를 정확히 담아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¹⁵⁾

10. 마무리

근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어의 정책 표준화는 필연적이었다. 여기에 자연 표준화가 더해져 국어의 표준화는 상당한 수준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어 표준어 정책의 큰 방향을 바꿀 때가 되었다.

지금 발음에 관한 정책적 과제는 표준화보다 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해결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규범을 기준으로 바꾸고, 또 한편으로는 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발음 교육도 규범 위주, 지식 전달 위주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며 학생이 스스로 탐구하여 결론에 이르도록 이끌어야 한다.

15) 이진호(2012)는 문법 지식 교육으로서의 음운 교육의 관점에서 고등학교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자세히 논의하고 있어 발음 교육의 방향을 잡는 데 참고가 된다.

참고문헌

- 배주채(2013), 『한국어의 발음』(개정판), 삼경문화사.
- 안상순(2004), 표준어, 어떻게 할 것인가, 『새국어생활』 14권 1호, 국립국어원, 67~83.
- 이상규 외(2008), 『한국어의 규범성과 다양성』, 태학사.
- 이의섭(1983), 한국어 표준어의 제문제, 이기문 외, 『한국 어문의 제문제』, 일지사, 7~46.
- 이진호(2012), 음운 교육과 교과서, 『한국어학』 57, 한국어학회, 35~59.

광복 70년, 우리말을 생각한다

유애리

한국방송 아나운서 · 전 한국방송 한국어부장

특집

1. 우리말 오용의 되풀이

학교 교육에서 국어 교육은 읽기와 쓰기가 중심이고 말하기는 비중이 낮다. 대신 매 순간 접하는 매체가 우리의 언어생활, 특히 말하기에 영향을 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5년 2월 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제가 된 방송 언어는 비속어와 신조어, 유행어, 은어 등 비표준어가 전체 53.2%를 차지했고, 반말 15.9%, 고성 · 막말 7.8%, 자막 6.5%, 성적 언어 5.8%, 외모 비하 · 인신공격 · 차별적 언어가 4.2%였다고 한다. 이처럼 언어 규범 지키기에 앞장서야 할 방송이 우리 말을 오용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 방송을 마치며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가 입버릇이 된 진행자가, 국민 모두가 알 만한 국회의원 ‘oo현’ 의원을 ‘oo현’으로 부르기도 한다. 어떻게 진행자가 출연자 이름을 발음할 때 이토록 무심한지 아쉽다. 상대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것처럼 큰 실례는 없다. 국회의원 본인 스스로 “소개받은 oo현 의원입니다.”라고 인사 겸 자신 이름을 다시 정정해 말한다. 청취자로서는 실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국

회의원은 인터뷰 내내 여러 차례 텔레비전을 “테레비”라고 했다. 이 밖에도 교수나 연구원 등 지식인 출연자가 우리나라를 “저희 나라”라고 말해 진행자가 정정하는 예도 부지기수다.

화면에는 어지러운 자막과 억센 고성이, 라디오에서는 분명 표준 발음이 아닌 발음이 반복해 나온다. 뉴스 문장에서 익명의 인물을 A씨, B씨, C씨라고 영어로 표기하고 발음도 [에이씨], [비씨], [시씨]라 한다. 익명성 보장을 위한 배려가 지나치다. 실명 대신 ㄱ씨, ㄴ씨라고 하면 한글 모독이라고 여겨 일부러 알파벳을 쓰는 것일까?

정부가 우리말 기준인 〈표준어 규정〉과 〈표준 발음법〉을 고시한 지 26년이 지났음에도 우리의 언어생활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방송에서 조차 표준 발음에 어긋나는 사례를 흔하게 만난다.

방송에서 잘못하고 있는 발음이나 표기를 심의한 자료를 보면, 이미 10년 전에도 지적했던 오류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늘 틀리는 발음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띄어쓰기나 표기 오류도 항상 비슷하다. 그나마 자막은 사후 편집을 하면서 수정하고 교정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맞춤법 오기는 줄고 있는 편이지만 비표준 발음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제자리걸음이다. 방송은 오류를 재생산한다. 따라서 비전문 방송인일지라도 공공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고, 그릇된 표현과 발음을 시정하려는 관련 기관의 심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수상한 경어법

우리말이 변질되는 현상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대목은 경어법이다. 본래 우리말은 명사와 대명사, 수사와 같은 체언은 물론 형용사나 동사 등의 용언이나 조사에 이르기까지 한마디의 말일지라도 높임이나 낮춤의 구별이 있다. 경어법을 엄격하게 지키기 어렵다 해도 경어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확실히 하는 것이 좋겠다.

서비스 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수상한 경어를 누구나 한두 번은 들어봤을 것이다. “주사 맞으실게요.”, “계산서 나가실게요.”, “일 번 방으로 가실게요.” 같은 표현은 곤란하다. 고객에게 서비스한다면서 엉뚱하게 사물을 높이는 식으로 변질된 높임말이 방송에 침투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3. 표준 발음

정보 전달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정확한 발음의 기본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해 정한 〈표준 발음법〉에 근거한다. 우리말은 표기한 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추상적인 소리인 음운과 물리적인 소리인 음성의 차이, 즉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의 차이 때문에 표기한 대로 발음하지 않기도 한다. 음운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관념적인 소리이며 누구나 한 가지로 소리 난다고 생각하는 보편적인 소리이다. 또한 말의 뜻과 관계가 있어서 뜻의 차이를 나타내며 문자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수가 한정된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소리이기도 하다. 역사와 전통 속에 담겨진 우리말을

지금의 기준으로 바꾸거나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아무나 멋대로 만들어 써서도 안 된다(김상준 1986:84).

발음의 편리성과 우리말의 특성을 살려 기준을 세운 표준 발음과 알맞은 음성 크기, 음악성이 가미된 말의 흐름과 적당한 속도가 우리말의 진수라 할 수 있다. 〈표준 발음법〉을 기본으로 최근 방송이나 일상 대화에서 잘못 쓰고 있는 가장 흔한 예 몇 가지만 들어보겠다.

3.1. 장단음

우리말 사용에서 장단음을 무시하는 예가 점점 늘고 있다. 숫자 2를 비롯해 4, 5를 길게 발음하는 이가 거의 없다. ‘건강(健康), 전화(電話), 주택(住宅), 시장(市場, 市長), 화재(火災), 사건(事件), 어른’ 등은 이제 거의 단음으로 변화된 지경이다.

우리말은 모음의 길이가 어휘를 분화하기 때문에 장단음 구분에 주의해야 한다.

말(馬)[mal] - 말(語)[ma:l]

눈(眼)[nun] - 눈(雪)[nu:n]

‘말’과 ‘눈’은 말소리를 길고 짧게 냄에 따라 뜻이 다르다. 영어의 ‘sheep[ʃi:p] - ship[ʃip]’처럼 장단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변별적 기능이 있다.

따라서 동시성과 일회성을 특성으로 하는 방송 언어는 물론 대중적인 소통을 하는 현장에서도 장단음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방송에서 장음과 단음을 구분하지 않으면 바로 국민의 일상 언어에 투영되어 고착화되기 쉽고, 어린 학생일수록 그 영향을 잘 받는다. 잘못이 반복되

어 굳어지면 장음, 단음에 대한 인식도 희미해지고 만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동형이의어(同形異義語, homograph)로는 '가정, 강도, 개성, 고문, 거리, 건조, 고성, 고전, 감사, 감정, 경계, 고목, 과장, 사과, 금주, 새집, 시계, 여권, 전철, 정당, 정상, 부자, 연기, 한식' 등이 있다. 장단을 지키지 않은 발음으로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지를 생각하면 장단을 쉽게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장단음을 잘 구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말 능력이다. 소리의 길이가 음운의 자격을 가진다는 점을 간과한 발음은 한국어의 특색을 무너뜨린다.

요즘 방송에서 우리말을 구사하는 다양한 인종의 출연자를 볼 수 있다. 우리말 억양이 자연스러운 외국인의 말을 잘 들어 보면 우리말 발음의 기본인 장단음을 잘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뉴스 방송을 하면서 발음이 잘 안 되고 틀릴 때는 장단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였다. 장단음은 우리말의 억양을 살려 주면서 발음을 편리하게 해 주며, 의미의 구별은 물론 말의 품위와 아름다움까지 더해 주는 말하기 기술의 기본이다. '듣기만으로 곧 메시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되기 위해서는 장단음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모국어 화자라면 우리말 장단이 어렵지 않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노력이면 된다. 장단음의 길이는 영어처럼 1.8 대 1 정도면 산뜻하게 들릴 것이다. 장단음은 순우리말, 한자말을 불문하고 거의 대부분 첫 음절에서만 구분하면 되고, 같은 말이라도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단음으로 바뀌니 발음하기에도 편리하다. '말:→ 참말, 새:→ 참새, 덥:→ 무덥다, 밟:→ 짓밟다, 숨:→ 목숨'이 되듯.

3.2. 발음의 경제 원칙

발음의 경제성과 편리성 때문에 표기와 발음이 다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이름을 소개할 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유애리입니다.”라고 표기하고, 발음은 [유애립니다]로 한다. 이름의 마지막 글자가 모음으로 끝나는 받침이 없는 말일 경우에 ‘입니다’를 다 살려서 말하지 않는다. 모음 ‘ㅣ’는 음성 언어에서는 문자 언어와 달리 거의 모두 털락한다. 그러나 이런 발음 원칙을 무시하고 표기대로 말하는 사람도 많다.

서술격 조사 ‘이다’도 마찬가지다. ‘나이다’, ‘너이다’, ‘바다이다’, ‘평야이다’를 소리 낼 때는 ‘[나다], [너다], [바다다], [평야다]’로 한다. 이를 표기대로 ‘[나이다], [너이다], [바다이다], [평야이다]’로 발음하면 역시 어색하다. 표기는 ‘-이다’를 살려 쓰지만 발음은 쓴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우리말 발음의 경제 원칙이라 하겠다.

이렇게 음운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려운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 말과 말 사이에 음운을 첨가하기도 한다. 모음이 나란히 있어 발음하기 어려울 때 매개 자음을 넣어 [애리야], [영호야]로 부른다. ‘애리’나 ‘영호’라는 명사와 ‘야’라는 호격 조사 사이에 반자음인 짧은 ‘ㅣ’가 들어간 예이다.

3.3. 조사

우리말은 조사나 어미 같은 허사가 실사에 붙어 의미를 통하게 하는 첨가어이다. 때문에 조사를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누리소통망 서비스 등 축약된 메시지 중심의 소통이 늘고, 강렬한 표현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등이 빠진 표현을 자주 접한다. 활자 매체의 제목으로 “박 대통령 전방 국군 장병 방문” 같은 표현은 생략의 묘미가 있다. 그러나 이를 음성 언

어로 그대로 전하면 어감이 좋지 않다. “슈틸리케 호, 국대 선수 귀국 환영 인파 인천공항에 몰렸습니다.”라는 방송은 시청자를 피곤하게 만든다. “슈틸리케 감독과 국가 대표 선수들의 귀국을 환영하는 인파가 인천공항에 몰렸습니다.”로 조사를 붙여야 의미가 빠르게 전달된다. 그렇다고 전달 시간이 크게 늘지도 않는다. 조사를 생략한 구어체는 불친절하므로 조사는 되도록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외는 반대로 불필요한 조사를 남용하는 경우도 흔하다. ‘공사에 착수를 했다’, ‘지시를 했다’, ‘확인을 했다’ 등에서 조사 ‘을’이나 ‘를’은 사족이다. ‘공사에 착수했다’, ‘지시했다’, ‘확인했다’면 된다.

3.4. 된소리와 거센소리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잘못된 예는 된소리와 거센소리에서도 확인된다. ‘문득’을 [문뜩]으로, ‘창고’를 [창꼬]로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잘못이다. ‘도긴개긴’을 아예 ‘도찐개찐’으로 이상하게 변형해 표기하고 발음하거나, ‘장’이 표기와 발음 모두 ‘짱’이 되어 버린 것도 잘못임을 알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문고리’는 [문꼬리]로, ‘국밥’은 [국빱], ‘옆집’은 [엽찝]으로 ‘덮개’는 [덥깨]로 된소리가 나야 함에도 철자와 같은 평음으로 혼동하는 이들도 많다.

‘폭발’은 [폭팔]이 아니라 [폭빨]이 바른 발음이다. 반면 거센소리로 내야 하는 ‘북한’을 [부간], ‘입학’을 [이백]으로 잘못 발음하거나, ‘정획한’을 [정: 화칸]이 아닌 [정화간]이나 [정아칸]으로, ‘다급하다’를 [다그파다]로 연음하면서 거센소리를 내지 못하고 [다그바다]로 발음하기도 한다. 또 ‘생각하고’를 [생가가고], ‘졸업하고’를 [졸어바고]로 ‘흔음 법칙’을 무시한 발음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줄지 않고 있다.

자음 동화의 혼란 현상도 반복되고 있다. ‘한국’이 [한국]으로, 연말을

[염牒]로, ‘전기’를 [정기]로, ‘감기’를 [강기]로 잘못 발음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필 일이다.

3.5. 부정확한 모음

모음 ‘애’를 [에]로 발음하는 이도 늘었다. ‘대한민국’을 [데한민국]으로, ‘개’를 [게]로 발음하고, ‘뼈다’인지 ‘배다’인지 혓갈리게 발음하기도 하고, ‘네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않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의’나 ‘옛’ 발음을 [으]나 [엣]으로 하는 화자도 많다. 대개 특정 지역 사람들이 이 발음을 불완전하게 하는데, ‘의’ 발음은 [으]에 [이]를 재빨리 연이어 발음하면 된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책에도 상세히 기술된 발음 요령이다. 입술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노력을 하면 고칠 수 있다. 발음 장애가 있어서 발음을 못하는 게 아니다. ‘오’와 ‘우’의 음가를 부정확하게 발음해 ‘신촌역’으로 가야 할 사람이 ‘신천역’으로 잘못 간 웃지 못할 예도 있다고 한다. 발음 오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발음 하나도 허투루 할 일이 아니다.

4. 표준 발음 정착을 위한 과제

지금까지 음성 언어 측면에서 우리말의 특성과 대표적인 잘못된 예를 살펴봤다. 이 밖에도 성적인 표현, 비속어의 남발, 욕설 등 써서는 안 되는 말이 공공 언어에 벼젓이 나타나는 예도 있고 잘못된 표기도 부지 기수지만 생략한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즈음해 지금 우리말이 처한 현실과 그 원인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찾아보려 한다. 1910년 한일 병

합부터 1945년 해방까지 일제는 황국화 정책을 펴고 우리 민족혼을 말살 하려고 했다. 조선총독부는 1938년 회유 정책으로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하고 일본어의 상용화를 강제했다. 그 결과, 1943년 우리나라 총인구의 22%가 일본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 비율은 해방 전까지 38%를 넘었다고 한다. 이같이 국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 했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전승되어 온 우리말의 발음 교육도 단절되었다고 봐야 한다.

일제는 식민 통치를 위해 동경라디오방송이 설립된 이듬해인 1926년에 경성방송을 설립하고 일본어 방송을 시작했다. 조선어 방송은 1933년에야 제2방송으로 전파를 탈 수 있었다. 일제의 회유 정책이 펼쳐지던 시기였다. 그해 11월에 방송된 권덕규의 <한글강좌>가 가장 오래된 우리말 계몽방송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1936년 12월에는 이희승의 <문자 이야기>가 방송되었다. 그 당시 우리말 방송을 담당한 아나운서들은 우리말의 표준과 표준 발음에 관심을 갖고 연구했고, 그 내용을 선배가 후배에게 전수하는 도제식으로 교육했다. 아나운서가 우리말을 연구하고 후배에게 전수한 것은 1930년대 중반 경성방송국 시절, 당시 제2방송(조선어) 과장이던 심우섭이 최초였다고 한다.

1933년 조선어학회가 처음으로 맞춤법을 제정하여 표준말 기준을 결정하고, 1936년에 표준말 어휘를 공포했다. 조선어학회가 6,200여 어휘를 조선어 표준말 모음으로 사정하고 우리말 사용의 척도로 사용했다. 당시에는 표준 발음법까지는 사정하지 않았다. 그나마 방송의 선각자들이 우리말의 품위를 높이고 음성 언어의 특성을 살린 발음 원칙을 세워 후배에게 도제식으로 교육해 우리말 전통을 이어가게 했다. 일제 강점기부터 방송에 종사한 아나운서와 기자 등 방송인은 표준어 규정을 지키는 가운데 소통이 중심인 음성 언어로서의 우리말을 고민해 왔고 그중 많은 부분이 나중에 <표준 발음법>에 반영되었다.

광복 후에도 하루아침에 일본어를 없앨 수는 없었을 것이다. 1948년에 당시 문교부 편수부가 관민 일체가 되어 일제 강점기의 잔재인 일본어를 박멸하고 민족어인 한국어를 되찾으려는 국어 정화 운동을 펼쳤다. 당시 널리 통용된 일본어식 용어 938개를 한국어로 순화하여 『우리말 도로 찾기』란 소책자(사류판 36쪽)를 간행했다. 그 후 꾸준한 우리말 순화로 일본어 잔재는 많이 사라졌다. 한자어 배척도 있었고 순우리말로 된 새로운 조어도 나왔지만 공감을 얻지 못한 말은 자연스레 사라졌다. 그런 틈에 들어온 서구의 외래어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 전쟁과 미군 주둔의 영향으로 강의, 강연, 대담, 간행물 등에 영어가 섞여 들어가면서 국어를 오염시켰다.

우리말 발음의 표준은 1988년 『표준 발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어 사전마다 달랐다. 『한글 맞춤법』과 달리 발음법을 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표준 발음이 정해지지 않으니 제각기 다른 발음이 예사로 통용되었다. 비록 방송이 자체 표준 발음의 원칙을 세웠지만 구속력이 약했다. 아직까지 우리말 발음의 혼란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이다.

1989년 새로운 표준 한국어에 대한 규정이 공포되면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중 『표준 발음법』이 고시되어 우리 국어의 어문 정책이 새롭게 출발했다. 그리고 26년이 지났다. 일제의 잔재인 일본어를 지우기 위한 1948년의 국어 순화 운동이 시작된 지 66년이 흘렀다. 세대교체가 두 번 이상 이루어질 수 있는 긴 시간이다. 일본어를 추방하느라 노력한 한 세대가 가고 나서 그 결실이 다음 세대에서 실현되었다. 지금 세대는 우리 부모 세대가 흔히 쓰던 ‘벤또’나 ‘와리바시’ 같은 일본말을 모르고, 우리말로 ‘도시락, 나무젓가락’이라고 한다. 『표준 발음법』이 규범으로 보편화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표준을 지키려는 노력과 인식만 있다면 앞당길 수도 있지 않을까.

표준어는 언어생활의 혼란을 막고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국민 모두가 공통으로 사용하라고 국가적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정한 공통어이다. 아울러 표준 발음도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정해진 우리의 규범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말과 글을 쓰지 못하고 성씨까지 바꿔야 했던 일제 강점기에 조선어학회가 마련한 맞춤법과 방송의 선구자들이 세운 우리말의 발음 원칙은 광복 70년을 맞으며 돌아봐야 할 역사의 유산이다. 주시경 선생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자.

“말(言)은 곧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나니라.”

참고문헌

- 임홍빈·한재영·이석록·유문선·김성규(2006), 『고등학교 국어생활』, 법문사.
- 김민환(1996), 『한국언론사』, 사회비평사.
- 김상준(2005), 『표준한국어 발음과 낭독』, 한국방송출판.
- 김상준(2001), 『방송언어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상준(1986), 『방송과 우리말』, 정음사.
- 박경희(2011), 『최고의 아나운싱』, 프로네시스.
- 허웅 지음, 권재일 역(2011), 『언어학개론』, 지식을 만드는 지식.
- KBS 아나운서실(2010), 『해외 한국어 방송인을 위한 표준 한국어 방송』,
KBS·방송통신위원회.
- KBS 아나운서실(1987), 『방송언어변천사』, KBS.
- KBS 한국어연구회편(1999), 『방송언어논총』, KBS.
- KBS 한국어연구회(2013), 『방송언어순화자료집』, KBS.

지금 이 사람

함께 찾는 박물관, 다시 찾는 박물관으로

문영호 국립한글박물관장을 만나다



답변자: 문영호(국립한글박물관장)

질문자: 권창섭(아주대학교 강사)

때: 2015. 2. 3.

곳: 국립한글박물관 관장실(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작년 10월 9일,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에 국립한글박물관이 문을 연 지 어느새 반년이 다 되어 간다. 작년 3개월 동안에 국립한글박물관을 다녀간 사람만도 약 13만 명. 그만큼 반응이 좋았다는 말이다. 우리 국민들의 한글에 대한 자부심과 관심을 증명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한글’이라는 하나의 ‘문자’로 박물관의 전시 내용을 기획하고 구성했다는데,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곳을 찾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잘 알기 어려운 문제다. ‘한글’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써 온’ 문자인 동시에,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문자이며, 우리의 후손들이 ‘써 나갈’ 문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겨울치고는 제법 따뜻했던 날,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았다. 평일 낮이어선지 단체 관람객보다는 서로 손을 잡고 편안히 전시실을 둘러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외국인도 종종 눈에 띠었다. 조용하면서도 아득했다. 잠시 그 분위기에 취해 있다가 국립한글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문영호 관장을 찾았다.

권창섭 안녕하십니까. 시간적 여유를 많이 두고 도착한 뒤에 박물관을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보고 말씀을 들으려 했는데, 30분 정도밖에 일찍 오지 못했네요. 그래도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문영호 첫인상이 어떻던가요?

권창섭 아기자기하게 잘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영호 무엇이 제일 인상적이던가요?

권창섭 전시관에 들어서면서 처음 만나는 훈민정음 어제서문 조형물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영호 그래요? 그거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일부 있었는데 젊은 사람이 라 역시 시각이 다르군요. 좋게 봐 주셔서 다행이네요.

권창섭 2층 상설 전시실까지만 둘러보고, 3층까지는 관람하지 못했습니다. 3층 특별 전시실에서 세종대왕의 업적을 다룬 전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글을 만든 것 외에 세종대왕의 어떤 업적을 다루고 있습니까?

문영호 네, “세종대왕, 한글문화 시대를 열다”라는 제목으로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¹⁾ 세종대왕께서 남기신 업적은 정치, 외교,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있으니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 특별전은 앞으로 우리 박물관이 추구할 특별 전시의 방향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권창섭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영호 우리 박물관이 ‘문자’가 중심이 되는 박물관이긴 하지만 ‘문자’를 가지고 꾸릴 수 있는 콘텐츠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넘어 ‘국어’나 ‘문화’ 등 좀 더 넓은 주제와 접점에서 특별 전시를 구성하려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첫 특별전은 ‘예술과의 만남’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물론 ‘문자’라는 분야와 ‘설치 예술’이라는 분야의 융합이 만족스러울 만큼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우리 박물관이 풀어 나가야 할 과제인 셈이지요. 앞으로 ‘문학과의 만남’, ‘음악과의 만남’ 등 다양한 분야와 ‘문자’의 만남을 주제로 특별 전시들을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학예 연구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 한층 나은 전시를 선보이리라 봅니다.

권창섭 아무래도 첫출발이라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셨겠지요.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초대 관장을 맡게 되어서 그에 따른 자부심과 부담감을 동시에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문영호 과분한 자리라 부담이 크지요.

1) 이 전시를 감독한 홍익대학교 김미진 교수의 전시 해설을 다음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2868&cid=&contents_id=68544)

박물관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 오게 만드는 일

권창섭 이미 많이 들어 보셨을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이 설립된 계기와 ‘한글’이라는 ‘문자’를 중심으로 박물관을 설립한 의의는 무엇입니까?

문영호 한글박물관 설립에 대한 요구와 논의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8년부터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문자 관련 국립박물관은 딱 두 개 존재합니다. 중국 허난성에 있는 중국문자박물관과 우리 박물관이지요. 우리 국민이 한글에 대해 자부심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그 자부심만큼 한글이 대접을 받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박물관이 세워짐으로써 비로소 한글이 온당한 대접을 받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권창섭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개관 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나요?

문영호 많이들 다녀가셨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 작년 말까지, 그러니까 근 3개월 동안 12만 9,000명 정도가 방문하셨더라고요. 첫날은 1만 2,000명 정도가 왔고요.

권창섭 정말 많이 다녀가셨군요.

문영호 네. 한편으로는 그것이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박물관에 하루 1만 2,000명이 오게 되면 사실상 박물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면에서는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전시 해설을 할 수도 없고 여러 시설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박물관은 양적인 성장이 아닌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 하루에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연간 5만 명 정도가 적정 관람객 수일 것 같습니다. 그 정도라면 박물관을 찾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권창섭 아무래도 개관 초기라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게 아닐까요?

문영호 그렇겠지요. 그런데 아직 여건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간적인 문제도 그렇고 인력 구성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박물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자료수집과, 연구조사과, 전시과, 박물관교육과' 그리고 '기획운영과' 등 다섯 개 분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세 개의 분과로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인원도 적어도 50명, 많으면 60명 정도가 필요한데 아직 36명에 불과합니다.

권창섭 지금 현재 어느 분과가 없나요?

문영호 딱히 어떤 분과가 없다기보다는 해야 할 업무들이 섞여 있는 상태지요. 이를테면 연구조사과의 경우 현재 본연의 연구 조사 기능 외에 박물관 교육 기능, 대외 교류 기능, 행사 관련 기능, 자료 수집 기능 등 여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분과가 본연의 기능에만 충실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다섯 개 분과가 제대로 구성되고 각각 특화된 기능에 충실할 때 조직도 제대로 돌아가고 서비스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점은 우리 박물관만 유별나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의 여러 문화 시설들이 초기에 모두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겠지요.

권창섭 우리나라에는 박물관 및 전시에 대한 전문적인 고등교육기관도 많은 편이 아니지요?

문영호 그렇죠.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현장에서 직접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물관학이나 전시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채용한 후, 이 사람이 근무하면서 해당 박물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지식을 채워 나가는 형식이 되어야 할 텐데 현재는 그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박물관은 국어학을 전공한 사람이 채용된 다음 박물관에 대한 지식이나 전시에 대한 지식을 채워 나가는 형편이지요. 그래서 아

직 체계가 안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협업에 종사하면서라도 재교육이나 연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공동으로 협력해서 풀어 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권창섭 공동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말씀은 다른 박물관들과 함께 연계해서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문영호 그렇습니다. 다른 박물관들도 비슷한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그래야만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고요.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 이런 일은 한 박물관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이는 박물관계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권창섭 관람객 중 외국인 관람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국립중앙박물관과 붙어 있어서 그 비중이 클 것 같습니다. 외국인 관람객 수는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외국의 관심도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

문영호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요. 아시아권은 외모만 보고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그 수를 정확히 집계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관람객 수가 많다고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글’과 ‘한국어’가 세계로 더 널리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신경 써야 할 대상이 외국인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와서 본 외국인들의 반응도 괜찮았고요.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외국인들을 더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권창섭 지리적인 입지는 좋은 편 아닙니까? 서울역이나 주요 도심과도 가까운 편이고 교통도 편리한 편인데요.

문영호 지리적 접근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심리적 접근성이 더욱 중

요합니다. 아무리 교통이 불편해도 가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일부러라도 찾아가니까요. 맛있는 것을 먹으러 굳이 지방에도 가고, 심지어는 국외로 식도락 여행을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리적 접근성보다 심리적 접근성이 더욱 중요한 부분이지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사람들은 박물관에 오면 보통 반나절 정도 관람하다 갑니다.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은 반나절 만에 다 둘러보기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박물관은 가능합니다. 규모가 작긴 하지만 이것저것 관람하고 체험하고 쉬고 하다 보면 반나절 정도는 훌쩍 훌러가지요. 이곳에 한 번 와서 두 박물관을 충분히 다 둘러보고 가기란 참 힘든 일 이겠죠. 그렇다면 다음에 이곳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박물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박물관에 ‘다시’ 오게 만드는 일입니다.

한국인의 문화 향수 실태 조사에 한 해 동안 박물관을 몇 번이나 찾았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0.2회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영화관을 몇 회 찾았는가 하는 질문의 답은 5.6회였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이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게다가 문화생활을 즐기는 방식들은 보완재라기보다 대체재의 관계거든요. 다시 말해 영화를 볼까 박물관을 갈까 하는 선택적 관계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리적으로 붙어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우리 박물관은 더욱 상황이 안 좋은 거지요. 한 번 와서 둘 중에 하나만 관람하지, 양쪽을 동시에 관람하길 바라긴 어렵습니다.

권창섭 보완재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리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문영호 아이디어죠. 프로그램을 잘 구성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주된 관람객은 지방에서 단체로 올라오는 학생들입니다.

다. 기본적으로 박물관은 교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람객에서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요. 그러면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을 관람하고 우리 박물관까지 들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양쪽이 협력해서 두어 시간은 국립중앙박물관을 관람하고 두어 시간은 우리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면 됩니다. 서로 협력하면 잘 풀 수 있는 문제라 봅니다.

다양한 한글 관련 자료 확보 위해 기증 활성화해야

권창섭 전시 물품들 중에는 기증을 통해서 소장하게 된 것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관람하다 보니 물품을 소개하는 곳에 기증자의 이름도 적혀 있더군요.

문영호 2층 전시실이 끝나는 곳에도 기증한 사람들의 이름이 벽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권창섭 그건 미처 보질 못 했습니다.

문영호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지만, 소개할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현존하는 한글 타자기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송기주 박사의 4벌식 타자기입니다. 1910년대의 이원익 타자기가 최고(最古)의 타자기라지만 그건 현존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개관하기 전부터 송기주 박사의 타자기를 오랫동안 수소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못 찾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송기주 박사의 손자가 찾아왔어요. 타자기를 들고요. 우연히 우리 박물관이 개관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회의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디에도 기증하지 않았던 그 타자기를 우리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지를 이



[그림 1] 송기주 타자기

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데 가족끼리 의견을 모은 것이지요. 정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타자는 지금 상설 전시실에 있습니다.²⁾

권창섭 다른 흥미로운 기증품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문영호 ‘습례국’이란 것이 있습니다. 제사 음식 차리는 법을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한 물건이지요. 이것도 기증을 받아서 우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두 개 정도만 현존하고 있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진품명품〉에도 소개된 매우 귀한 물품입니다.

권창섭 탁와종회에서 기증했다고 되어 있네요?

문영호 탁와종회는 탁와(琢窩) 정기연(鄭璣淵) 선생의 종친회입니다. 그 습례국은 탁와 선생이 딸이 시집갈 때 준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2) 관련 보도자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글타자기 ‘국립한글박물관’의 품으로”
(http://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3799)



[그림 2] 습례국

권창섭 기증 운동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영호 예. 구입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기증도 열심히 받아야죠.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대부분 문헌 자료이다 보니 올해는 생활사 자료나 한글 정보화·산업화 자료, 해외 자료를 중점적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권창섭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http://www.hangeul.go.kr>)에 홍보가 올라와 있는 것은 봤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홍보해야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을까요?

문영호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일차적인 홍보 대상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단 기증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기증을 부탁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고, 다음으로는 누리집, 나아가 대중매체인 광고나 신문, 방송 등을 통해서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창섭 누리소통망 서비스도 좋은 홍보 수단이 될 것 같은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영호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³⁾

권창섭 아무래도 트위터는 그 쓰임이 적겠지요?

문영호 네. 박물관이다 보니 속보를 전하거나 그럴 일은 없어서…….

(웃음) 트위터보다는 이미지 중심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중심으로 대중과 만나려고 합니다. 채널이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니까 채널 수를 늘리는 것은 지양하려 합니다.

어제의 한글에서 오늘의 한글, 내일의 한글까지

권창섭 흔히 박물관이라고 하면, 일련의 물품들이 전시된 공간이란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관장님께서는 국립한글박물관이 전시 외의 기능도 수반하는 ‘문화 공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관위원장이셨던 흥윤표 선생님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고요. 그 취지가 실제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습니까?

문영호 박물관에서 전시는 당연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박물관의 주요 기능이 전시인 것만은 아닙니다. 연구, 교육, 문화 등 여러 기능이 모두 중요합니다. 원래 박물관의 목적도 그렇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박물관에는 문화 행사를 위한 공간, 체험을 위한 공간, 교육을 위한 공간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3층에 한글 놀이터와 한글 배움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별도의 작은 건물은 일종의 다목적 공간으로, 쉼터 기능은 물론 전

3)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hangeul.museum

유튜브 주소: <https://www.youtube.com/channel/UCkhi9ZGyfs-G1-6FFLWS1LA>

시나 공연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글 캘리그래피(calligraphy)를 주제로 작은 전시가 이뤄지고 있지요. 앞으로도 그 곳에서 2층과 3층 전시실에서 미처 소화하지 못한 전시를 할 것입니다. **권창섭** ‘한글누리’란 이름의 한글 정보실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영호 그렇지요. 저도 매우 애착이 가는 공간인데요, 원래는 계획에 없던 공간입니다. 통로로 쓰일 뻔한 곳을 도서관으로 꾸몄습니다. 이 주변에 공공 도서관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박물관이 한글에 관한 전문 도서관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단지 도서관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문화 행사도 열립니다. 최근에는 도종환 시인이 와서 강연도 하고 친필 사인이 들어간 시집도 기증하고 갔지요. 좌석이 약 50개 정도 있고 책은 2만 권 정도 소장할 수 있는데, 지금 약 3분의 1 정도 찻어요. 책이 다 채워져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외 대출을 계속하고 있고, 책들이 꽤 쌓이면 뮤음으로 몇 백 권, 몇 천 권을 인근 주민 센터나 초등학교 등에 돌아가며 대여할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앞서 말한 대로 인근에 마땅한 공공 도서관이 없으니 그 기능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지요. 한글누리에서 소장할 자료들이 문화 예술, 국어 연구, 국어 교육 등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점 중의 하나가 우리 박물관에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기획 전시실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면 한쪽에서는 전시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전시를 준비하며 일 년 내내 특별 전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획 전시실이 하나다 보니 새로운 전시를 준비하는 몇 달 동안은 특별전을 열 수 없어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공간 등을 이용해 다양한 기획을 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림 3] 한글누리

권창섭 어린이 체험실 ‘한글 놀이터’와 외국인 체험실 ‘한글 배움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영호 ‘한글 놀이터’의 경우는 6~9세 정도의 어린이를 주요 대상으로 만든 체험 전시 공간입니다. 놀면서 한글의 제자 원리나 운용 방식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물관이 전문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아니니까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죠. 주말에 지켜보니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더라고요.

‘한글 배움터’는 외국인이나 다문화 주민 등이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과 각 조합에 따른 발음을 첨단 기술로 구현해 한글을 흥미롭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흥미를 느끼고 그 문화의 일부인 한글에 관심을 가지게 된 외국인도 많지만, 한글이라는 특수한 문자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외국인도 많거든요. 이 역시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림 4] 한글 놀이터

권창섭 연구 조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영호 국립국어원이란 연구 기관이 따로 존재하는데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왜 또 연구 기능을 수행하느냐는 질문을 가끔 받곤 합니다. 그런데 같은 대상을 놓고 연구를 하더라도 국립국어원의 연구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립국어원이 연구 그 자체가 본연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대중을 위한 연구, 즉 전시나 전시 해설, 교육을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실용적인 방향인 것이지요. 그것이 우선입니다.

권창섭 박물관이니만큼 그런 지향성은 반드시 두어야겠네요.

문영호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계획 중인 기획전의 방향에 따라 연구도 진행될 겁니다. 국어사와 문자사에 대한 연구도 이뤄지겠지만 ‘언어’와 ‘대중문화’로도 영역을 넓혀서 연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올해의 주된 연구 목표는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연구하

는 것이 첫째이고, 해외에 산재해 있는 자료들에 대한 연구가 둘째입니다. 우선 해외 어디에 무슨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지 현황 조사를 해야겠지요. 작년에 중국에 대한 조사가 조금 이루어졌는데 이 사업을 올해 연장해서 할 겁니다.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중국에 소장된 한글 자료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중문화와 관련해서 지난 100년간의 광고 언어에 대해 연구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광고에 쓰인 언어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에 반영된 당시의 시대상과 연계하여 문화사적인 연구로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박물관의 성격에 맞는 어휘 연구도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한글 관련 핵심어의 시대적 추이라든가, 우리말과 글을 빛낸 문학 작가라든지 등의 주제로 연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 밖에 글꼴 연구를 통해 문자사 연구도 하게 되겠지요.

권창섭 교육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문영호 다른 박물관들과 달리 우리 박물관에서는 ‘가족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세대나 연령별로 나누어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 주된 방향을 가족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즉, 세대 간의 소통을 주된 주제로 잡고 있지요.

또 하나의 교육 방향은 ‘문화와 접목된 교육’입니다. 문자 및 언어와 관련된 박물관이니만큼 언어의 기본적인 기능인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활용한 교육은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문화 분야와 접목된 교육 프로그램들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문학 작품을 함께 읽는다든가 창극이나 판소리를 보고, 직접 해 보는 등의 체험을 하는 교육이지요. 강의가 중심이 되는 형식의 교육은 없어요. 그래

서 정원이 15~20명을 넘기는 강좌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집단을 중심으로 체험하는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권창섭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나요?

문영호 작년에는 10월에 개관을 하다 보니 예산과 시간 등의 문제 때문에 충분히 진행하지 못했죠. 6종의 프로그램을, 3개월밖에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20종 이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창섭 올해 계획에 대해 조금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의 업적을 다룬 특별 전시 이후에는 어떤 기획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문영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어사적인 부분·문자사적인 부분·문화사적인 부분은 어떤 전시가 되었든 아우를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박물관이라는 이유로 한글을 진열장 속에 박제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제의 한글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의 한글, 내일의 한글'을 전시의 중심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의 한글도 포함시키겠다는 것 이지요. 보통 박물관이라고 하면 '과거'를 보여 주는 공간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권창섭 '한글' 자체가 양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세종이 만들어 낸 '문화재'인 동시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이니까요. 후자의 '한글'을 박물관에서 보여 주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방향성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문영호 올해 준비하고 있는 기획 전시는 셋입니다. 처음이 '한글 편지 전'이에요. 다른 기관에서도 편지전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만 우리 전시는 단순히 편지를 전시하는 데 머무르지 않아요. 편지가 가지는 사회

적인 힘을 조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손편지에서 최근의 누리 소통망 서비스까지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은 문학과 관련된 전시입니다. 특정 작가를 다루거나 특정 작품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작가들이 창작 과정에서 말이나 글을 다루고 부리는 방식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창작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작가들의 고민과 생각, 그리고 거기에서 엿볼 수 있는 작가들의 언어관을 전람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창작물을 함께 보여 주는 것이지요. 표현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잘 구성해 봐야죠.

마지막으로 준비된 것은 개관 1주년 기념 전시가 될 텐데요, 한글과 정보 매체를 주제로 전시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흔히 한글이 과학적이고 우수하다, 정보 매체에 적합하다고 말들은 하지만 이를 피부로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전시는 실제로 한글의 정보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전시가 될 것입니다.

권창섭 ‘한글 정보화, 국어 정보화’라고 하면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다루나요?

문영호 글꼴, 음성 인식, 자동 번역, 검색어 등의 분야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권창섭 모두 흥미로운 주제들이네요. 세 특별 전시 모두 보려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권창섭 한글박물관이 앞으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영호 앞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듯 전시와 교육, 연구 등 박물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겠지요. 그러면서도 국어학계의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역할도 했으면 해요. 그래서 다양한 연구 소모임들을 통한 연구 업적을 대중화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권창섭 초대 관장으로서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계시나요?

문영호 다른 나라의 박물관들은 개관하기 전에 보통 3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예산과 인력 그리고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는 데에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박물관들은 그만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개관하곤 합니다. 우리 박물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개관한 지금도 계속 준비해 나가는 과정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좀 전에 말한 대로 일반적인 준비 기간이 3년이라면 우리 박물관이 그 3년을 채우기 위해선 앞으로 2년이 더 필요하거든요. 초대 관장으로서 그 준비를 충실히 하는 것이 제 임무라 할 수 있겠죠.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제가 초대 관장으로 오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이 박물관의 정체성을 만들고 그 정체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올해가 첫 사업 연도인 만큼 올 한 해를 충실히 보내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안들도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창섭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혹시 다른 박물관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문영호 저 혼자 풀어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직원 역량을 강화하는 일은 박물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 뒤의 일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직원들의 전문성과 행정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바람이 있다면 더 넓은 범위에서 다른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지요. 물론 지금도 다른 기관과 협력이 일부 이뤄지고 있긴 합니다. 전시 자료를 다른 박물관에서 대여해 주기도 했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교류를 다양한 측면에서 넓혀 갔으면 해요. 직원 교육을 함께해 나가는 방안도 이러한 차원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당장 어떻게 될 만한 일은 아니지요.

권창섭 네. 아까 이 부분을 언급하셨을 때부터 중요한 말씀인 듯해 다시 여쭈어 보았습니다.

문영호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박물관이라는 곳이 다양한 인적 역량을 요구하는 곳입니다. 전시 기획 역량은 기본이고 우리 박물관은 문자와 국어사에 대한 지적 역량이 필요합니다. 물론 행정적인 역량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세 중 어떤 하나라도 부족하면 문제가 될 겁니다. 인적 구성이 다양하고 기존 인력에 신규 인력이 더해졌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우리의 역량이 필요한 수준에 못 미쳐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해 나가면서 분명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발전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으면 하는 욕심인 것이지요.

권창섭 마지막으로 한글박물관을 찾는 시민들, 그리고 아직 찾지 않은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겠습니까?

문영호 당연히 많이 찾아 달라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지요. 그리고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해요. 아까도 말했듯 박물관의 주된 관람층은 단체로 오는 학생들이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면 인

술하는 교사나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따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함께 능동적으로 어울렸으면 해요. 박물관이 딱딱하게 교육을 받는 곳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와서 즐기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창섭 방학이라 많은 사람들이 찾았겠네요?

문영호 네. 많은 날은 하루에 2,700명 정도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권창섭 아까 저도 기념품점에서 엽서 두 묶음을 샀는데요, 기념품 사업도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 관리를 하시나요?

문영호 기념품 판매 사업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박물관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 측과 협의를 하지요. 우리 쪽에서 원하는 것은 다양한 상품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가격대가 저렴했으면 하는 점입니다. 55만 원짜리 책도 팔고는 있지만,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구입하기는 어려운 일이니까 시중에서 팔리는 일반 책 값 정도인 1만 원대의 보급판도 내놓고 있습니다. 책이 보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기념품들도 가격대를 낮게 책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관 첫날에 학용품을 묶음으로 판매했는데 당일에 동이 나기도 했습니다. 학용품이나 티셔츠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권창섭 오늘 미처 다 꼼꼼하게 둘러보지 못하고 가서 아쉽네요. 조만간에 다시 와서 관람해야겠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도 추천하겠습니다.

문영호 학생들 이끌고 오세요.(웃음)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이잖아요? 우리 박물관은 매월 격주 수요일마다 '문화가 있는 수요일'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를 중심으로 기획 전시를 하거나 단체에 맞는 전시 해설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소강연도 이뤄지고

있고요.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준비해 보겠습니다.

권창섭 ‘문화가 있는 수요일’이라고 하니 더 확실히 와 닿네요. 학생들과 협의한 후에 좋은 시간 가져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문영호 저도 즐거웠습니다.

4) ‘문화가 있는 날’은 전국 문화 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생활 속 문화 향유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용·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날은 전국의 주요 문화 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이다.

이상의 ‘절벽’과 백석의 ‘바람벽’

어느 벽은 절벽이 되고 어느 벽은 새벽이 된다

—
김승희

시인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젊은 시절에 이상(李箱)의 시를 참 좋아했다. 이상 시의 언어가 갖는 매력은 자의식 과잉의 폐허 의식과 멜랑콜리(mélancolie),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언어유희의 즐거움이다. 이상의 시는 대개 깊은 멜랑콜리를 거느리고 있다. 그것은 우울증과는 약간 다르지만(수전 손태그는 우울증을 멜랑콜리에서 매혹을 뺀 것이라고 정의한다.) 죽음에 이르는 깊은 심연을 보여 주며,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것 같으면서도 모순어법이나 역설, 반어 등을 통해 아주 깊은 인간 실존의 진실을 리얼하게 드러낸다. 그리하여 그의 시는 무의미한 것 속에 양가적 의미의 풍요가 꽂피는 아름다운 난해의 수심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역사의 바람에 휩쓸려 문학에 대한 열정 하나를 들고 ‘공부’하러 간 도쿄에서 지병인 폐결핵으로 죽었지만, 늘 그렇게 어디에서 살아도 마음으로는 길을 찾고 있는 아포리아(aporia)적 주체가 시인 이상이었다. 그의 현란한 언어에는 어딘가 해석되지 않는 미정형의 공백이 스며져 나온다. 언어의 해석되지 않는 공백 안에 결론을 찾을 수 없는 아포리아가 꽂피고, 그 아포리아는 독자에게 자신의 생의 맥락에 놓고 곰곰 생각해야 할 사유의 고뇌를 넘겨주는 것 같다. 그렇듯 좋은 시는 언제

나 현재형으로 독자에게 다가온다.

시는 항상 현재형이다. 백 년 전에 태어난 시인의 눈물은 나의 현재의 눈물이 되고, 시인의 꿈은 나의 현재의 꿈으로 독자에게 파고든다. 좋은 시는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시간적, 공간적 현재 감각을 준다. 그래서 백 년 전 혹은 50년 전의 먼 나라 시인의 절규와 슬픔, 사랑과 꿈이 현재의 나의 것으로 오롯이 살아나기도 하지 않는가. 파블로 네루다의 “밤은 별이 많다. 별들은 파랗게 / 떨고 있다, 멀리서, 파랗게.”라고 쓸까? / 이 밤 나는 가장 슬픈 시를 쓸 수 있으리. / 밤하늘은 하늘에서 돌며 노래하는데, / 나는 이 밤 가장 슬픈 시를 쓸 수 있으리 / 문득 그녀가 없다는 생각. 문득 그녀를 잊었다는 느낌. / 황량한 밤을 들으며, 그녀 없이 더욱 황량한 밤”과 같은 상실감에 가득 찬 구절이라든가, 쉼보르스카의 “두 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고 /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런 까닭으로 / 우리는 연습 없이 태어나 실습 없이 죽는다 / 어떤 하루도 되풀이 되지 않고 / 서로 닮은 두 밤도 없다. / 같은 두 번의 입맞춤도 없고 / 하나같은 두 눈 맞춤도 없다. / 풀잎에 이슬이 지듯 시구 하나 영혼에 떨어진다.”와 같은 시구들은 시인의 현재를 안고 독자와 현재 위에 스며들거나 떨어진다. 그러므로 시는 언제나 영원한 현재이고 너의 이야기이자 나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불멸이기도 하다.

이상은 전근대적 봉건 생활에서 근대로 탈출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근대적 파시즘의 물결 속에서 탈근대를 꿈꾸기도 했던 모더니스트이자 탈근대주의자이기도 했으니, 그는 얼마나 앞서서 태어났던가.

꽃이보이지않는다.꽃이향기롭다.향기가만개한다.나는거기묘혈을
판다.묘혈도보이지않는다.보이지않는묘혈속에나는들어앉는다.나
는눕는다.또꽃이향기롭다.꽃은보이지않는다.향기가만개한다.나

는 잊어버리고 재차 거기 묘혈을 판다. 묘혈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묘혈로 나는 꽃을 깜빡 잊어버리고 들어간다. 나는 정말 눕는다. 아아. 꽃이 또 향기롭다. 보이지도 않는 꽃이 – 보이지도 않는 꽃이

– 이상, 〈절벽〉 전문

이렇게 이상의 〈절벽〉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모순의 향기 속에 산다는 것의 현기증을 느끼게 한다. 띠어쓰기도 하지 않은 문장의 어지러운 행렬 속에 시간의 혼란과 자의식의 혼미가 혼란하게 연속무늬를 그린다. 보이지 않는 꽃과 보이지 않는 묘혈 사이에 향기가 흐른다. 꽃만 있다면! 묘혈만 있다면!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꽃의 향기 속에 묘혈을 파고 그 묘혈 속에 향기가 흐른다는 것이다. 앓을 수도 누울 수도 없다. 잊어버릴 수도 다시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절벽 – 궁지의 아포리아 –, 절벽(絕壁)이란 문자 그대로 벽 조차 끊어진 깍아지른 듯한 낭떠러지가 아닌가.

시 〈절벽〉은 그런 어지러운 내면의 위기를 보여 준다. 보이지 않는 꽃향기가 어디에선가 흘러오고 그 향기 속에 묘혈을 파고 눕고자 하나 또 다시 흘러오는 향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묘혈을 파는 시적 자아의 모습은 오늘, 여기를 사는 나의 자아와 동일시되어 떠오른다. 삶 충동과 죽음 충동의 양가적 모순이 인간의 실존이라면, 이렇게 삶 충동과 죽음 충동이 혼재되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아포리아 속 삶의 현기증이 바로 나의 삶이자 ‘절벽’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이 시는 그것을 읽는 독자에게 현재성을 부여하며 현재 내 자아의 주체할 수 없는 분열과 혼미의 주체성을 드러나게 한다. 꽃과 묘혈 사이에 향기가 있다. 그 공간 속에서는 완전히 누울 수도 앓을 수도 없다. 이 시에는 또한 묘한 음성적 묘미가 있다. 향기-묘혈로 이어지는 ‘ㅎ’ 음의 반복과 ‘ㅎ’ 음의 연속적

되풀이가 만드는 기표적 차원의 의미 중첩과 혼란이다. 사실 향기는 (보이지 않는) 꽃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향기-묘혈과 같은 ‘ㅎ’ 음의 연속적 반복으로 인해 이상하게도 향기가 꽃이 아니라 묘혈과 더 가까운 것으로 감지된다. 묘혈-향기에 나타나는 음의 친연성(親緣性)으로 말미암아 의미의 친연성이 일어나는 기의적 차원의 착란이 아포리아의 막다른 현기증을 더 배가시키고 이상 시의 매력을 한층 더 풍부하게 한다.

“꽃이보이지않는다.꽃이향기롭다.향기가만개한다.나는거기묘혈을 판다.”라는 이 갈 길 모르는 아포리아는 멜랑콜리를 낳고 이것이냐 저 것이냐를 분리할 수 없는 이중 의식, 모순 의식은 반어를 낳는다. 키르케고르는 아이러니를 무한한 부정성의 에너지로 보면서 ‘이것이냐 저 것이냐’의 이항 대립 중 그 어느 것도 긍정하지 않는 데에 아이러니의 무한한 보류가 있고, 그것이 아이러니스트에게 무한한 자유와 열광을 준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아이러니 속의 궁극의 궁지가 바로 ‘절벽’이며, 궁지에 내몰린 자의 자유는 바로 그 궁지의 멜랑콜리를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드러날 수 있다. 이상은 타자에게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타자는 보이지 않는 타자이고 알 수 없는 타자이고 향기가 만개하는 매혹의 타자이지만 결국 양가적으로 묘혈을 파야 할 죽음의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비슷한 ‘벽’의 상황에 대해 노래하지만 백석(白石)은 벽을 넘어서 자기 구원과 승화를 꿈꾼다. 이상의 <절벽> 못지 않게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도 식민지 시대인이 맞게 되는 생존의 위기를 잘 보여 준다. 식민지 시대 우리 시는 그러한 절벽 의식과 벽 앞에서의 순명 의식, 혹은 절명 의식을 많이 노래했다. 식민지 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다 ‘식민’이라는 뿌리 뽑힌 상황에서 유랑할 수밖에 없는 디아스포라(diaspora)의

삶을 살아야만 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디아스포라적 주체의 유랑 의식과 슬픔과 생존의 벽을 노래한 시인은 단연 백석이다. 백석의 '흰 바람벽'은 보다 더 구체적인 역사적 존재로서 시적 자아의 상실감과 따뜻함이 필요한 어느 쓸쓸함에 대해 쓴다. 백석은 추위 속에 바람을 간신히 막아 주는 바람벽에서 지금은 헤어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고 어머니, 연인 등 그리운 사람들을 바라본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시적 자아를 향해 있지 않으며 각기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삶이란 자기 상황 속에서 사랑의 노동이다. 시적 자아는 그들을 그리워하면서도 그들에게 위로를 얻을 수가 없고 그들의 시선과 사랑에서 지금 소외되어 있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샤쓰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
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면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조 앉어 대구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어가도록 태
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어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
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짹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쓰 챕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전문

춥고 지친 어느 날, 외로운 생각이 드는 시간, 시적 자아가 마주하고
있는 ‘흰 바람벽’은 마치 영화관의 스크린이나 거울처럼 그 위에 따뜻한
상상계의 영상을 펼친다. 마치 영화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바람벽에서

시적 자아는 지금은 헤어져 멀리 있는 사랑하는 어머니와 연인의 모습을 바라본다. 영상은 덧없지만, 그러나 가난한 어머니는 추운 물속에 손을 담그고 무와 배추를 씻고 있고 전에 연인이었던 어여쁜 사람은 벌써 아이까지 생겨 지아비와 함께 대구국을 끓여 놓고 먹고 있다. 춥고도 따스한 장면이다. 그들은 각기 자신의 삶 속에서 사랑의 노동을 하고 있는데 시적 자아만 그들을 그리워할 뿐 그들은 시적 자아를 마주 바라볼 수 없다. 그들의 시선은 어긋나 있으며 그 어긋남이 시적 자아의 쓸쓸함의 각도이다.

그렇게 그리운 사람들에게서 소외를 느낀 화자는 상상계적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것은 글자의 차원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어가도록 태어났다”라는 글자가 지나가면서 시적 자아의 정신은 거울 단계와도 같은 상상의 차원을 넘어서서 문자의, 상징계의 차원으로 올라선다. 그러한 문자들의 세계는 주체를 상징 사회로 진입시키고 그 상징 세계에서 자기 위치를 확립시켜 준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라는 말은 그리운 사람들을 바라보며 소외감을 느끼고 쓸쓸함이 더 깊어진 시적 자아에게 상상의 위로 대신에 상징적인 힘을 준다. 그러한 상징적 힘은 시적 자아를 하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하늘의 귀중한 존재로 새로 자리 잡게 한다. 진정한 치유와 위로를 주는 ‘흰 바람벽’은 사랑하는 추억 속의 어머니나 연인이 아니라 하늘의 사랑인 것이다. 그렇게 시적 자아는 흰 바람벽 앞에서 승화되며 새로운 자아의 위치를 얻게 된다. 그리하여 상징 세계에서 시적 자아는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짹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 그리고 또 프랑시쓰 챔과 도연명과 라이렐 마리아 릴케가 그

러하듯이” 가난하고 높고 쓸쓸하지만 귀하고 하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의 새벽을 맞게 되는 것이다. 〈흰 바람벽이 있어〉에서 시인이 궁극적으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은 사랑하는 어머니나 연인 등이 아니라 하늘의 사랑이다. 그것을 흰 바람벽 위에 나타난 문자의 상징적 차원을 통해 확인하면서 시적 자아는 새로운 존재의 새벽을 열게 된다.

이렇게 식민지 시대에 존재의 위기에 대해 노래했던 두 편의 시를 통하여 아포리아적 존재의 현기증으로서의 절벽(이상)과 바람벽을 지나 가는 글자로 만난 ‘하늘의 힘’에 의해 깨닫게 되는 존재의 새벽(백석)에 대해 기술해 보았다. 어떤 벽은 존재의 절벽이 되고 어떤 벽은 존재의 새벽이 된다. 그중 어떤 시가 더 위대하고 더 매력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단지 절벽과 바람벽과 새벽이라는 우리말이 너무나 절묘하게 어떤 유사성과 차이를 간직하고 또 그것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도 아름답지 않은가?

삶과 우리말

우리말 부라퀴가 되리라

고정욱

소설가 · 아동문학가

1

작년에 나는 300번이 넘는 강연을 하기 위해 전국으로 불려 다녔다. 한 사람이 300번 넘게 강연을 다닌다는 것은 공휴일 빼고 거의 하루에 두 번씩 강연을 했다는 의미이다.

내가 이렇게 강사가 되어 버린 이유는 수많은 내 작품들이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인기 작품이 되었기 때문인 듯하다. 유치원에서는 내가 쓴 그림책을 읽고, 초등학교에서는 내가 쓴 동화를, 그리고 중 · 고등학교에서는 나의 청소년 소설을 탐독하다 보니 그들은 나의 냉돌 같은 고정 팬이 되었다. 독자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작가와의 만남을 준비할 때 나를 불러 달라고 간청(?)한다는 것이다. 덕분에 나는 쑥스럽지만 전국에서 불러 주는 인기 있는, 연예인 아닌 연예인이 되고 말았다. 특히 청소년들은 나의 작품인 ‘까칠한 재석이’ 시리즈(《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 《까칠한 재석이가 돌아왔다》, 《까칠한 재석이가 열 받았다》 3권)에 열광한다. 어디 그뿐인가? 《가방 들어주는 아이》, 《아주 특별한 우리 형》, 《안내견 탄실이》 그리고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인기 있는 작품들이

제법 많아 본의 아니게 자랑 아닌 자랑처럼 되었다.

작가와의 만남 강연이 끝나면 ‘까칠한 재석이’ 시리즈를 읽은 학생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등장인물 ‘부라퀴’에 대한 것이다.

“선생님, 부라퀴는 선생님이 모델이시지요?”

“응. 내가 부라퀴에게 빙의되었지.”

부라퀴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소설의 주인공인 까칠한 재석이는 이른바 학교에서 주먹깨나 쓰는 ‘일진’ 깔렁패 녀석이다. 그런데 재석이가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복지관에 갔다가 회심을 하여 모범생으로 거듭나게 만든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다름 아닌 부라퀴이다. 물론 본명이 부라퀴는 아니다. 하도 하는 짓이 지독하고 깐깐하기 때문에 주인공인 재석이가 붙인 별명이다.

부라퀴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야물고 암팡스러운 사람’이란 뜻이다. 순우리말인 부라퀴를 별명으로 쓰게 된 것은 이 멘토에게 붙여 줄 마땅한 호칭이 없을까 생각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 별명이 쉽게 지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가장 먼저 후보로 올라갔던 별명 중 하나가 ‘구나방’이었다. 구나방은 그러나 의미가 조금은 부정적이었다. 말이나 행동이 거칠고 사나운 사람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주인공인 문제아 재석이를 거칠고 강하게 다루긴 해야 하지만 또 한편에는 그 행동에 애정이 담겨 있어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다음으로 쓸 만한 것이 뭐가 있나 찾아보니 ‘분대꾼’이 있었다. 분대꾼은 소란스러운 짓으로 남을 괴롭히는 사람을 뜻한다. 이것 역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 최종적으로 탈락하고 말았다.

가납사니: 쓸데없는 말을 잘하는 사람

모주망태: 술을 늘 대중없이 많이 먹는 사람

말재기: 쓸데없는 말을 꾸며내는 사람

새퉁이: 밀살스럽고 경망한 짓. 또는 그런 사람

불뚱이: 걸핏하면 불끈 성을 내는 성질. 또는 그런 사람

.....

이렇게 수없이 많은 우리말 가운데서 고르고 고르다가 결정된 것이 바로 ‘부라퀴’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나라 최초의 컴퓨터 그래픽 흥행작이었다는 심형래 감독의 영화 〈디워〉에 나오는 이무기의 이름도 부라퀴였다고 한다. 심형래 감독도 아마 적당한 이름을 찾기 위해 국어사전까나 뒤졌던 모양이다.

부라퀴에 대한 대답을 해 주니 아이들은 또 다른 연쇄 질문을 한다.

“선생님, 왜 가끔 선생님 작품에는 어려운 말이 나와요?”

또 좋은 질문이다. 왜 나는 사진을 찾아야만 뜻을 알 수 있는 순수한 우리말들을 작품에 집어넣는 것일까?

그것은 일종의 창작 원칙이다. 동화가 되었던 소설이 되었던 나는 가급적이면 그 작품 안에 우리말을 한두 개 씩 소개하려 애쓴다. 뜻을 직접적으로 소개하지는 않더라도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 짐작할 수 있도록 배려한 셈이다. 이렇게 된 사연을 알려면 잠시 나의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독서를 좋아했던 나는 아무 목적 없이 책읽기를 즐겼다. 청소년기에도 봄늦게 소설 읽는 재미에 풀 빠진 적도 있었고, 독서량도 또래의 청소년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았다.

그랬던 나는 진로를 이과로 정해 의대나 공대에 진학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것은 사회 현실을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대학 입시에 맞닥뜨리고 나서야 나 같은 장애인은 이공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공계 대부분의 학과가 신체검사를 통해 장애를 가진 지원자를 탈락시킨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뒤 각다분해진 나의 실망과 좌절은 엄청난 것이었다. 가뜩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어 20점이나 배점되는 체력장에서도 불리한데 학과조차 원하는 곳을 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헬렌 켈러의 말대로 신은 인간의 문을 닫으면 창문을 열어 주는 것 같았다. 주위의 권유로 나는 이과 전공의 꿈을 포기하고 급작스럽게 문과로 방향을 바꿔 진학하기로 했다. 그 결과 들어가게 된 학과가 국어국문학과였다. 국어학과 국문학을 연구하는 학과에 진학하게 되리라고는 꿈도 꿔 본 적이 없었지만 운명은 그렇게 나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재학생으로 만들고 말았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은 해야 하니 대학을 다니게는 되었지만 초기의 1, 2년간은 준비하지 않은 전혀 다른 학문의 세계에서 방황하고 혼들려야만 했다. 국문학과의 전공과목은 수업 시간에 소설책을 소리 내어 읽고, 그 작품의 문학성을 논하는 것이었다. 수치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언어의 잔치라고 느낄 만큼 이과와 문과의 학문 세계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희망도 보였다. 다행히 어려서부터 문학 작품을 많이 읽었던 것이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3학년쯤 되어 문학 공부의 맛을 알게 되자 마치 운명이 나를 이 길로 이끈 것만 같았다. 문학 공부가 반드시 나의 갈 길이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문학을 공부하던 그 시절 학과 교수님들은 이런 말들을 했다.

“문학을 공부하는 작가들이야말로 그 시대 지식인들의 대표이자 선두 주자야. 그렇기에 작가에게는 우리말을 지키고 가꾸며 개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누가 한 말인지, 누가 이렇게 거창한 사명을 내 안에 심어 줬는지는 기억에 없다. 아니, 어쩌면 이 명제는 내가 스스로 사유에 의해 에디톨로지적으로 편집해 만든 말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경구 하나는 그 뒤 나의 뇌리에 오래도록 각인되었다. 아니, 작가가 되는 여성에서 놓을 수 없는 화두였다.

작가의 꿈을 갖게 된 뒤 읽은 수많은 문학 작품들도 그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많은 작가들이 정말 열심히 우리말을 찾고 개발하여 자신의 작품 속에 녹여 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구수한 자신의 고향 충청도 방언을 살려낸 이문구나, 작품 자체가 그대로 우리말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김주영, 홍명희, 천승세 등의 작품들이 나에게 큰 감화를 주었다.

나는 마치 영어 공부를 하듯 그들의 작품에 나오는 어려운 우리말들을 찾아 국어사전을 뒤적였고, 그렇게 알게 된 단어들을 노박이로 공책에 옮겨 적어 단어장을 만들었다. 영어는 열심히 단어장을 만들면서, 우리말은 만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지를 깨닫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아래에 그때 선배 작가들로부터 얻은 단어들 일부를 소개해 본다.

뱃구례: 사람이나 짐승의 배의 통

껍죽거리다: 신이 나서 경망스럽게 까불거리다

씨루다: 서로 벼티어 겨루다

조막손: 손가락이 오그라들어 펴지 못하는 손

꽁수: 보기와는 딴판으로 속으로 은근히 품고 있는 야심

오방지다: 옹골지다

– 김주영, 〈도둑견습〉 중에서

무삶이: 물을 대어 논을 삶는 일

칠석물: 칠석 무렵에 오는 비

지청구: 아무 이유 없이 남을 원망하고 탓하는 일

목새: 물에 밀려 모인 부드러운 모래

된비알: 혐상궂은 비탈

– 이문구, 〈우리동네 김씨〉 중에서

그렇게 정리한 노트는 권수가 한 권 두 권 늘어나게 되었고, 나는 많은 문학 스승들을 통해 우리말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이 문장 한 줄 작품 하나를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며, 머리를 싸매는지도 알게 되었다. 그 뒤 나는 우리말 단어를 익히는 것이 영어 단어 수백 개 익히는 것보다 더욱더 송고하고 보람되며 아름다운 일이라는 자기 세뇌를 끊임없이 했다.

나의 그러한 우리말 어휘에 대한 욕심과 수집욕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마침내 10여 년 뒤 『살려 쓸 우리말 사전』이라는 책으로 발간되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랜 습작 기간을 거쳐 등단을 하게 되었으며, 고맙게도 지금까지 작가의 길을 걷고 있다.

물론 작품 속에 이러한 순우리말을 넣는 일은 현실적인 벽에 많이 부딪히는 것이기도 했다. 의도적으로 찾아 넣은 말들은 간혹 편집자들이나 독자들의 불평을 샀다. 왜 굳이 잘 모르는 말을 써서 자신들이 독서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지나치게 어려운 말을 구사함으로써 몰입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잘못된 주장은 아니다. 하지만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서 우리말을 몇 개씩이라도 써 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사전 속에 있는 그 많은 말들은 어디로 간단 말인가. 시나브로 사어가 되어 영원히 잊힌다면 너무나 안

타깝지 않은가. 우리말과 얼이 사라지는 것을 그냥 눈 뜨고 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과하지 않게, 그러나 결코 빼놓지 않고 내 작품 안에 우리말들을 적당히 집어넣으려 애를 쓴다.

언젠가 제자가 해 준 웃지 못 할 이야기가 기억난다. 누군가 보내온 편지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알지 못해 편지의 주인은 옆집에 가서 우리말 사전이 있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영어 사전은 있지만 우리 말 사전은 없다는 대답에 그 옆에 있는 대학교수 집에 찾아갔다고 한다. 유수한 대학의 교수라는 그 역시 여러 권의 영어, 불어 등 외국어 사전은 다 갖추고 있었지만 정작 우리말 사전이 없었다. 결국 온 동네를 다 뒤져도 우리말 사전이 하나 없었는데 마침 학교 갔다 돌아오는 초등학생의 가방 속에서 나와 그걸 보고 말뜻을 알았다는 거다.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글로벌 인재를 개발한다거나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이 화두가 될 정도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외부에 쏠려 있다. 세계가 그렇게 변한다면 따라가야만 하리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갈 길이라면 거부하진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얼과 우리말만은 붙들고 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말과 얼도 내다 팔아 버린다면 결국 우리가 돌아와서 몸담을 곳은 어디란 말인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되는가? 온 동네에 우리말 사전 하나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선 안 되리라.

백두산 여행을 갔을 때의 일이다. 연변에서 버스로 이동하는 길 중간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식사도 하고 화장실도 이용했다. 그때 덩치가 커다란 잡상인들이 우리 일행에게 달라붙어 뭔가를 사라고 강요했다. 그들이 내미는 건 정체불명의 산삼. 가이드는 그들과 말도 섞지 말라고 했다. 그들은 생김새나 말투가 여느 중국인들과 달랐다. 버스가 떠난 뒤에야 가이드는 저들이 한족이 아니라 과거 만주족의 후예들이라는

말을 해 주었다. 우리가 흔히 들었던 여진족이라든가 말갈족, 오랑캐 등의 북방 민족 이름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들은 언어를 잃어버린 민족이었다. 언어를 잃어버리니 자연스럽게 민족의 혼이나 정기도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지금도 작품을 쓸 때면 그 안에 우리말들을 약간씩 끼워 넣으려 애를 쓰고 있다. 그건 우리 민족의 얼을 지키려는 거창한 명분을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내 것을 지키려는, 소박한 안간힘이다. 이 글도 예외는 아니다.

내가 집어넣은 그 말들이 작품 속에 실려서 독자들의 뇌리에 박혀 조금이라도 생명력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도 모르게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부라퀴가 되어 가고 있다. 당신도 우리말 지킴의 부라퀴가 될 마음은 없는가.

세계의 언어 사전: 프랑스

300년 전통의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

하영동

전남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1. 들어가며

프랑스에서는 새 학년이 시작될 때쯤이면 서점이나 대형 마트의 서적코너에서 어린아이와 함께 사전을 살펴보고 있는 학부모들이 눈에 많이 띈다. 출판사들이 어린이의 언어 능력과 지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전을 출시해 자신의 아이에게 적합한 사전을 골라 주려는 것이다. ‘전과’나 ‘자습서’를 구입하는 우리나라의 신학기 풍경과는 사뭇 다르다.

프랑스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문맥을 통하여 낱말의 다양한 의미들을 구별하고, 사전에서 낱말이나 표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교과 과정과 수업 시간에 사전 이용을 권고한 교육부의 지침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사전 이용에 익숙해져 있다. 사전에 친숙해진 어린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전 이용을 일상화하고, 이러한 사전 이용의 보편화는 사전학 이론을 발달시키고 좋은 사전을 편찬하는 밑거름이 된다. 그 결과 프랑스에서는 일 년에 수십만 권씩 판매되는 《프티 로베》

르(Le Petit Robert)»와 «프티 라루스(Le Petit Larousse)»와 같이 인기 있는 사전들이 나오게 되었다.

프랑스에서 좋은 사전들이 출판되는 데에는 아카데미 프랑세즈 (Académie française)도 한몫을 담당한다. “프랑스어에 분명한 규칙을 부여하고 프랑스어를 예술과 과학을 논할 수 있는 순수하고 우아한 언어로 만드는 것”(아카데미 정관 제24조)을 목적으로 1635년에 설립된 이 국가 기관은 창립 때부터 사전 편찬과 연구를 주된 활동으로 삼고 있다. 아카데미는 설립 당시 사전 외에 문법서와 수사학과 시학 관련 서적을 출판할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문법서는 1932년에야 비로소 출판되었고, 그나마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수사학과 시학 작업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다. 결국 사전 출판이 아카데미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가 된 셈이다. 아카데미는 사전을 제작해서 프랑스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공헌하고 있으며,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로 구성된 프랑스어 수호 기관에서 출판된 사전은 다른 사전 출판에 가장 중요한 기본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한 국가의 최고의 책은 사전”이라고 했던 볼테르와 “언어 하면 사전을 생각하고, 사전 하면 프랑스에서는 먼저 아카데미 사전을 연상한다.”라고 했던 크마다(Quemada 1998:7)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프랑스에서 아카데미 사전은 최고의 책이자 사전 중의 사전으로 꼽힌다.

2. 아카데미 사전의 편찬 배경과 출판 역사

2.1. 16~17세기 프랑스어 사전 출판 현황과 아카데미의 창립

프랑스어를 표제어로 삼은 최초의 사전이 출간된 것은 1539년이다.

프랑스어로 쓰인 최초의 문서로 간주되는 ‘스트라스부르의 서약(Le Serments de Strasbourg, 842년)’이 있고 한참의 세월이 흐른 뒤다. 그 사이 일 드 프랑스의 한 방언에 불과했던 프랑스어는 한편으로는 프랑스 내의 다른 방언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라틴어와 경쟁하면서 그 영역을 꾸준히 넓혀 나갔고, 1539년 빌레르코트레 칙령(Ordonnance de Villers-Cotterêts)으로 마침내 왕국의 행정 언어로 자리를 잡게 된다. 라틴어를 밀어내고 프랑스어가 왕국의 공식 언어로 공포된 해에 왕실 인쇄업자인 에티엔(Etienne)이 프랑스어를 기술 대상으로 삼은 『프랑스어-라틴어 사전(Dictionnaire françoislatin)』을 출간한 것은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사전은 프랑스어를 표제어로 삼긴 했지만 프랑스어보다는 라틴어 공부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라틴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지 못하는 성직자들의 임무를 돋기 위해 편찬된 것이다. 이 사전은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듭하다 제5판에 이르러서는 니코¹⁾에 의해 그 명칭까지 『프랑스어의 보고(Thresor de la langue françoise)』(1606)로 변경된다. 1만 8,000여 개의 표제어 가운데 많은 항목에서 의미와 용례 등이 프랑스어로 제시되는 등 프랑스어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런 점 때문에 니코의 사전을 최초의 프랑스어 단일어 사전으로 간주하는 학자도 있지만, 라틴어 등가어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 단일어 사전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결국 17세기 초까지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어 단일어 사전이 아직 출간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이웃 나라 에스파냐와 이탈리아에서는 각각 1611년과 1612년에 코바루비아스

1) 니코(Jean Nicot, 1530~1600)는 16세기 리스본 주재 프랑스 대사를 역임했으며, 담배를 프랑스로 들여온 인물이다. ‘니코탄’이란 명칭은 그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Covarrubias)와 크루스카 아카데미(Accademia della Crusca)가 에스파냐어와 이탈리아어 단일어 사전을 출판하였다. 이 두 사전 덕분에 프랑스인들은 단일어 사전에 대한 개념과 모델을 갖게 되었고, 프랑스에서도 그만큼 단일어 사전 출판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1635년 리슐리외는 아카데미 프랑세즈를 창립하였다.

2.2. 아카데미의 사전 편찬 과정과 역사

아카데미는 설립과 더불어 곧장 사전 편찬 작업에 착수하였다. 엄밀하게는 설립 1년 전에 이미 사전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카데미가 정식으로 창립되기 1년 전에 샤플랭(Chaplain)에게 사전의 계획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1637년 12월 샤플랭은 아카데미에 작품 계획안을 제출하였고 동료들은 그의 계획안을 채택하였다. 크루스카 아카데미가 편찬한 사전을 모델로 삼은 그 계획안의 핵심은 옛날 작가들의 훌륭한 작품에서 좋은 문장들을 발췌하여 용례로 삼는 것이었다. 이 작업을 위해 아카데미 회원들은 산문과 시 부문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들의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작업의 방대함을 깨달은 회원들은 곧 이 작업을 포기하게 된다. 크루스카가 채택했던 문헌학적 관점을 포기하고 대신 아카데미는 용례들을 직접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본격적인 사전 작업은 1638년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일의 진척은 더디기만 했다. 문자 'A' 항목 하나만 작업하는 데에도 9개월이나 걸렸다. 이 작업이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면서도 회원들은 사전 편찬에 그리 큰 열정을 보이지 않았다. 작업에 진전이 없자 샤플랭은 리슐리외의 동의를 얻어 1년에 2,000리브르의 연금을 주기로 하고 편찬 책임을 보출

라(Vaugelas)에게 맡겼다. 1639년부터 작업을 시작한 그는 'I' 항목까지 작업을 진척시키고 1650년에 사망한다.

사전 완성이 늦어지자 콜베르는 회의 참석자에게만 배당금을 지불하는 '참석 배당금제'를 시행하였다. 회원들이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시에 도착해야 했고 결석자의 뜻은 참석자들끼리 나눠 갖도록 했다. 이제도는 회원들이 정시에 도착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배당금의 분배는 출석자들을 분열시키고 그들에게 사전보다 배당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1672년 사전의 초안이 완성되었고 1678년부터 인쇄가 시작되었다. 한편 1674년 6월 28일 루이 14세는 공식 문서로써 아카데미의 사전에 독점권을 승인하였다. 이 특권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아카데미 사전이 출간되기 전에 다른 프랑스어 사전이 출간되는 것이 금지되었다.²⁾

우여곡절 끝에 1694년 8월 21일, 사전 출판을 결정한 지 60년 만에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 초판이 완성되었다. 3일 뒤인 8월 24일, 투레이(M. de Tourreil)를 단장으로 하는 아카데미 대표단은 베르사유 궁 왕의 접견실에서, 사전 편찬을 후원하고 특전을 베풀어 준 루이 14세에게 사전을 현정하였다. 왕은 매우 흡족해하며,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사전 편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사전은 매우 훌륭하고 유용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가 시간에 사전을 보고 그것을 활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Benhamou et al. 1997:22)라고 말했다고 한다.

출판의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초판의 부족한 점을 인식한 저자들은 곧 수정 작업에 착수해야 했다. 그때부터 사전 수정 작업은 아카데미의

2) 아카데미 사전과 경쟁 관계에 있던 리슐레의 사전과 뷔르티에르의 사전은 각각 1680년과 1690년에 스위스와 네덜란드에서 출판되었다.

주요 업무가 된다. 1718년 제2판이 출판되었고, 제3판과 제4판이 각각 22년의 간격으로 1740년과 1762년에 발행되었다. 대혁명으로 구체제가 전복되고 아카데미가 폐지되면서 한때 사전 출판이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사전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민의회(Convention)가 사전의 출판을 허락하여 1798년 제5판이 출판될 수 있었다. 제6판은 대혁명 이전의 기능이 회복된 아카데미에 의해 1835년에 완성되었다. 제7판과 제8판은 각각 1878년과 1932~1935년에 출판되었다. 1936년부터 제9판을 위한 수정 작업이 시작되어 1992년에 제1권이, 2000년에 제2권이, 2011년에 제3권이 출판되었고, 현재 제4권이 집필 중에 있다.³⁾

아카데미는 1635년 창립 때부터 제9판의 제3권이 출간된 2011년까지 평균 40여 년 간격으로 사전을 출판하고 있는 셈이다. 평균 40년이지만 제8판 제작에는 57년이 걸렸고, 제9판은 70년이 넘도록 완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사전 편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카데미의 사전 편찬 방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판은 바로 이전 판을 수정하여 출판되는데, 어휘 목록에 새로운 낱말을 삽입하거나 기존의 낱말을 삭제할 때와 내용에 수정을 가할 때는 회원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투표로 결정하기도 한다. 20세기 들어 출판되는 판부터 '비약적으로' 많은 낱말들이 등재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사전의 제작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아카데미의 이런 편찬 방식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실제로 사전 출판이 너무 느리다는 이유로 아카데미가 많

3) 현재 아카데미 프랑세즈 홈페이지에서 제8판과 제9판 'A'에서 'Recez' 항목까지 검색이 가능하다.

은 비판과 조롱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비효율성이 사전 내용의 질을 담보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아카데미 사전에 명성과 권위를 가져다주게 되었다.

3. 사전의 성격과 편집 원칙

3.1. 사전의 성격과 표제어의 규모와 선별 원칙

아카데미 사전은 낱말과 문법적 요소를 우선시하는 언어 사전이다. 또한 어원이나 역사 사전이 아닌 공시적인 용법 사전이다. 아카데미 사전의 목적은 편찬 당시의 언어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 있었다. 언어에서 이성(raison)보다는 용법을 더 중요시한 아카데미는 언어의 변화에 개방적이었으며, 결코 언어의 변화를 부정하거나 언어를 특정 상태로 고정하려 하지 않았다. 아카데미는 언어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 변화가 용법으로 확립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 아직 확립되지 않은 용법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다가 용법으로 확립된 것만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아카데미가 확립된 모든 용법을 기술한 건 아니다. 아카데미는 언어의 용법 중 올바른 용법(bon usage)만을 선별하여 기술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아카데미 사전은 선별 사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카데미 사전은 오늘날 말해지는 상태 그대로 언어의 총체를 기술하고자 하는 확장형 사전인 《로베르 대사전(Le Grand Robert)》, 《라루스 대사전(Le Grand Larousse)》이나 《프랑스어 보고(TLF)》와는 구별된다.⁴⁾

4) 한 언어의 총체를 기술하는 것은 이론적 지향점이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아니다.

확립된 올바른 용법만을 선별하여 실은 아카데미 사전은 다른 대사전에 비해 표제어의 규모가 작은 편이다. 사전의 서문에 따르면 제4판에는 1만 8,000여 개, 그리고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제8판에도 3만 5,000여 개의 표제어만 등재되어 있을 뿐이다. 제9판은 현재 제3권까지만 출판된 상태라 정확한 표제어의 규모를 알 수는 없지만 제1권에 1만 4,024개, 제2권에 1만 1,500개, 제3권에 9,860개의 표제어를 등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마지막 권인 제5권이 완성된다 해도 약 6만 개 내외의 표제어가 등재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더라도 여전히 그 규모는 다른 대사전에 비해 훨씬 작은 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앞에서 밝힌 아카데미 사전의 선별적 성격과 관련된다.

아카데미는 초판부터 교양 있는 신사들이 일상적인 교제에서 사용하는 공통어에 한정하여 어휘 목록을 선정한다는 대원칙을 세웠고, 판을 거듭하면서도 이 선정 원칙을 계속 유지하였다. 이 원칙에 따라 용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고어는 등재하지 않았다. 신어 또한 배제하였다. 그렇다고 아카데미가 언어의 변화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 아카데미는 새롭게 탄생된 낱말이나 기존 낱말에 새로운 의미가 추가될 때 이것들의 용법이 뿌리내릴 때까지 기다렸다. 즉 아카데미는 새로운 낱말을 바로 등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낱말이 용법에 의해 승인됐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이를 수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 학술이나 기술 용어도 배제하였다. 이것이 아카데미 사전이 다른 사전보다 표제어가 적은 가장 주된 이유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어 중 일반어가 되었거나 비유적 의미로 사용될 경우는 등재하였고, 오늘날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규범 사전인 아카데미 사전은 초판부터 그 성격에 맞게 격분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단어들은 등재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카데미 사전이 완벽하게 모든 속된 표현들을 배제한 것은 아

니다. 아카데미는 일부 속된 표현들이나 대중적인 속담 등에 일정 부분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비록 속된 표현들이라 하더라도 용법에 의해 인정되고 언어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게 되면 이를 받아들였다. 외래어 선정에 관해서는 제9판 서문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나 이미 8판에서 차용어에 대해 문호를 개방한 것으로 보인다. 아카데미는 “외래어가 일시적인 유행어가 아니라 용법으로 완전히 정착되고 외래어가 지시하는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는 낱말이 프랑스어에 존재하지 않을 때”에 한하여 그 외래어를 수용하고 있다.

언어에 관한 규칙을 제시하고 이를 보존하여 후손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명을 띤 국가 기관은 시간의 개념뿐만 아니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아카데미는 프랑스어를 공용어나 모국어, 제2언어로 사용하는 나라들의 언어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1989년 5월 11일과 18일 회의에서 아카데미는 프랑스어권의 다양한 나라에서 이용되고 있는 낱말, 표현, 의미들을 권장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결정대로 제9판 1권부터 프랑스어권에서 사용되는 낱말들이 등재되기 시작하였다. 아직 그 수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아카데미가 프랑스어권의 용법에까지 그 수용 범위를 확대한 것은 단순히 지역어를 수용하여 공통어를 풍부하게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프랑스어권에서 관찰된 변이들도 규범화된 용법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2. 표제어의 배열, 발음, 정의와 용례

표제어 배열 방식은 초판 편찬 기간 내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아카데미는 기본어와 파생어, 합성어가 있는 프랑스어에는 단순 알파벳 배열보다 어근에 의한 배열 방식이 더 매력적이고 교육적이라 판단

하여 이 방식을 택했다. 기본어와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낱말들을 한 항목에 통합하여 기술하는 이 방식은 낱말의 역사를 반영하고 뜻풀이의 반복을 피하게 하며 어휘의 풍부함을 잘 보여 주는 장점이 있으나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단어를 쉽게 찾을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장점이 많음에도 초판이 나오자 아카데미는 사전을 참고하기가 어렵다는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또한 사전 참고가 쉽지 않다는 점은 비슷한 시기에 출판되었지만 알파벳 배열 방식을 택한 리슐레의 사전과 푸르티에르의 사전과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아카데미는 초판에서 가장 혁신적이라 할 수 있었던 어근에 의한 배열 방식을 제2판에서 포기하고 알파벳 배열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그리고 단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장점이 없는 이 방식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아카데미는 초판부터 발음 정보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좋은 발음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책에서 발음 기호를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발음이 좋은 사람들의 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처럼 발음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아카데미는 외국어의 발음을 배우고 싶으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직접 듣고 배울 것을 권장했다. 아카데미는 철자와 발음은 본질적으로 구별되며 그 존재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보았다(7판 서문). “철자는 눈을 위해, 발음은 귀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이 눈을 위하는 발음을 표상하기 위해 어떤 수고를 한다 해도 사전에서 발음을 배울 수 없으며, 배운다 해도 잘못 배우는 것이라 하였다. 그럼에도 아카데미는 발음과 철자의 차이가 너무 커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초판부터 별도의 기호를 이용하지 않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발음 정보를 주고 있다.

정의는 사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사전 편찬자에게는 가장 어려

운 임무이다. 이전 사전을 수정하여 새 판을 출판하는 아카데미에 새롭게 등재할 낱말과 삭제할 낱말을 결정하는 일과 더불어 새로운 낱말을 정의하는 것과 기존의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정의를 수정하는 것은 핵심 업무였다. 아카데미 회원들은 동의어와 짧은 문장으로 하는 정의를 선호했기에 그들의 정의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초판부터 인정하였다. 정의의 불완전성은 한 낱말의 절대적 동의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어떤 정의도 한 낱말이 지니는 총체적 의미를 포괄할 수 없다는 데에 있었다. 또한 정의는 시대의 지적 수준을 반영하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전문 용어의 정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수정판을 낼 때마다 앞 판의 부정확한 정의를 보완하고 명확히 하려고 노력하였다. 또 판을 거듭하면서 더 많이 등재되고 있는 전문어들에 대해 더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과학 아카데미나 관련된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였다.

용례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정의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사전 편찬자들은 용례를 직접 만들 수도 있고, 널리 알려진 작가들의 작품에서 인용할 수도 있다. 아카데미는 초판 편찬 시 용례를 직접 만들기로 결정하였고, 이 결정은 현재까지도 준수되고 있다. 아카데미가 인용문 대신 용례를 직접 작성한 주된 이유는 사전 편찬을 결정할 당시 프랑스에는 언어 규범의 모델로 삼을 만한 권위 있는 작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라신, 볼테르, 위고 등과 같이 모델로 쓰일 수 있는 작가들이 등장한 이후에도 아카데미는 계속해서 용례를 스스로 만드는 초판의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일정 부분 아카데미 회원들의 자부심 내지는 겸손함과도 관련된다. 가장 유명한 책들에서 용례를 추출한다면 아카데미 회원들은 자신의 작품에서 인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것은 겸손의 미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물론 용례를 직접 만든 이유가 겸손함

때문만은 아니다. 아카데미는 직접 만든 용례들이 의미 영역에 대해 더 명료한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작가들은 글을 쓰면서 단어의 의미 폭을 명확하게 보여 줄 의도가 없기 때문에 낱말의 의미에 대한 최상의 예증을 위해서는 스스로 언어의 전문가라 자부할 수 있는 아카데미 회원들이 용례를 직접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카데미는 초판 준비 단계부터 용례를 손수 만들 것인지 인용할 것 인지를 놓고 많은 논쟁을 하였고, 한때 인용문을 사용하려는 시도를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초판의 입장을 고수하였고, 인용이 언어 대사전의 일반적 추세인 현재에도 용례를 직접 만드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아카데미 사전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없는 독특한 사전으로 남을 것이다.

4. 나오며

아카데미 사전은 초판 발행일부터 320년 이상 존속하고 있다. 하나의 사전이 300년 이상 존재하는 것은 제도권 사전이 됐든 사설 출판사의 사전이 됐든 세계의 사전 편찬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 아카데미 사전 초판이 출판된 지 딱 300년이 되는 1994년, 이를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프랑스 학사원(Institut de France)에서 열렸는데, 개회사에서 벨기에의 불어불문학 왕립아카데미의 대표인 고오스(Goosse)는 “프랑스 아카데미 사전 초판이 출판된 지 300주년이 되는 것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한 사전이 서양 문명이 겪은 모든 변화에 적응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워지기를 마다하지 않고 300년을 견제한 것도 기념해야 한다”(Quemada 1998:37)라고 하였다.

아카데미 사전이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재하면서 최초의 원칙들을 변함없이 지킨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카데미는 초판부터 확립된 용법 중 올바른 용법만을 기술하였고 공통어에 한정하여 어휘 목록을 작성하였다. 고어와 신어, 비속어, 전문 학술어를 배제하였고 인용문을 제시하는 대신 용례를 직접 만들었다. 이러한 원칙들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도 판마다 사전의 내용은 끊임없이 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아카데미 사전은 판 하나하나만 보면 공시 사전이다. 하지만 9개의 판을 모아놓으면 프랑스어의 변화와 발달 단계를 잘 보여 주는 진정한 동시 사전이 된다. 9개의 판을 통해 아카데미 사전은 프랑스어 역사의 소중한 증언자가 된다. 그리하여 각 판은 출판된 각 시기의 책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한다. 또한 아카데미 사전 각 판의 어휘 목록은 다른 대사전에 비해 그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각 판의 총합은 결코 작지 않으며 프랑스 언어와 문화유산의 주요한 부분을 이룬다.

아카데미는 편찬 당시의 프랑스어 상태를 역사 속에 고정시킨다는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언어의 진화를 인정하였다. 프랑스어가 진화하는 만큼 아카데미 사전도 계속 진화하였다. 프랑스어가 존재하는 한 사전 편찬 작업은 계속될 것이고, 아카데미는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끊임 없이 새로워지고 더 완벽한 사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섭(2007),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어학적 작업에 대한 연구-사전 편찬을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21, 1~22.
- 하영동(2006), 프랑스 아카데미 사전 초판의 편찬 과정과 그 특징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56, 51~174.
- 하영동(2007), 프랑스 아카데미 사전: 전통과 혁신, 『한국프랑스학논집』 60, 67~94.
- Benhamou, S. et al.(1997), Première édition 1694, Epitre, Préface, Privilège, Pièces annexes, in B. Quemada, 1997, 9~104.
- Hausmann, F.J.(1998), La réception de la première édition: grandeurs et misères, in B. Quemada, 1998, 133~138.
- Quemada, B.(1997), *Les préfaces du Dictionnaire de l'Académie française 1694~1992*, Paris, Honoré Champion.
- Quemada B.(1998), *Le Dictionnaire de l'Académie française et la lexicographie institutionnelle européenne*, Paris, Honoré Champion.
- 아카데미 프랑세즈 <http://www.academie-francaise.fr>

국립국어원 소식

1.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 다듬은 말 선정

1.1. ‘신스틸러’ 대신 ‘명품 조연’

- ‘신스틸러(scene stealer)’의 다듬은 말: 명품 조연
- ‘버킷 리스트(bucket list)’의 다듬은 말: 소망 목록
- ‘프로파일러/프로파일링(profiler/profiling)’의 다듬은 말: 범죄 분석가 / 범죄 분석
- ‘벤치 클리어링(bench clearing)’의 다듬은 말: (집단) 몸싸움, 수단 몸싸움
- ‘오픈 키친(open kitchen)’의 다듬은 말: 개방형 주방

‘신스틸러’는 ‘장면을 훔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 등에서 훌륭한 연기력이나 독특한 개성을 발휘해서 주연 이상으로 주목을 받는 조연’을 말한다. ‘버킷 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나 꼭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목록’을 가리킨다.

‘프로파일러/프로파일링’은 ‘일반적 수사 기법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연쇄 살인 사건 수사 등에 투입되어 용의자의 성격, 행동 유형 등을 분석하고, 도주 경로나 은신처 등을 추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그러한 수사 기법’을 말한다. 그리고 ‘벤치 클리어링’은 ‘야구나 아이스하키 등의 스포츠 경기 도중 선수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을 때, 양 팀 선수들이 모두 벤치를 비우고 싸움에 동참하는 행동’을 말한다. ‘오픈 키친’은 ‘레스토랑, 식당 등에서 손님이 볼 수 있게 배치한 개방형 조리장’을 뜻하는 말이다.

1.2. '에어캡' 대신 '뽁뽁이'

- '에어캡(air cap)'의 다듬은 말: **뽁뽁이**
-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의 다듬은 말: 승차 구매(점)
- '백팩킹(backpacking)'의 다듬은 말: 배낭 도보 여행, 등짐 들살이
- '오티피(O.T.P.: One Time Password)'의 다듬은 말: 일회용 비밀 번호
- '파노라마 선루프(panorama sunroof)'의 다듬은 말: 전면 지붕창

'에어캡'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기포가 들어간 폴리에틸렌 필름'을 이르는 말로, 누르면 뽁뽁거리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뽁뽁이'로 다듬었다. '드라이브스루'는 '운전자가 차에 탄 채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 또는 그러한 판매 방식의 상점'을 이르는 말로, 주로 즉석 음식(패스트푸드), 커피 등의 매장에 이런 서비스 방식이 많다.

'백팩킹'은 '1박 이상의 야영(들살이) 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넣은 배낭을 짊어지고 산과 들을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여행'을 말한다. 그리고 '오티피'는 '무작위로 생성되는 난수(특정한 배열 순서나 규칙을 가지지 않는, 연속적인 임의의 수)로 구성된 일회용 비밀 번호 또는 그런 일회용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인증 방식'을 가리킨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차량 지붕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강화 유리 등으로 덮은 지붕창(선루프)'을 뜻하는 말이다.

2. 국립국어원 원내 토론회

2.1. 2014년 제14회 원내 토론회

- 주제: 국어 복수 한자음의 단순화 과정에 대하여
- 발표자: 이준환(창원대학교 교수)
- 일시: 2014년 12월 1일(월) 16:00~17:30
- 장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준환 교수가 ‘국어 복수 한자음의 단순화 과정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복수 한자음의 역사적 양상과 단순화 과정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자 가운데에는 둘 이상의 음을 지닌 복수음자(複數音字)가 적지 않다. 이렇게 한자가 둘 이상의 음을 지니는 것들은 대개 한어(漢語)에서 복수 한자음을 지닌 데에 근거를 둔 것이며 한자의 의미 분화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한자음과 뜻에 관한 정보를 실은 《광운(廣韻)》(1008)과 《집운(集韻)》(1066) 등의 운서(韻書)를 찾아서 반절(反切)을 확인해 보면 이들 복수 한자음의 연원을 대개 추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글을 이용하여 국어 한자음에 관한 정보를 실은 운서인 《동국정운(東國正韻)》(1448)에도 복수 한자음의 양상이 자세히 반영되어 되어 있는데, 이런 양상은 이후의 《화동정음통석운고(華東正音通釋韻考)》(1747), 《삼운성휘(三韻聲彙)》(1751), 《규장전운(奎章全韻)》(1796) 등의 운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또 《전운옥편(全韻玉篇)》(1796?), 《국한문신옥편(國漢文新玉篇)》(1908), 《자전석요(字典釋要)》(1909), 《신자전(新字典)》(1915) 등의 자전에도 복수 한자음의 양상이 자세히 반영되어 있으며, 《훈몽자회(訓

蒙字會)》(1527), 《신증유합(新增類合)》(1576), 《주해천자문(註解千字文)》(초간본 1752/중간본 1804) 등의 초학서에도 복수 한자음이 꽤 나타난다.

이처럼 복수 한자음은 중세 국어 시기만 하더라도 그 음이 두루 인식되었던 것들인데 근대 국어 시기와 개화기를 거쳐 현대 국어 시기에 이르는 동안 우열 관계가 심해지면서 어느 하나의 음으로 단순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양상이 나타난 데에는 의미가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다. 즉 복수 한자음이 나타내는 의미 사이의 유사성 때문에 어느 하나의 음으로 통일되거나, 같은 뜻과 음을 지닌 다른 한자가 있을 때에 이 한자로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거나, 사회가 변화하여 어떤 의미로 나타낼 대상이 줄어들거나 사라져서 사용 빈도가 높은 음만 살아남게 된 것이다. 이는 의미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복수 한자음의 단순화 양상을 입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기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국어사 시기별로 한자음 사용 빈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하고, 이 빈도가 통시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전체의 추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한자의 뜻과 음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초학서의 훈과 어휘집에 수록된 어휘에 의존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언해서에서 한자를 어떻게 번역하는지를 조사하여 뜻과 음의 관계를 두루 파악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사한 뜻을 지니는 다른 한자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한자 사이의 영향 관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로써 한자의 다의성 때문에 생긴 한자 사용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이나마 해소해 간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로 자전에 나오는 한자음에 기대어 한자음의 기준을 삼고 정할 때에 생기는 현실 언어와의 괴리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용 한자와 인명용 한자에서 뜻과 음을 정할 때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준환 교수의 발표에 이어 복수 한자음의 지역적 차이, 속음의 출현 시기와 관련 문헌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복수 한자음의 변천과 정착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토론회가 마무리되었다.

2.2. 2015년 제1회 원내 토론회

- 주제: 훈민정음(訓民正音) 연구를 위한 기본 지식
- 발표자: 정우영(동국대학교 교수)
- 일시: 2015년 2월 23일(월) 16:00~17:30
- 장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정우영 교수가 ‘훈민정음(訓民正音) 연구를 위한 기본 지식’이라는 주제로, ‘훈민정음(訓民正音)’과 관련된 정확한 기본 지식 제공을 위한 훈민정음의 원천 문헌인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훈민정음’이라는 명칭은 크게 ‘문자 체계’와 ‘책 이름’에 사용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해 말하면 첫째, 1443년 12월에 조선 세종이 창제한 문자 체계의 이름(오늘날의 ‘한글’), 둘째, 문자 ‘훈민정음’을 한문으로 해설한 책 이름(『훈민정음』 해례본(解例本)), 셋째, 한문 해설서 중에서 〈어제서문〉과 〈예의(例義)〉 부분을 우리말로 번역한 책 이름[『훈민정음』 언해본(諺解本)] 등 세 가지가 쓰이고 있다. 『훈

민정음》 해례본과 《훈민정음》 언해본은 ‘훈민정음’의 원천 문헌이다. ‘훈민정음’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는 이 책들의 내용에서 비롯된 것 이므로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곧 훈민정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길이며, 나아가 훈민정음을 연구할 수 있는 기본 정석이라 할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예의편(例義篇)〉은 조선 세종(世宗)의 글로 ‘세종서문’과 ‘예의’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예의편〉이라고 하는데, ‘세종서문’에는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취지가 밝혀져 있고, ‘예의’에는 ① 문자 ‘훈민정음’의 자모 규정으로 초·중·종성의 자형과 음가 등이, ② 국어의 문자화(文字化)를 위한 ‘문자 운용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해례편(解例篇)〉은 세종의 글인 ‘예의’를 바탕으로 정인지를 비롯한 집현전 학자 8명이 작성한 해설 부분이다. ‘제자해’에서는 ‘훈민정음’을 만든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초성해·중성해·종성해에서는 각각 초성·중성·종성에 대한 해설을, 합자해에서는 초성·중성·종성을 합쳐 쓰는 방법을 해설하였다. 산문으로 된 각 해(解)의 끝마다 ‘결왈(訣曰)’이라 하고 앞서 해설한 내용을 운문인 7언의 한시로 압축해 표현한 것이 특이하다.

훈민정음의 해례본과 언해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세종서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정인지서’를 제1의 보충·해설 자료로 삼아서 정확히 독해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인지서’는 ‘세종서문’에 대하여 2/3 분량에서 “자세하게 해석을 붙인다[詳加解釋釋]”는 관점으로 해설·보충·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 규정은 〈해례편〉의 ‘제자해(制字解)’뿐만 아니라 ‘표기 규정’과 관련되어 있는 ‘종성해(終聲解)’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규정은 비록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종성 제자(制字)에 관한

규정'과 '종성 표기(表記)에 관한 규정'의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고안된 중의적 규정이다. 셋째, 1447년 『석보상절』 간행 시에 『훈민정음』의 언해본이 간행되었다는 견해도 있으나, 『석보상절』이 만들었지만 책 안에 들어 있는 범어의 중국어 표기를 읽기 위해 이미 1446년 12월 말 정도에 번역, 간행된 『훈민정음』 언해본에 한음치성(漢音齒聲) 규정만을 추가 번역해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훈민정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대한민국 대표 사전인 『표준국어 대사전』에 기술된 훈민정음 관련 정보의 표준화와 보완 정비가 시급하다. 문자 체계의 명칭인 '훈민정음'이나 '정음'의 개념을 비롯하여 아직도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용어들, 그리고 정확하게 해설되지 않은 것들이 여러 개 발견된다. 둘째, 『훈민정음』 해례본을 컴퓨터 그래픽으로라도 복원할 필요가 있다. 훈민정음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을 결집해 국가사업으로 복원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고전(古典)이자 세계기록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표준 번역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어 번역본을 보완해 제작할 필요가 있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은 후속 세대에 달려 있는데, 한자·한문을 해득하지 못하는 '한글세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70여 년간 축적된 훈민정음 연구와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진지한 학문적 토론을 거쳐 표준화된 공역 추진이 필요하다.

정우영 교수의 발표에 이어 훈민정음 제목의 의미와 해석,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혼용되는 '자(字)'와 '성(聲)'의 차이,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의 중의적 규정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훈민정음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3.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 위치: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korean.go.kr>)
 - ‘자료 찾기’ → ‘연구 결과’ → ‘기타 자료’ → 검색: 검색어 ‘역대 심의결정안’
-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4년 30차 심의 확정안(2014. 11. 14.)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4년 31차 심의 확정안(2014. 11. 21.)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4년 32차 심의 확정안(2014. 11. 27.)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4년 33차 심의 확정안(2014. 12. 10.)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4년 34차 심의 확정안(2014. 12. 19.)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4년 35차 심의 확정안(2014. 12. 29.)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4년 36차 심의 확정안(2014. 1. 8.)
- 제118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정안(2015. 2. 16.)

4. 「2014년 표준어 추가 사정안」 발표

국립국어원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던 ‘빼지다, 놀잇감, 속앓이, 딴지’ 등 13개 항목의 어휘를 표준어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2014년 표준어 추가 사정안〉을 발표하고 국립국어원 누리집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에 반영하였다.

국립국어원은 1999년에 국민 언어생활의 길잡이가 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발간한 이후 언어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은 단어들을 검토하는 일을 꾸준히 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11년에 ‘짜장면, 맨날, 눈꼬리’ 등 39개 항목을 표준어로 추가하였으며, 2014년에 다시 ‘빼지다, 놀잇감, 속앓이, 딴지’ 등 13개 항목을 표준어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된 표준어는 2014년 8월 29일 국어심의회에서 최종 확정한 것으로, 그동안 국립국어원이 어문 규범과 《표준국어대사전》의 보완을 위해 시행해 온 어휘 사용 실태 조사와 말뭉치 검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고 표준어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것들을 선별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은 크게 두 가지다.

4.1. ‘빼지다’, ‘빼치다’ 등 복수 표준어 인정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널리 쓰이는 말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했다. 그동안 ‘빼지다’는 비표준어로서 ‘빼치다’로 써야 했으나 앞으로는 ‘빼지다’도 ‘빼치다’와 뜻이 같은 표준어로 인정된다. 이렇게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빼지다’, ‘눈두덩이’, ‘구안와사’, ‘초장초’, ‘굽신거리

다’ 등 모두 5개 항목이다.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것은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표준어 규정」의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이미 써 오던 것(‘빼치다’)과 추가로 인정된 것(‘빼지다’)을 모두 교과서나 공문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표준어를 익히기 위해 따로 수고를 들일 필요 없이 둘 중 선호하는 어휘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표 1] 2014년 표준어 추가 사정: 복수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구안와사	구안괘사
굽신*	굽실
눈두덩이	눈두덩
빼지다	빼치다
초장초	작장초

* ‘굽신’이 표준어로 인정됨에 따라, ‘굽신거리다, 굽신대다, 굽신하다, 굽신굽신, 굽신굽신하다’ 등도 표준어로 함께 인정됨.

4.2. ‘놀잇감’ 등 뜻과 어감이 다른 말을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

현재 표준어와는 뜻이나 어감이 다른 말을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그동안 ‘놀잇감’은 ‘장난감’으로 써야 했으나 ‘놀잇감’과 ‘장난감’은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놀잇감’을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이렇게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말은 ‘놀잇감’, ‘개기다’, ‘사그라들다’, ‘속앓이’, ‘혀접하다’, ‘딴지’, ‘섬찢’, ‘꼬시다’ 등 모두 8개 항목이다.

한편, 국어심의회에서는 ‘RADAR(radio detecting and ranging)’의

한글 표기로 ‘레이디’와 ‘레이더’를 복수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어 발음이 [reɪda:(r)]인 것을 반영하여 ‘레이디’를 기본적인 표기로 새로 인정하되, 교과서 등에서 그동안 널리 써온 ‘레이더’도 관용적인 표기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표 2] 2014년 표준어 추가 사정: 별도 표준어

추가 표준어	현재 표준어	뜻 차이
개기다	개개다	개기다: (속되게)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티거나 반항하다. (※ 개개다: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친다.)
꼬시다	꾀다	꼬시다: ‘꾀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 꾀다: 그럴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이거나 부추겨서 자기 생각대로 끌다.)
놀잇감	장난감	놀잇감: 놀이 또는 아동 교육 현장 따위에서 활용되는 물건이나 재료. (※ 장난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물건.)
딴지	딴죽	딴지: (주로 ‘걸다, 놀다’와 함께 쓰여) 일이 순순히 진행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거나 어기대는 것. (※ 딴죽: 이미 동의하거나 약속한 일에 대하여 딴전을 부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그라들다	사그라지다	사그라들다: 삭아서 없어져 가다. (※ 사그라지다: 삭아서 없어지다.)
섬찢*	섬뜩	섬찢: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느낌이 드는 모양. (※ 섬뜩: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끔찍한 느낌이 드는 모양.)
속앓이	속병	속앓이: 「1」 속이 아픈 병. 또는 속에 병이 생겨 아파하는 일. 「2」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걱정하거나 괴로워하는 일. (※ 속병: 「1」 몸속의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위장병 01’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3」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하여 생긴 마음의 심한 아픔.)
허접하다	허접스럽다	허접하다: 허름하고 잡스럽다. (※ 허접스럽다: 허름하고 잡스러운 느낌이 있다.)

* ‘섬찢’이 표준어로 인정됨에 따라, ‘섬찢하다, 섬찢섬찢, 섬찢섬찢하다’ 등도 표준어로 함께 인정됨.

국립국어원은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및 여론 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규범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이 국어를 사용할 때에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5. ‘유커’보다는 ‘중국(인) 관광객’을 써 주세요

5.1. ‘유커’는 어려운 외국어, ‘중국(인) 관광객’은 쉬운 한국어

최근 언론에서 종종 사용하는 ‘유커’는 ‘유객(遊客)’의 중국어 발음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 것이다. 그런데 ‘유커’는 중국어에서 ‘여행객’ 또는 ‘관광객’을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 말을 바로 ‘한국으로 여행 온 중국인 관광객’을 뜻하는 말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구나 이 말은 어려운 외국어이므로 이제부터는 ‘유커’ 대신 ‘중국 관광객’ 또는 ‘중국인 관광객’처럼 알기 쉬운 말로 바꾸어 써야 하겠다.

그리고 현재 ‘遊客’을 ‘요우커’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국립국어원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정부·언론외래어심의위원회 제118차 회의(2014. 12. 3.)에서는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유커’로 적기로 결정하였다.

5.2. 타이의 유명한 관광지 이름은 ‘푸켓’이 아니라 ‘푸껫’

한편, 국립국어원은 해외 주요 여행지 가운데 한글 표기에 혼란이 많은 대표적인 지명 20개를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타이의 관광지 ‘Phuket’의 외래어 표기를 ‘푸켓’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타이어 표기법에 따르면 ‘푸껫’이 올바른 표기이다. 일반적으로 외래어를 표기

할 때는 된소리를 적지 않는 것이 원칙(예: 샷포로, 잘츠부르크, 몽마르트르)이지만 타이어와 베트남어에 한해서는 ‘푸껫, 호찌민, 냐짱’과 같이 된소리 표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 자주 틀리는 외국 관광지 이름 20선

번호	국가	지명(원어 표기)	지명(규범 표기)	지명(표기 실태)
1	러시아	Vladivostok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톡
2	말레이시아	Kuala Lumpur	쿠알라룸푸르	쿠알라룸프/콸라룸푸르
3	미국	Las Vegas	拉斯베이거스	拉斯베가스
4	미국	Grand Canyon	그랜드캐니언	그랜드캐년
5	미국	Manhattan	맨해튼	맨하탄
6	베트남	Ho Chi Minh	호찌민	호치민
7	베트남	Nha Trang	나짱	나트랑
8	스위스	Zürich	취리히	찌리히
9	스페인	Cordoba	코르도바	꼬르도바
10	싱가포르	Singapore	싱가포르	싱가풀
11	오스트레일리아	Melbourne	멜버른	멜번/맬번
12	오스트리아	Salzburg	잘츠부르크	짤쓰부르크
13	이탈리아	Sorrento	소렌토	쏘렌토
14	일본	きゅうしゅう	규슈	큐슈
15	일본	さっぽろ	삿포로	삿뽀로
16	중국	Tibet	티베트	티벳
17	캄보디아	Angkor Wat	앙코르와트	앙코르왓
18	타이	Phuket	푸껫	푸켓
19	타이완	高雄 (Gāoxióng)	가오슝	까오슝/카오슝
20	프랑스	Montmartre	몽마르트르	몽마르뜨/몽마르트

6. 2015년 상반기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 계획

6.1. 2015년 상반기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가. 교육 개요

- 내용: 어문 규범, 공문서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등 국어 관련
과목 20강좌 35시간
- 장소: 국립국어원
- 기간: 5일간(월~금), 비합숙

나. 교육 일정(2015년 상반기)

- 3월 1기]: 2015. 3. 9.(월)~3. 13.(금)
- 3월 2기]: 2015. 3. 16.(월)~3. 20.(금)
- 4월 1기]: 2015. 4. 6.(월)~4. 10.(금)
- 4월 2기]: 2015. 4. 13.(월)~4. 17.(금)
- 5월 1기]: 2015. 5. 11.(월)~5. 15.(금)
- 5월 2기]: 2015. 5. 18.(월)~5. 22.(금)
- 6월 1기]: 2015. 6. 8.(월)~6. 12.(금)
- 6월 2기]: 2015. 6. 15.(월)~6. 19.(금)

다. 수료생에게는 교육 훈련 점수(선택 전문 교육 훈련 과정, 35시간)

부여

라. 교육비: 100,000원(수강료 · 교재비: 100,000원)

마. 연락처: 02-2669-9662, 9729, 9752 (전송: 02-2669-9787)

6.2.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주요 강좌 내용

가. 국어 어문 규범 분야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원칙과 실례 익히기
- 일상생활에서 틀리기 쉬운 말과 구별해야 할 말 익히기

나. 글을 바르게 쓰기

- 공문서 바로 쓰기: 공문서에서 흔히 잘못 쓰는 예를 유형별로 찾아보고 바르게 고치기. 고쳐 쓰면 좋을 단어와 문장 표현 제시
- 글쓰기 지도: 수강생이 직접 쓴 글을 첨삭하여 지도
- 우리말 다듬기: 일본어식 한자어, 어려운 한자어, 서구 외래어·외국어, 비속어 등 국어 순화의 대상과 결과, 바른말과 쉬운 말 제시

다. 말을 바르게 하기

- 표준 발음: 틀리기 쉬운 발음을 중심으로 표준 발음법 소개, 실례 익히기
- 협력적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효과적 방법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듣고 말하기 등의 훈련

라. 국어와 문화 관련 특강

- 바람직한 언어 환경(일상 언어, 방송 언어, 길거리 간판, 안내문, 공공 언어 바르고 쉽게 쓰기 등), 우리말에 나타난 한국인의 문화, 언어와 심리, 말과 정신의 관계, 새로운 세기의 문화와 산업 등

* 특강 주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7. 2015년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일정

7.1. 2015년도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일정

구분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	비고
심사 계획 공고	2015. 2. 2.	2015. 7. 27.	2015. 11. 2.	
심사 신청 접수	2015. 3. 2.~ 2015. 3. 13.	2015. 8. 31.~ 2015. 9. 11.	2015. 12. 7.~ 2015. 12. 18.	
심사 결과 발표	2015. 4. 27.	2015. 10. 26.	2016. 2. 5.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http://kteacher.korean.go.kr)
자격증 교부	2015. 5월 중순	2015. 11월 중순	2016. 2월 말	주소지로 등기 우송

7.2. 2015년도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일정

구분	1차 심사	2차 심사	비고
심사 계획 공고	2014. 12. 5.	2015. 5. 29.	
심사 신청	2015. 1. 5.~ 2015. 1. 9.	2015. 6. 29.~ 2015. 7. 3.	
1차 심사 결과 발표	2015. 1. 23.	2015. 7. 17.	
재심사 신청	2015. 1. 26.~ 2015. 1. 30.	2015. 7. 20.~ 2015. 7. 24.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http://kteacher.korean.go.kr)
2차 심사 결과 발표 (최종)	2015. 2. 13.	2015. 8. 7.	

- 불가피한 경우 위의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매회의 심사 계획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문장 부호 해설》 발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12월 5일 문장 부호 관련 규정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글 맞춤법 일부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39호, 2015년 1월 1일 시행)을 고시하였다. ‘문장 부호’는 〈한글 맞춤법〉(1988)의 부록으로 실려 있는데, 26년 만에 새 옷을 입게 된 것이다.

‘문장 부호’는 1933년 당시 조선어학회(지금의 한글학회)가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도 부록으로 실려 있었다. 당시 ‘문장 부호’는 모두 16개 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부호마다 한 줄 정도의 설명만 덧붙인 정도로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88년에 〈한글 맞춤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문장 부호’도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었다. 모두 24 종(가로쓰기 20종, 세로쓰기 4종)에 이르는 문장 부호의 용법을 66개 조항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당시 ‘문장 부호’는 원고지 중심의 전통적인 글쓰기 환경에 맞추어 제정되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글쓰기 환경이 컴퓨터와 인터넷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실제 언어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문장 부호와 그 용법을 반영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계, 출판계, 언론계 등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1996년 이후 꾸준히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고, 2014년 8월 29일에 열린 국어심의회에서 비로소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새 ‘문장 부호’는 이전 규정에 맞추어 쓰더라도 틀리지 않도록 하되, 현실적인 쓰임에 맞도록 허용 규정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규범의 현실성을 높여 누구나 문장 부호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새 ‘문장 부호’는 가로쓰기만을 대상으로

부호 24종의 용법을 94개 조항으로 나누어 현재의 다양한 쓰임새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온점’과 ‘반점’으로 부르던 부호 ‘.’과 ‘,’에 대하여 각각 ‘마침표’와 ‘쉼표’라고 하고 기존에 부르던 이름도 쓸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줄임표’를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게 하는 등 사용자 편의와 활용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 『문장 부호 해설』은 새 ‘문장 부호’에 대한 이해를 도와 문장 부호가 언어생활에 바르게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펴내게 되었다. 규정에서는 미처 담지 못한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문장 부호 용법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글을 쓸 때 늘 곁에 두면서 활용하면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 『문장 부호 해설』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알림 · 소식 → 알립니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9. 국립국어원, 국내외 한국어 교원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한국어교수학습센터’개통

국립국어원은 전 세계 한국어 교원들이 시·공간과 비용의 제약 없이 교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국어 교수 학습 누리집, ‘한국어교수학습센터’(이하 샘터, <http://kcenter.korean.go.kr>)를 올해 3월부터 개통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9.1. 한국어교원의 자질 향상을 통한 한국어교육 경쟁력 강화 추진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국내외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는 시행 첫 해인 2006년 800여 명에서 2015년 3월 현재 1만 7,000여 명(누적치)으로 약 20배가량 증가하였다. 폭발적인 한국어 교육 수요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교원 자격자의 양적 팽창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들의 자질 향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 또한 크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해마다 교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강의, 워크숍 등의 교육과 연수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늘어나는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내외 한국어 교육 종사자와 예비 종사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고 스스로 자질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수학습센터’를 개통했다.

한국어교수학습센터는 이용자 접근 용이성과 제공 자료의 신속·정확성, 최신화에 중점을 두어 ‘메뉴 최소화, 내용 최대화’ 전략을 추구하였다. 사이트에 들어갈 때마다 ‘화제의 교육 자료’가 검색 순으로 펼쳐진다. ▲ 가르침터 ▲ 정보나눔터 ▲ 이야기터 ▲ 나의 샘터 등 4개 대 메뉴에서 그동안 국립국어원에서 개발·발간했던 한국어 교육 관련 교재 등을 동영상, 문서, 음성, 전자책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표 4] 한국어교수학습센터 메뉴

사이트 내용		
가르침터	수업 자료실	교수 참고 자료
		한국어 교재
		기초 연구 자료
온라인 강의실(2015년 콘텐츠 탑재 예정)		
정보나눔터	한국어 관련 소식	
	한국어 교원 연수 일정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안내)	
	채용 정보	
이야기터	질의응답	
	한국어 교육 정책 제안	
	커뮤니티	
	자료 공유	

9.2.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한국어교원 온라인 학습 체계 구축

국립국어원은 올해 사이트 이용 상황과 이용자 의견, 한국어 교육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센터 서비스를 더욱 확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내외 한국어 교원 대상 교재,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제공뿐 아니라 온라인 연수 강좌 개설, 휴대폰 등을 사용한 모바일 연수 등 언제 어디서나 질 좋은 교육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의 계획이 완수되면 ‘한국어교수학습센터’는 온라인 연수, 교원 간 체험 및 정보 교류, 정책 제안 기능을 소화하는 융합형 한국어교원 연수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사이트는 주로 ‘국내외 한국어 교원’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한국어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열린 공

간이다.

민현식 국립국어원장은 “한국어교수학습샘터가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 나아가 학습자, 연구자를 위한 ‘정보의 샘터이자 쉼터’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한국어 교원은 물론 예비 교원, 학습자들도 샘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록 1]

2014년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수정 내용

표제항 (가나다 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가능성	앞으로 실현될 수 있는 성질	(1) 앞으로 실현될 수 있는 성질. (2)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질	뜻풀이 추가
거라01	[('가다'나 '가다'로 끝나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해라할 자리에 쓰여, 명령 의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어서 {가 거라}. / 그만 {물려가거라}.』	[('오다'를 제외한 동사 어간 뒤에 붙어)]해라할 자리에 쓰여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어라01'보다 예스러운 느낌을 준다. 『어서 {가 거라}. / 그만 {물려가거라}. / 만히 {있 거라}. / 빨리 {먹거라}.』	뜻풀이 수정
고종실록	-	고종-실록(高宗實錄) [고종실록만---룡] (명사『책면』조선 고종 재위45년 동안의 실록, 1935년에 이왕직의 주관으로 오다 쇼고(小田省吾) 등이 펴냈다. 52권 52책, 일제 침략기에 일본인들이 주관하여 편찬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에 포함하지 않는다.)	표제어 추가
꼽슬하다	-	꼽슬 하다[-쓸-] (형용사) 텸이나 실 따위가 고부리지게 말려 있다. 『사워를 마치고 얹고 흰 실크의 잠옷으로 갈아입은 정운이 아직도 약간의 물기가 남아 있는 [꼽슬한] 머리를 늘어뜨린 채 침실로 들어갔다. 『오정인』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었네> / 송아지도 어미를 닦는다더니 두 애가 다 어미를 돌아서 머리가 약간 [꼽슬하고] 살결이 희었다. 『김정한, 슬픈 해후』)	표제어 추가
긁다	(1) 손톱이나 뾰족한 기구 따위로 바닥이나 거죽을 문지르다. (2) 갈퀴 따위로 빗질하듯이 끌어 들이다. (3) 남을 헐뜯다. (4) 남의 재물을 교활하고 악독한 방법으로 빼앗아 들이다.	(1) 손톱이나 뾰족한 기구 따위로 바닥이나 거죽을 문지르다. (2) 갈퀴 따위로 빗질하듯이 끌어 들이다. (3) 남을 헐뜯다. (4) 남의 재물을 교활하고 악독한 방법으로 빼앗아 들이다.	뜻풀이 추가

표제항 (가나다 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긁다	<p>(5) 뾰족하거나 날카롭고 넓은 끝으로 무엇에 붙은 것을 떼어 내거나 벗겨 없애다.</p> <p>(6) 남의 감정, 기분 따위를 상하게 하거나 지극하다.</p> <p>(7)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공연히 건드리다.</p> <p>(8) 철필 따위로 등사지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다.</p> <p>(9) (속되게) 자동 소총 따위를 쏘다. 또는 그렇게 하여 사람이나 짐승을 죽이다.</p>	<p>(5) 뾰족하거나 날카롭고 넓은 끝으로 무엇에 붙은 것을 떼어 내거나 벗겨 없애다.</p> <p>(6) 남의 감정, 기분 따위를 상하게 하거나 지극하다.</p> <p>(7)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공연히 건드리다.</p> <p>(8) 철필 따위로 등사지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다.</p> <p>(9) (속되게) 자동 소총 따위를 쏘다. 또는 그렇게 하여 사람이나 짐승을 죽이다.</p> <p>(10) 물건 따위를 구매할 때 카드로 결제하다.</p>	
꼽꼽하다	조금 촉촉하다.	<p>(1) 조금 촉촉하다.</p> <p>(2) 날씨나 기운이 기분 나쁠 정도로 습하고 덥다. ¶[장마철엔 습도가 높아서 {꼽꼽하다}. / 이때껏 살아온 길이 어둡고 아득하게 멀고 습하고 {꼽꼽한} 동굴 속만 같았다. ¶[한승원, 굴]]</p>	뜻풀이 추가
꼽꼽하다	조금 축축하다.	<p>(1) 조금 촉촉하다.</p> <p>(2) 날씨나 기운이 기분 나쁠 정도로 습하고 덥다. ¶[장마철엔 습도가 높아서 {꼽꼽하다}. / 이때껏 살아온 길이 어둡고 아득하게 멀고 습하고 {꼽꼽한} 동굴 속만 같았다. ¶[한승원, 굴]]</p>	뜻풀이 추가
누룽지 튀각	-	누룽지-튀각 [누룽지튀각만[---강-]](명사)누룽지를 말려서 기름에 튀긴 음식. ≈눌은밥튀각.	표제어 추가
다그다	<p>[1] 【…을 …으로】 물건 따위를 어떤 방향으로 가까이 옮기다.</p> <p>[2] 【…을】</p> <p>(1) 시간이나 날짜를 예정보다 앞당기다.</p> <p>(2) 어떤 일을 서두르다.</p> <p>[3] 『복』 숨을 가쁘게 들이쉬다.</p>	<p>[1] 【…을 …으로】 물건 따위를 어떤 방향으로 가까이 옮기다. ¶[의자를 창 쪽으로 {다그} 두어라.]</p> <p>[2] 【(…을)…에/에게】 【(…을)…으로】 어떤 대상이 있는 쪽으로 몸을 움직여 그 대상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다.</p> <p>[3] 【…을】</p> <p>(1) 시간이나 날짜를 예정보다 앞당기다.</p> <p>(2) 어떤 일을 서두르다.</p> <p>[4] 『복』 숨을 가쁘게 들이쉬다.</p>	뜻풀이 추가
다문화	-	다문화(多文化)(명사)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의 문화가 혼재하는 것을 이르는 말. ¶[다문화] 가정/(다문화) 시대.	표제어 추가

표제항 (가나다 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데려다 주다	-	데려다-주다 [-주어-줘], [-주나] (동사) 【…을】 일정한 곳까지 함께 거느리고 가 주다. ¶ 이들 내외는 문지방도 안 넘 고 집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돌아갔 다. 이들은 회사로 급히 들어가야 한 다고 했고, 며느리는… 『박완서, 우 황청심환』 / 그날 밤 태영은 순이를 그의 산막으로 {데려다주고} 돌아오 는 길에 별빛 천란한 하늘을 우러러보 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병주, 지 리산』 (높) 모셔다드린다.	표제어 추가
독대02	(2) 윗사람과 단둘이 만나는 일.	(2) 어떤 일을 의논하려고 단둘이 만 나는 일. 주로 윗사람과의 만남을 이른다.	뜻풀이 수정
드러나다	[1] (1)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던 것이 보 이게 되다. (2)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널리 밝혀 지다.	[1] (1)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다. (2)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널리 밝 혀지다. (3) 곁에 나타나 있거나 눈에 띈다. (4) (주로 '드러나게' 꼴로 쓰여)다 른 것보다 두드러져 보인다.	뜻풀이 추가
떡두꺼비	(1) 탐스럽고 암팡지게 생긴 것 넓은 남 자아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 크고 튼실하게 생긴 두꺼비. (2) (주로 '떡두꺼비처럼', '떡두꺼비 같은' 꼴로 쓰여) 복스럽고 탐스럽 게 생긴 것 태어난 사내아이를 이 르는 말.	뜻풀이 추가
모셔다 드리다	-	모셔다-드리다[모:-----] [-드리에[-- 어 / --예(-드려), -드리나] (동사) 【…을】 '데려다주다'의 높임말. ¶ 택 시를 접으러 갈 판인데 그분이 차를 가 지고 집으로 오셨어요. 사정을 듣자 자기가 {모셔다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병주, 행복어 사전』 / 제가 {모셔 다드리고} 싶지만, 우리 원주 어른 일 이 걱정인지라 갈 수가 없습니다. 『황석영, 장길산』	표제어 추가
몰라보다	-	몰라-보다[몰: -보-/몰: -봬-] [-보어 [보어 / 봐여(-봐), -보나[보/봬-]] (동 사) 【…을】 나이나 지위 신분, 형렬 따위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알아차 리지 못하다. ¶ "그때는 양복을 입으 시고 지금은 조선옷을 입으셔서 곧 (몰라보았습니다)." 하고 악의 없는 웃음을 내놓는 것을 보고서야 겨우 안 심이 되었다. 『염상섭, 이심』 / 천하 장사를 {몰라보고} 죽을 죄를 지었소 이다. 『황석영, 장길산』	표제어 추가

표제항 (가나다 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몰라뵙다	-	몰라-뵙다[물: -뵙따/물: -뵙따](동사) 【…을】(주로 '몰라뵙고' 꼴로 쓰여) 나이나 지위 신분, 형렬 따위가 자기 보다 높은 사람을 알아차리지 못하다. '몰라뵈다'보다 더 겹양의 뜻을 나타 낸다. ¶선생님을 {몰라뵙고}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표제어 추가
물기운	-	물-기운[-까](명사) 물에서 느껴지는 촉촉한 기운. ¶손에 느껴지는(물기운 이) 시원하다. / {물기운을} 잃은 가죽 은 말라서 뻣뻣하고 입은 탄는 것만 같 았다. 『김성한, 개구리』	표제어 추가
반려동물	-	반려-동물(伴侶動物)[발: ---](명사)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 이 두고 기르는 동물. 개, 고양이, 새 따 위가 있다. ¶애견은 우리와 함께 살아 가는 {반려동물이자} 가족이다.	표제어 추가
번체자	-	번체자(繁體字)(명사) 중국에서 전 통적으로 써 오던 방식 그대로의 한자 를 간체자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표제어 추가
들문	『의학』 위와 식도가 연결되는 국부 (局部). 〃분문02 · 위앞문.	(1) 들어가는 문. (2) 『의학』 위와 식도가 연결되는 국부 (局部). 〃분문02 · 위앞문.	뜻풀이 추가
빌려주다	-	빌려-주다 [-주어(-줘), -주니] (동사) 【…을 …에/에게】 (1) 물건이나 돈을 나중에 도로 돌려 받거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얼마 동안 내어 주다. 〃대여하다 · 대 급하다 02. ¶안 입는 한복 있으면 하루만 나한테 {빌려줄래?} / 철수 는 영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2) 어떤 장소나 시설물을 얼마동안 쓸 수 있도록 내어 주다. ¶그 드라마 작 가는 자신의 집을 드라마 촬영 장소 로 선뜻 {빌려주었다}.	표제어 추가
마주치다	[1] 【…과】('…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 로 온다.)	[1] 【…과】 【…을】('…과'가 나타 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문형 정보 —수정 (타동사 쓰임 인정함)
밀면	물건의 아래쪽을 이루는 걸면.	(1) 물건의 아래쪽을 이루는 걸면. (2) 『수학』 원기둥, 각기둥의 평행한 두 면, 또는 원뿔, 각뿔의 꼭짓점과 이 웃하지 않은 면.	뜻풀이 추가

표제항 (가나다 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뱅이	'그것을 특성으로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그것을 특성으로 가진 사람이나 사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뜻풀이 수정
상위	서로 틀리거나 어긋남.	서로 달라서 어긋남.	뜻풀이 수정
새집 증후군	-	새집 ¹ 증후군 ² (--症候群)『건설』새로 지은 건물의 건축 자재에서 배출되는 물질들로 인해 발생하는 병적인 증상, 두통, 피부염, 수면 장애 따위가 나타난다.	표제어 추가
소프호스	소프호스	솝호스	표제어 수정
손나팔	손나팔(喇叭) ¹ 북 ² (1) 손나발 [1]의 북한어. (2) 손나발 [2]의 북한어.	손-나팔(-喇叭)(명사) (1) 손을 입에다 대고 마치 나팔을 부는 것처럼 소리를 내는 일. 『손나발』(1). (2)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속삭여 말할 때 나발 모양처럼 만들어 입에 대는 손. 『손나발』(2). 『목도꾼 하나가 손나팔을』 해 가지고 질러 대는 소리에 형태는 일어섰다. 『한수산, 유민』	표제어 수정/ 뜻풀이 수정
수사선	『북』 '수사망'의 북한어.	(1) 범죄 현장에 있는 흔적 따위를 토대로 범인과 범죄 사실을 추리해 나가는 체계. (2) 『북』 '수사망'의 북한어.	뜻풀이 추가
숙제하다	-	숙제-하다(宿題--)(-찌--)(동사) 복습이나 예습 따위를 위하여 집에서 하도록 내 주는 일을 하다. 『(숙제하고) 나서 놀아라. / 우리 집에서 [숙제하자] 않을래?』 집 앞에 이르러 치울이가 이불과 담요가 널린 이 층의 베란다를 올려다보며 나를 끌었다. 『오정희, 중국인 거리』	표제어 추가
순종실록	-	순종-실록(純宗實錄) (순종실록만---종) (명사)『책명』조선 순종 재위 4년 동안과 퇴위 후 17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실록. 1935년에 이왕직의 주관으로 오다 쇼고(小田省吾) 등이 펴냈다. 일제 침략기에 일본인들이 주관하여 편찬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에 포함하지 않는다.	표제어 추가
스크랩	(1) 신문, 잡지 따위에서 필요한 글이나 사진을 오림. 또는 그런 것. '오려 모으기', '자료 모음'으로 순화.	(1) 필요한 자료만 모아 나중에 쉽게 찾아보기 위해 신문, 잡지 따위에서 글이나 사진을 오려 모음. 또는 그렇게 모아진 자료. '오려 모으기', '자료 모음'으로 순화.	뜻풀이 수정

표제항 (가나다 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싶다	(3) (동사 뒤에서 '-을까 싶다' 구성으로 쓰여)	(3) (동사나 형용사, '이다' 뒤에서 '-을까 싶다' 구성으로 쓰여)	문법 정보 수정
신나다	-	신나다 [-나, -나니] (동사) 어떤 일에 흥미나 열성이 생겨 기분이 매우 좋아 지다. ¶나는 어릴 때 말 탄 순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높은 말 등에서 긴 칼을 차고 있는 모양이 몹시 {신나} 보였거든요. <이문열, 영웅시대> / “어제 처럼 개펄로 {신나게} 달려 볼까?” 머리맡의 안경을 찾아 끼며 내가 말했다.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표제어 추가
아가사창	내가 부를 노래를 사돈이 부른다는 뜻으로, 꾸짖음이나 나무림을 들어야 할 사람이 도리어 큰소리를 침을 이르는 말.	(1) 내가 부를 노래를 사돈이 부른다는 뜻으로, 자기가 할 말을 상대면에서 먼저 힘을 이르는 말. (2) 꾸짖음이나 나무림을 들어야 할 사람이 도리어 큰소리를 침을 이르는 말	뜻풀이 추가
앞서가다	-	앞서·기대[압싸-] [-가, -가니, -가는] (동사) (1) 남보다 앞서서 가거나 먼저 기다. ¶ 그가 {앞서가고} 나는 뒤에서 걸었다. 동행하는 것으로 족했지 말을 주고받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 <박완서, 도시의 흥보년> (2) 일의 사정이나 형편 따위가 남보다 뛰어나게 나은 상태로 되어 가다. ¶ 지금 우리나라엔 질서, 질서 하지 만 진짜 있어야 할 질서가 없다 그 겁니다. 그저 악은 놈, 악한 놈이 {앞서가고} 더 잘사는 질서만 있다 그거지요. <전상국, 음지의 눈> (3) ('앞서간, 앞서기신'의 꼴로 쓰여) 사람이 먼저 죽다. ¶그는 헤이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묘지명을 썼었다. 심지어는 열일곱에 요절한 조카, 악전의 아들 학초(學樵)와 자기보다 {앞서간} 며느리의 묘지명까지 쓴 다산이다. <한무숙, 만남> (4) 【···을】 어떤 사람이나 일 따위가 다른 사람이나 일의 수준을 뛰어넘어 나이가다. ¶의복은 항상 개절을 {앞서기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이 여름에, 특히 장마 중에 바바리코트 따위를 걸쳐 입는 것은… <김원우, 짐승의 시간>	표제어 추가

표제항 (가나다 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액자식 구성	액자식^구성	액자식 구성	표제어 수정 (전문 용어 띄어쓰기)
에스피리 투산투 주	에스피리투산투 주	이스피리투산투 주	표제어 수정 (표기)
양장피	(洋張皮)	(兩張皮)	원어 수정
여서03	(1)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2)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1)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2)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3) 수단이나 방식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낚시를 [하여서] 고기를 잡았다. / 그는 계속 {아르바이트하여서} 용돈을 벌었다.	뜻풀이 추가
운06	=운수04(運數)	(1) =운수04(運數) (2)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지는 운수. 『내가 이긴 건 순전히 {운이우}, {운}. 『조해일, 왕십리』 / 그런 말 마라. {운}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단다. 『박경리, 토지』 / 나는 {운이} 있는 것이다. 사람은 기를 쓴다고만 다 되는 건 아니야. {운이} 있어야지. 『최인훈, 회색인』	뜻풀이 추가
외딸다	(동사)	(형용사)	품사 수정
유아 영양 실조증	유아^영양^실조증	유아^영양실조증	표제어 수정 (전문 용어 띄어쓰기)
유정란	-	유정란(有精卵)(유: -년(명사)『생물』=수정란(2)).	표제어 추가
이종 격투기	-	이종^격투기(異種格鬪技)『운동』 서로 다른 무술을 하는 사람끼리 격투를 벌여 승패를 가리는 경기.	표제어 추가
인터록	인터록	인터로크	표제어 수정
정작	요긴하거나 진짜인 것. 또는 그런 점이나 부분.	[1] (명사)요긴하거나 진짜인 것. 또는 그런 점이나 부분. [2] (부사) (1)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기대하거나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정작] 할 말은 꺼내지도 못한 채 돌아왔다. / 주인 사내가 {정작} 놀라게 된 것은 여자의 다음 물음이었다. 『이청준, 선학동 나그네』』	뜻풀이 추가 (부사 풀이 추가)

표제항 (가나다 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정작		(2) 어떤 일에 실지로 이르러. 『다시 집으로는 아니 들어가리라는 생각이 없었던 바도 아니었으나, {정작} 이런 말을 듣고 보니, 무엇엔지 차마 허하지 못할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지라… 『계용목, 백치 아다다』 / 그래도 설마 했는데, {정작} 이야기를 듣고 보니 벼락을 맞는 기분이었다. 『송기숙, 자릿 골의 비가』 / 「담임선생님께 사실대로 말씀을 드릴까?」 그것이 상책이라고 생각은 몇 번 먹어 보나 {정작} 학교에 가서는 담임선생님의 방을 노크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쟁이02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1)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2) 그것과 관련된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낚잡아 이르는 말. 『[관상쟁이]』 / {그림쟁이} / {이발쟁이}.	뜻풀이 추가
조리다01	고기나 생선, 채소 따위를 양념하여 국물이 거의 없게 바짝 꿀이다. 『생선을 {조리다}. / 멸치와 고추를 간장에 {조렸다}.』	(1) 양념을 한 고기나 생선, 채소 따위를 국물에 넣고 바짝 꿀여서 양념이 배어들게 하다. (2) 식물의 열매나 뿌리, 줄기 따위를 꿀이나 설탕물 따위에 넣고 계속 꿀여서 단맛이 배어들게 하다.	뜻풀이 수정
조현병	-	조현병(調絃病)(명사) 『의학』 사고의 장애나 감정, 의지, 충동 따위의 이상으로 인한 인격 분열의 증상. 현실과의 접촉을 상실하고 분열병성 황폐를 가져오는 병이다. 청년기에 많으며 내향적인 성격이나 비사교적, 공격적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기 쉬운데, 유전적인 요인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긴장형, 파과형(破瓜型), 망상형(妄想型) 따위로 나눈다.	표제어 추가
진작에	'진작01'의 잘못.	진작에[진:--] (부사) =진작01. 『부모와 그가 아직 단칸방을 면하기도 전에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가난이 심어 {진작에} 가출(家出)한 큰누이에는 벌써 9년째 소식이 없다. 『이문열, 사람의 아들』 / 포로가 되고 싶었으면 왜 {진작에} 그런 의사를 비치지 않았소? 『홍성원, 육이오』』	뜻풀이 수정

표제항 (가나다 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진족에	-	진족·애[진:--](부사) =진작01.『나는 [진족에] 다 맷고 다 끊었습니다. 제 발 가진 계집이 제 돈 주고 표 끊어서 제 갈 곳 어디를 간단들, 『최명희, 혼불』』	표제어 추가
침01	(1) 고기나 채소에 여러 가지 양념을 하여 찌거나 국물이 바특하게 삶은 음식. (2)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찐 음식의 뜻을 나타내는 말.	(1) 여러 가지 양념을 한 고기나 채소를 찌거나 국물이 바특하게 삶은 음식. (2)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찌거나 국물이 바특하게 삶은 음식을 나타내는 말.	뜻풀이 수정
쳐내려 오다	-	쳐내려오다 [쳐---] [-내려와, -내려오니, -내려오너라] 【…에】 【…에서】 【…으로】 (동사) 적이 위쪽이나 북쪽에서 공격해 오다. 『오랑캐들이 조선에 (쳐내려왔다). 』 짚은이들은 이 북에서 (쳐내려오기만) 하면 곧 해방될 것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큰 오산 이오. 『이병주, 지리산』 ॥ 증공군이 남쪽으로 (쳐내려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최인호, 지구인』』	표제어 추가
최대한	=최대한도.	[1] (명사) =최대한도. [2] (부사) 일정한 조건에서 가능한 한 가장 많이. 『그는 자기가 맡은 일은 빕틈없이 끝내려고 {최대한} 노력한다. / 그들은 우리의 계획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 노쇠한 동물을 위해 우리는 총을 들어 발사한다. 마찬가지로 저 노인에게 살아 있는 우리가 {최대한}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지막 애정은 죽음을 맞게 하는 일뿐이다. 『최인호, 돌의 초상』』	뜻풀이 추가 (부사 풀이 추가)
최소한	=최소한도.	[1] (명사) =최소한도. [2] (부사) 가장 적게 잡아도 또는 일정한 조건에서 가능한 한 가장 적게. 『이 일을 끝내는 데 {최소한} 세 시간은 걸린다. / {최소한} 난 몸을 파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정운은 밤의 검은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인정호,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	뜻풀이 추가 (부사 풀이 추가)
추다01	(4)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느라 훔통하거나 뛰어나다고 말하다.	(4) 어떤 사람을 정도 이상으로 크게 칭찬하여 말하다.	뜻풀이 수정

표제항 (가나다 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충무공 탄신일	충무공의 높은 충의(忠義)를 기념하여 정한 날. 4월 28일이다.	충무공의 높은 충의(忠義)를 기념하여 정한 날. 4월 28일이다. 1545년 3월 8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로 4월 28일이다.	뜻풀이 수정
치다02	(13) 몸이나 몸체를 심하게 움직이다.	(13) 몸이나 몸체를 부르르 떨거나 움직이다.	뜻풀이 수정
큰대자	-	큰대자(-大字)--찌(명사) (주로 '큰 대자로' 꽂로 쓰여) 한자 '大'자와 같이 팔과 다리를 양쪽으로 크게 벌린 모양. ≒대자02(2) 개인방으로 들어간 평산은 방문을 열어젖힌 채(큰대자로) 눌더니 얼마 되지 않아 코를 드렁드렁 골았다. <<박경리, 토지>> / 입에는 수건을 두르고 햇불을 들고서 싸리문을 밀치고 들어가니, 주인 되는 남자는 마루에 {큰대자로} 넘어져 있었고, 계집아이 둘과 사내아이가 토방에 나란히 누웠는데… <<황석영, 장길산>>	표제어 추가
평행하다	(1) 나란히 가다. (2) 각 줄의 머리글자가 똑같은 높이가 되도록 글씨를 쓰다. (3) 『수학』 두 개의 직선이나 두 개의 평면 또는 직선과 평면이 나란히 있어 아무리 연장하여도 서로 만나지 아니하다. (4) 『음악』 화성(和聲)의 진행에서, 두 성부가 같은 방향으로 가다.	[1] (동사) (1) 나란히 가다. (2) 각 줄의 머리글자가 똑같은 높이가 되도록 글씨를 쓰다. (3) 『수학』 두 개의 직선이나 두 개의 평면 또는 직선과 평면이 나란히 있어 아무리 연장하여도 서로 만나지 아니하다. (4) 『음악』 화성(和聲)의 진행에서, 두 성부가 같은 방향으로 가다. [2] (형용사) 【…에】 【…과】 늘어선 모습이 나란하다.	뜻풀이 추가 (형용사 추가)
한둘	(수사)하나나 둘쯤 되는 수.	[1] (수사) 하나나 둘쯤 되는 수. [2] (명사) (주로 '한둘이' 꽂로 쓰여 뒤에 오는 '아니다' 따위의 부정어와 호응하여) '조금'의 뜻을 나타내는 말. (2) 어떤 일이나 현상이 적은 수부터 서서히 시작됨을 나타내는 말.	뜻풀이 추가
탕수육	-	<중>糖醋肉	어월 정보 추가
溽다	『이불의 먼지를 {溽다}.	『이불을 {溽다}.	용례 수정

표제항 (가나다 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한류02	-	한류02(韓流) [활:류](명사)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요소가 외국에서 유행하는 현상. 1990년대 말에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한류} 열풍/{한류} 스타 /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한류를} 실감할 때가 많다.	표제어 추가
한참	(1)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 (2) 두 역참(驛站) 사이의 거리.	[1] (명사) (1)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 (2) 두 역참(驛站) 사이의 거리. [2] (부사) (1) 어떤 일이 상당히 오래 일어나는 모양. (2) 수효나 분량, 정도 따위가 일정한 기준보다 훨씬 넘게.	뜻풀이 추가
한잔하다	-	(…을)※ 자동사로만 등재되었으나 타동사 용법도 등재됨으로써 타동사로 사용될 경우에도 '한잔하다'로 붙여 씀.	문형 정보 수정 (자동사 → 자동사/타동사)
해16	'그해에 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1) '당해에 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 '얼마 되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뜻풀이 추가
햇	'그해에 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1) '당해에 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 '얼마 되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햇병아리}	뜻풀이 추가
희생	(1)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림. 또는 그것을 빼앗김. (2) 천자신명, 묘사(廟社) 따위에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바치는, 산 짐승. 주로 소, 양, 돼지 따위를 바친다.	(1)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림. 또는 그것을 빼앗김. (2) 사고나 자연 재해 따위로 애석하게 목숨을 잃음. (3) 천자신명 따위에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바치는, 산 짐승 주로 소, 양, 돼지 따위를 바친다.	뜻풀이 추가
흰돌고래	흰-돌고래	흰-고래	표제어 수정

[부록 2]

2015년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수정 내용

표제항 (가나다 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강치	-	강치 01(명사) '바다사자'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표제어 추가
내공	-.	내공(內功)[내: -](명사) (1) 오랜 기간 무예 따위를 숙련해서 가져진 힘과 기운. (2) 오랜 기간의 경험을 통해 쌓은 능력. ¶이제는 《내공이》 쌓여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표제어 추가
들깻가루	-	들깻-가루[-깨까/-깬까-](명사) 들깨를 뽕은 가루. 나물이나 탕 요리에 쓰인다.	표제어 추가
등	(2)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함을 나타내거나 열거한 대상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	(2)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	표제어 추가
묵은지	-	묵은지(명사) 오랫동안 숙성되어 푹 익은 김장 김치.	표제어 추가
민망하다	답답하고 떡하여 안타깝다. 『민연하다2(憤然—)』 나는 지난번 일이 민망해서 한동안 말도 붙이지 못했다. / 전화통에서 돌아온 전경훈은 오히려 이쪽이 민망할 정도로 사과를 했다. 《황순원, 일월》 / 그를 바라보는 여학생이 도리어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의 난처한 처지를 민망하게 생각하는 눈치가 있었다. 《박태순, 어느 사학도의 젊은 시절》 / 나는 그런 부탁을 하기가 민망해서 말을 꺼내지 못했다. / 그는 아무래도 마누라의 도착이 부하들 보기에 민망하고 쑥스럽다. 《홍성원, 육이오》	(1) 보기에 답답하고 떡하여 안타깝다. 『민연하다2(憤然—)』 문의원 말마따나 고집으로 병도 이기시는 모양인데, 글쎄 얼마나 가실까? 피골이 상접해서 빠옵기가 『민망하고』 그런 중에도 자네 말씀을 하시더군. 《박경리, 토지》 (2) 낯을 들고 대하기가 부끄럽다. 『면구하다-면괴하다』 ¶ 나는 지난번 일이 『민망해서』 한동안 말도 붙이지 못했다. / 그를 바라보는 여학생이 도리어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의 난처한 처지를 『민망하게』 생각하는 눈치가 있었다. 《박태	뜻풀이 수정

표제항 (가나다 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민망하다		순, 어느 사학도의 짚은 시절》 나는 그런 부탁을 하기가 {민망 해서} 말을 꺼내지 못했다. / 그는 아무래도 마누라의 도착이 부하 들 보기에 {민망하고} 쑥스럽다. ≪홍성원, 육이오≫	
소독솜	-	소독 솜(消毒-)[-솜] (명사) 『의학』 (1) 소독할 때 쓰는 솜. 불순물이나 지 방 따위를 제거한 뒤 에탄올에 담 가 만든다. 『일회용 {소독솜} / 상 처를 {소독솜으로} 닦았다. (2) '북한어' '탈지면'의 북한어.	북한어를 남한어로 돌림
스마트폰	-	스마트-폰(smart phone)(명사) 『통신』 휴대 전화에 여러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 사용자가 원하 는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것 이 특징이다.	표제어 추가
예의	-	(예의01(例義)[예: 의/예: 0] (명사) 『책명』 ≪훈민정음≫에서 어제 서문 (御製序文)과 곧이어 나오는 자음과 모음의 음기와 운운 방법에 대해 풀이 한 부분을 이르는 말.	표제어 추가
우유	소의 젖. 백색으로 지방, 단백질, 칼 슘,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 어 영양기가 높다. 살균하여 음료로 마시며 아이스크림, 버터, 치즈 따위 의 원료로도 쓴다. ≈소젖 · 쇠젖 · 타락01(駄酪).	소의 젖. 백색으로, 살균하여 음료로 마시며 아이스크림, 버터, 치즈 따위 의 원료로도 쓴다. ≈소젖 · 쇠젖 · 타 락01(駄酪).	뜻풀이 수정
완독하다	-	완독 하다01(完讀--)[-도카-](동사) 글이나 책 따위를 끝까지 모두 읽다. 『이번 방학 때는 소설책 한 권을 {완독 할} 예정이다.	표제어 추가
제막되다	-	제막-되다(除幕--)[-뫼/-뫼-](동사) 막이 걷어지다. 『거기서 석수장이가 만들어 낸 첫 작품은 위령탑(慰靈塔) 이었다. 위령탑이 {제막되는} 날이 바 로 묘지가 개업하는 날이었다. ≪박완 서, 오만과 용상≫.	표제어 추가
중국	아시아 동부에 있는 나라. 황하(黃河) 강을 중심으로 고대 문명이 일어난 곳으로, 전설적인 삼황(三皇) · 오제 (五帝) 시대를 시작으로 하나 나라 · 은나 라 · 주나라 · 춘추 전국 시대 · 전(秦)나	(1) 아시아 동부에 있는 나라. 황하(黃 河) 강을 중심으로 고대 문명이 일 어난 곳으로, 전설적인 삼황(三皇) · 오제(五帝) 시대를 시작으로 하 나라 · 은나라 · 주나라 · 춘추 전국	뜻풀이 추가

표제항 (가나다 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중국	<p>라·한나라·삼국 시대·진(晉)나라·남북조 시대·수나라·당나라·오대(五代)·송나라·원나라·명나라·청나라를 거쳐 1912년에 중화민국이 성립되었다. 그 뒤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장악하여 중국 본토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고, 국민 정부는 타이완으로 옮겼다. 광대한 영토에 농산물, 지하자원 따위의 각종 자원이 풍부하다. 수도는 베이징, 면적은 959만 6961㎢.</p>	<p>시대·진(秦)나라·한나라·삼국 시대·진(晉)나라·남북조 시대·수나라·당나라·오대(五代)·송나라·원나라·명나라·청나라를 거쳐 1912년에 중화민국이 성립되었다. 그 뒤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장악하여 중국 본토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고, 국민 정부는 타이완으로 옮겼다. 광대한 영토에 농산물, 지하자원 따위의 각종 자원이 풍부하다.</p> <p>(2) 아시아 동북부에 있는 인민공화국, 1949년에 마오쩌둥(毛澤東)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을 몰아내고 중국 본토에 세운 국가이다. 매우 광대한 영토로 신장(新疆)·내몽골 따위의 변방은 건조·사막·지대이고, 동부의 화베이(華北)·지방은 대륙성 기후 지역이며, 화중(華中)·화남(華南)·지방은 아열대 기후로 농업이 발달하였다. 근래에는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수도는 베이징, 면적은 959만 6961㎢.</p>	
지자	(형용사)	(보조 형용사)	품사 수정
추자도	-	<p>추자·도(楸子島)(명사)『지명』 제주도 제주 해협에 있는 섬의 무리. 상·하·추자도, 추포도, 횡간도 따위의 유인도와 38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군도로 관광지와 바다 낚시터로 유명하다. 면적은 7.56㎢. ↳추자 제도.</p>	표제어 추가
하다	<p>[1](동사) [6] (1) (주로 '하여·서' 꿀로 '쯤', '경' 다음에 쓰여) 일정한 시각이나 시기에 이르다. 『그는 일을 시작한 지 셋 달쯤 해서 삶증을 내기 시작했다. / 기차가 도착할 때쯤 하여 역으로 나갔다. / 10시쯤 하여서 회사로 찾아가겠다. / 내년 봄쯤 해서 외국으로 나갈 생각이다.</p> <p>(2) ('하면' 꿀로 명사 다음에 쓰여) 이 야기의 회제로 삼다. 『를 하면 역시 우리나라 물이 최고다./ 신훈여행 하면 제주도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 노래 하면 우리 반에선 영수가 최고지.</p>	<p>[1] (동사) [6] (1) (주로 '하여·서' 꿀로 '쯤', '경' 다음에 쓰여) 일정한 시각이나 시기에 이르다. 『그는 일을 시작한 지 셋 달쯤 {해서} 삶증을 내기 시작했다. / 기차가 도착할 때쯤 {하여} 역으로 나갔다. / 10시쯤 {하여} 회사로 찾아가겠다. / 내년 봄쯤 {해서} 외국으로 나갈 생각이다.</p> <p>(2) ('하면' 꿀로 명사 다음에 쓰여) 이 야기의 회제로 삼다. 『를 {하면} 역시 우리나라 물이 최고다./ 신훈여행 {하면} 제주도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노래 {하면} 우리 반에선 영수가 최고지.</p>	뜻풀이 추가

표제항 (가나다 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하다		(3) ('하고' 꿀로 명사의 단독형과 함께 쓰여' 그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더하여'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 『내가 이 회사를 다닌 지 6년(하고) 3개월이 되었다. / 내 친구는 이번에 서울(하고도) 강남에 집을 샀다.』	
키워드	키^워드	키-워드	표제어 수정 (띄어쓰기)
햄스터	-	햄스터(hamster) 「명사」 황금햄스터 따위의 애완용 쥐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표제어 추가
호송차	-	호송 차(護送車) [호: -] 「명사」 좌수나 형사 피고인 따위를 수송하는 차. 『[호송차의] 문이 닫혔다. 이윽고 {호송차는} 경찰서 앞마당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병주, 행복어 사전>』	표제어 추가
훈민정음	(2) 『책명』 조선 세종 28년(1446)에 훈민정음을 28자를 세상에 반포할 때에 찍어 낸 판각 원본. 세종이 훈민정음을 칭제의 취지를 밝힌 어제 서문(御製序文), 자음과 모음의 음 가와 운용 방법을 설명한 예의(例義), 훈민정음을 해설한 해례, 정인지 서(序)로 되어 있다.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국보 제70호	(2) 『책명』 조선 세종 28년(1446)에 훈민정음을 28자를 세상에 반포할 때에 찍어 낸 판각 원본. 세종이 훈민정음을 칭제의 취지를 밝힌 어제 서문(御製序文), 자음과 모음의 음 가와 운용 방법을 설명한 예의(例義), 훈민정음을 해설한 해례, 정인지 서(序)로 되어 있다.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국보 제70호. ≈정음 02(正音) (2)-해례(3)-해례본-훈민정음해례(2)-훈민정음해례본.	뜻풀이 수정

